

2012 제1권 제4호

해외곡물시장 동향

World Grain Market



특별기고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기상 정보
부 록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 11-2012-04

2012 제1권 제4호

해외곡물시장 동향

World Grain Marke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 동향」은 농업관계자 및 일반인이 해외곡물시장을 이해하고 정부가 농업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세계곡물시장 동향과 관련 정보, 주요 지표를 정리·분석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년에 4회 분기별로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rei.re.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담 당

성명환 연구위원 mhsung@krei.re.kr
한석호 부연구위원 shohan@krei.re.kr
권나경 연구원 najjong@krei.re.kr

TEL 02-3299-4126

FAX 02-965-4395

contents

- 02 특별기고**
해외곡물시장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 / 02
- 05 해외곡물시장 동향**
품목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 07
세계 곡물가격 동향 / 27
곡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 / 35
- 45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2013년 세계 경제 전망 / 47
2013년 외환시장 전망 / 58
2013년 국제 원유시장 전망 / 80
2013년 국제 곡물가격 전망 / 88
- 95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해외곡물시장 뉴스 / 97
그래픽으로 보는 해외곡물시장 : 중국의 밀 소비 시장 / 113
- 119 세계 기상 정보**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 121
- 125 부록**
세계 곡물 통계 / 127
국가별 대두 통계 / 131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해외곡물시장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

1980년대 말에 호주 밀수출공사(AWB)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다. 호주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 품종 33가지에 대한 제면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시드니에 있는 호주제빵연구소(BRI)에 가서 66다발의 마른국수를 만들어 핸드캐리하여 한국에 와서 관능검사를 했다. 의외로 2~3가지 품종의 면발이 색상이나 조직감이 뛰어나게 좋았고 이 결과를 학회지에 발표했더니 국내 라면업계에서 제분회사에 호주밀의 시험생산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90년대 초 전쟁 중에 미국과 체결했던 PL480 효력이 끝나자 호주밀의 수입이 늘기 시작했고, 현재 호주밀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30% 수준에 이른다. 해외 곡물의 수입선 다변화에 일조한 셈이다.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원에서 식품산업최고위과정을 개설했을 당시 농림부 고위인사에게 특강을 요청했는데 강의 제목을 '세계식량지도'로 요청했다. WTO 이후 식량의 해외 의존도는 점점 심화되는데 세계 곡물시장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함께 공부하고 싶었다. 식량의 국내 생산 못지않게 해외에서 언제 어떤 식량을 어떻게 사 들여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농림부의 중요한 업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

WTO가 출범한지 5년 후인 1999년 일본 동경에서 아시아생산성본부가 주최한 '무역 자유화와 식량 안보' 워크숍이 열렸다. 아시아지역 30여 개국 대표들이 모였는데 대부분 각 나라의 농림부 국장이나 차관급들이었다. 한국에서는 필자가 초청되었는데 아마도 한국정부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았다. 무역 자유화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식량사정은 세 그룹으로 확실히 구분되었다. 한국, 일본, 대만 등 경제력이 있는 식량수입국들은 농산물 수입을 통제할 장벽이 없어서 자국의 농업 붕괴를 걱정하고 있었다. 반면 태국, 베트남, 미얀마, 인도

등 쌀을 수출하는 나라들은 WTO를 환영하였다. 이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대부분 빈국들은 식량 원조에 의존해 왔는데 WTO 이후 식량 원조가 끊어져 기아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워크숍은 아시아 지역의 공통된 의견을 모아 국제사회에 무역 자유화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었으나 각 나라의 입장이 너무 상이하야 아무런 권고안도 내지 못했다.

이 회의에 제출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UR협상이 진행된 8년여 동안 독일, 영국 등 전통적으로 곡물 수입국이던 유럽 국가들이 곡물자급률 100% 이상을 모두 달성한 것이다. 일본은 '80년대 초에 이미 곡물자급률이 30%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UR협상 기간 중 이 수준을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그러나 한국은 1980년도에 54%였던 곡물자급률이 '90년도에는 40%, '95년에는 28%로 정신없이 내려갔다. 대부분의 후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WTO를 맞은 것이다. WTO를 준비 없이 맞은 후진국들이 2008년 곡물 파동에 직격탄을 맞고 폭동과 정변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은 다행이도 중화학공업과 전자산업을 일으켜 경제 강국이 되어 세계 식량파동에 무풍지대로 살고 있다. 그러나 곡물자급률 22%, 식량에너지 자급률 50% 이하인 현재의 상황은 분명히 잠재적 위기라고 봐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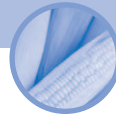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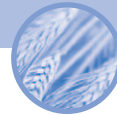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내 식량생산을 최대한 늘리고 필요할 때에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식량자주율을 높여야 한다. 불행이도 우리의 식량자주율은 대단히 낮다. 곡물메이저와 외국의 곡물메이저를 통해 대부분의 곡물을 사들이고 있다. 얼마전 일본 동경에서 열린 호주밀수출공사 리셉션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유일한 한국인을 만난 일본 곡물메이저 직원들이 한국은 자기들의 중요한 고객이라면서 반겼다. 의아해하는 나에게 “한국에는 선물거래를 할 전문가가 없다”고 했다. 우리의 식량주권을 일본에 내어준 현장을 실감했다. 이러한 현실은 지난 3~40년간 해외 곡물시장에 무관심했던 우리의 자세가 낳은 결과이다. 세계 곡물시장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다. 해외 곡물유통망을 당장 사들이겠다고 엄청난 예산을 받아놓고 쓰지 못해 비난받는 해프닝을 연속하고 있다. 일본 젠노(全農)가 미국에 곡물유통망을 구축하기위해 20여년을 공들인 것을 우리는 가볍게 보고 있다. 금년에 개간한 ‘해외곡물시장 동향’과 같은 정보 자료를 널리 연구하고 보급해야 한다. 10년, 아니 20년 후를 내다보고 차근차근히 공부하는 자세로 식량자주율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part

01

해외곡물시장 동향

2012 World Grain Market



품목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 07

세계 곡물가격 동향 / 27

곡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 / 35

품목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올해 6월부터 주요 곡물 생산국 특히 미국에 들이닥친 가뭄이 점차 해갈됨에 따라 10월까지 극심한 감소세를 보였던 주요 곡물의 생산량 전망치가 전월부터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쌀의 경우는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 소비 및 수출량 증가로 기말재고량은 감소할 전망이다. 밀의 경우 내수 소비 및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와 호주, 남미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 급감으로 기말재고량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옥수수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 급감이 소비량 및 교역량 감소폭보다 더 커 기말재고량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대두는 내수 소비 및 교역량 증가와 미국 및 중국의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생산량 급증으로 기말재고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8월 말까지 전 세계의 극심한 가뭄에 따른 주요 생산국의 곡물 생산량 감소 전망이 옥수수를 비롯한 대두와 밀의 선물 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였으나, 9월 이후 다소 가뭄이 해갈되는 양상을 보여 생산량의 감소폭이 둔화되고, 유럽발 금융위기의 지속과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등 외부시장의 영향으로 선물 가격은 한 풀 꺾여 일정 선에서 소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대내외적 여건이 곡물 가격의 하락을 견인하고 있으나, 수급상의 변수에 따라 등락폭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커 시장 상황을 매번 주시하여야 할 상황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세계 최대 옥수수 및 대두 생산국인 미국의 경우 옥수수 및 대두의 수확이 완료됨에 따라 밀을 제외하고는 생산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으나, 남미를 비롯한 유럽, 호주 등지에서는 주요 곡물의 파종 및 생육이 이어지고 있어 날씨 영향에 따라 생산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우 자국의 내수시장 보호를 위하여 11월 중반 이후 곡물수출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비롯한 인접 국가들 또한 동조할 우려가 내재해 있다. 또한 남미의 잦은 파업과 곡물에 대한 수출세 인상 그리고 주요 수출항만의 극심한 체선에 따른 공급 불안정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 작성: 한국사료협회 김민수 과장(mskim@kofeed.org)

1. 쌀 수급 동향 및 전망

■ 생산량

세계 쌀 생산량은 4억 6,534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3.6% 증가함에 반해, 2011/12년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주요국의 연간 쌀 생산량 변동폭을 살펴보면, 먼저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의 경우 올해 1억 4,300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4.4%, 1.6% 증가할 전망이다. 그 다음으로 인도의 경우 올해 9,900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3.1% 증가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5.1% 감소할 전망이다.

표 1. 연도별 주요국의 쌀 생산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11월	2012/13.12월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449.30	465.01	464.31	465.34	3.6	0.1
미국	7.59	5.87	6.33	6.33	-16.6	7.8
인도	95.98	104.32	99.00	99.00	3.1	-5.1
파키스탄	5.00	6.50	6.70	6.70	34.0	3.1
태국	20.26	20.46	20.50	20.50	1.2	0.2
베트남	26.37	27.08	27.10	27.71	5.1	2.3
브라질	9.30	7.89	7.82	7.82	-15.9	-0.9
인도네시아	35.50	36.50	36.90	36.90	3.9	1.1
필리핀	10.54	10.70	11.00	11.00	4.4	2.8
미얀마	10.53	10.82	10.75	10.75	2.1	-0.6
중국	137.00	140.70	143.00	143.00	4.4	1.6
이집트	3.10	4.25	4.70	4.70	51.6	10.6
일본	7.72	7.65	7.50	7.76	0.5	1.4
한국	4.30	4.22	4.10	4.01	-6.7	-5.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3, December 11, 2012.

그밖에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의 경우 생산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인도네시아 3,690만 톤, 베트남 2,771만 톤, 태국 2,050만 톤, 필리핀 1,100만 톤, 일본 776만 톤, 파키스탄 67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1.1%, 2.3%, 0.2%, 2.8%, 1.4%, 3.1%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633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16.6% 감소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7.8%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미얀마, 브라질의 경우 올해 각각 1,075만 톤, 782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0.6%, 0.9% 하락할 전망이다.

■ 소비량

세계 쌀 소비량은 4억 6,851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5.1%, 2.3%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을 비롯한 인도의 쌀 소비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1억 4,400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6.7%, 3.2% 증가할 전망이며, 인도의 경우도 9,525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5.6%, 3.2% 증가할 전망이다.

표 2. 연도별 주요국의 쌀 소비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11월	2012/13,12월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445.83	457.96	467.87	468.51	5.1	2.3
미국	4.32	3.47	4.04	3.98	-7.9	14.7
인도	90.21	92.32	95.25	95.25	5.6	3.2
파키스탄	2.25	2.50	2.65	2.65	17.8	6.0
태국	10.30	10.40	10.60	10.60	2.9	1.9
베트남	19.40	19.85	20.10	20.10	3.6	1.3
브라질	8.20	8.05	8.05	8.05	-1.8	0.0
인도네시아	39.00	39.55	40.00	40.00	2.6	1.1
필리핀	12.90	12.85	12.95	12.95	0.4	0.8
미얀마	10.10	10.19	10.38	10.38	2.8	1.9
중국	135.00	139.50	144.00	144.00	6.7	3.2
이집트	3.30	3.62	3.90	3.90	18.2	7.7
일본	8.20	8.05	8.05	8.25	0.6	2.5
한국	5.18	4.98	4.80	4.80	-7.3	-3.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3, December 11, 2012.

그밖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또한 소비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들 국가의 소비량은 인도네시아 4,000만 톤, 베트남 2,010만 톤, 태국 1,060만 톤, 필리핀 1,295만 톤, 미얀마 1,038만 톤, 일본 825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1.1%, 1.3%, 1.9%, 0.8%, 1.9%, 2.5%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는 398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7.9% 감소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14.7%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교역량

세계 쌀 수출량은 3,658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4.9% 증가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5.4%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 쌀 수출국인 태국의 경우 수출량이 800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24.9% 감소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23.1%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인도의 경우 725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161.7% 증가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30.3% 감소할 전망이다. 그밖에 파키스탄 400만 톤, 미국 335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6.7%, 4.0% 증가할 전망이다.

표 3. 연도별 주요국의 쌀 수출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11월	2012/13,12월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34.88	38.67	36.52	36.58	4.9	-5.4
미국	3.53	3.22	3.28	3.35	-5.1	4.0
인도	2.77	10.40	7.25	7.25	161.7	-30.3
파키스탄	3.39	3.75	4.00	4.00	18.0	6.7
태국	10.65	6.50	8.00	8.00	-24.9	23.1
베트남	7.00	7.50	7.00	7.00	0.0	-6.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3, December 11, 2012.

세계 쌀 수입량은 3,420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4.4% 증가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3.6% 감소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의 수입량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인도네시아의 수입량은 145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53.2%, 14.7% 감소할 전망이며, 나이지리아의 경우 230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4.2%, 28.1%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필리핀, 서남아시아, EU-27, 브라질의 수입량은 각각 150만 톤, 438만 톤, 140만 톤, 75만 톤이며 2010/11년 대비 각각 15.4%, 3.5%, 0.7%, 19.0% 증가할 전망이며, 이 가운데 EU-27과 서남아시아의 경우는 2011/12년 대비 각각 7.7%, 5.5%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표 4. 연도별 주요국의 쌀 수입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11월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32.75	35.47	34.29	4.4	-3.6
브라질	0.63	0.75	0.75	19.0	0.0
EU-27	1.39	1.30	1.40	0.7	7.7
인도네시아	3.10	1.70	1.45	-53.2	-14.7
나이지리아	2.40	3.20	2.30	-4.2	-28.1
필리핀	1.30	1.50	1.50	15.4	0.0
서남아시아	4.23	4.15	4.38	3.5	5.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3, December 11, 2012.

■ 기말재고량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1억 254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3.9% 증가할 전망이다에 반해, 2011/12년 대비 3.0%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기말재고량을 살펴보면,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의 경우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기말재고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들 국가의 기말재고량은 파키스탄 91만 톤, 태국 1,208만 톤, 베트남 258만 톤이며 2010/11년 대비 각각 82.0%, 114.9%, 33.0%, 2011/12년 대비 각각 12.3%, 23.5%, 45.8% 증가할 전망이다.

표 5. 연도별 주요국의 쌀 기말재고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11월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98.65 (20.5)	105.70 (21.3)	102.25 (20.3)	3.9	-3.0
미국	1.51 (19.2)	1.30 (19.4)	0.96 (13.1)	-36.4	-26.2
인도	23.50 (25.3)	25.10 (24.4)	21.60 (21.1)	-8.1	-13.9
파키스탄	0.50 (8.9)	0.81 (13.0)	0.91 (13.7)	82.0	12.3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11월	2012/13,12월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태국	5.62 (26.8)	9.78 (57.9)	12.08 (64.9)	12.08 (64.9)	114.9	23.5
베트남	1.94 (7.3)	1.77 (6.5)	2.26 (8.3)	2.58 (9.5)	33.0	45.8
브라질	0.80 (8.3)	0.39 (4.3)	0.31 (3.6)	0.31 (3.6)	-61.3	-20.5
인도네시아	6.18 (15.8)	4.83 (12.2)	3.18 (8.0)	3.18 (8.0)	-48.5	-34.2
필리핀	2.46 (19.1)	1.81 (14.1)	1.36 (10.5)	1.36 (10.5)	-44.7	-24.9
미얀마	0.51 (4.7)	0.43 (3.9)	0.20 (1.8)	0.20 (1.8)	-60.8	-53.5
중국	42.57 (31.4)	44.95 (32.1)	45.85 (31.7)	45.85 (31.7)	7.7	2.0
이집트	0.12 (3.4)	0.70 (16.6)	0.80 (16.8)	0.80 (16.8)	566.7	14.3
일본	2.69 (32.0)	2.79 (33.8)	2.74 (33.2)	2.79 (33.0)	3.7	0.0
한국	1.03 (19.9)	0.64 (12.9)	0.54 (11.3)	0.44 (9.2)	-57.3	-31.3

주: 괄호 안은 기말재고율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3, December 11, 2012.

2. 밀 수급 동향 및 전망

■ 생산량

세계 밀 생산량은 6억 5,511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0.4% 증가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5.9%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 국가별 2012/13년 밀 생산량을 살펴보면 북미 지역과 아시아 지역의 생산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6,176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2.8%, 13.5% 증가할 전망이다. 캐나다의 경우도 2,720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16.7%, 7.6%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 및 인도의 경우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국의 경우 1억 2,060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4.7%, 2.7% 증가할 전망이며, 인도의 경우도 9,390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16.2%, 8.1% 증가할 전망이다.

북미 지역과 아시아 국가를 제외한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러시아를 비롯한 흑해 지역 국가의 생산량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주요 밀 산지인 볼가 남부지역의 가뭄에 따라 생산량은 3,800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8.5%, 32.4% 감소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1,550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8.0%, 29.9% 감소할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1,050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8.9% 증가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53.8% 감소할 전망이다.

호주의 경우도 엘니뇨 현상에 따른 생산지역의 가뭄으로 인하여 올해 생산량은 2,200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19.7%, 26.5% 감소할 전망이다. 남미 지역 또한 올해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아르헨티나의 경우 지난 1985년 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수확면적의 25% 정도가 큰 피해를 입어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어, 생산량은 1,150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33.1%, 25.8%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도 480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18.6%, 17.2% 감소할 전망이다.

표 6. 연도별 주요국의 밀 생산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11월	2012/13.12월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652.24	696.43	651.43	655.11	0.4	-5.9
미국	60.06	54.41	61.76	61.76	2.8	13.5
아르헨티나	17.20	15.50	11.50	11.50	-33.1	-25.8
호주	27.41	29.92	21.00	22.00	-19.7	-26.5
캐나다	23.30	25.29	26.70	27.20	16.7	7.6
EU-27	136.02	137.23	131.82	131.73	-3.2	-4.0
브라질	5.90	5.80	5.00	4.80	-18.6	-17.2
중국	115.18	117.40	118.00	120.60	4.7	2.7
인도	80.80	86.87	93.90	93.90	16.2	8.1
러시아	41.51	56.23	38.00	38.00	-8.5	-32.4
카자흐스탄	9.64	22.73	10.50	10.50	8.9	-53.8
우크라이나	16.84	22.12	15.50	15.50	-8.0	-29.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3, December 11, 2012.

■ 소비량

세계 밀 소비량은 6억 7,393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2.9% 증가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료용 소비량 역시 1억 3,230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14.0% 증가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10.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사료용 소비량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표 7. 연도별 주요국의 밀 소비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11월	2012/13,12월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654.74 (116.01)	698.44 (147.08)	675.14 (131.96)	673.93 (132.30)	2.9 (14.0)	-3.5 (-10.0)
미국	30.71 (3.59)	32.16 (4.46)	36.41 (8.57)	36.41 (8.57)	18.6 (138.7)	13.2 (92.2)
아르헨티나	5.95 (0.10)	5.95 (0.10)	6.00 (0.10)	6.00 (0.10)	0.8 (0.0)	0.8 (0.0)
호주	5.82 (2.50)	6.51 (3.20)	6.54 (3.30)	6.34 (3.00)	8.9 (20.0)	-2.6 (-6.3)
캐나다	7.82 (2.97)	9.73 (4.63)	8.35 (3.20)	8.85 (3.70)	13.2 (24.6)	-9.0 (-20.1)
EU-27	122.25 (52.50)	127.50 (58.00)	123.50 (54.00)	122.00 (52.50)	-0.2 (0.0)	-4.3 (-9.5)
브라질	10.80 (0.20)	11.20 (0.50)	11.00 (0.20)	11.10 (0.30)	2.8 (50.0)	-0.9 (-40.0)
중국	110.50 (13.00)	122.50 (24.00)	122.00 (22.00)	123.00 (23.00)	11.3 (76.9)	0.4 (-4.2)
인도	81.76 (2.90)	81.41 (3.10)	85.40 (3.60)	85.41 (3.60)	4.5 (24.1)	4.9 (16.1)
러시아	38.60 (16.00)	38.00 (15.50)	34.50 (12.50)	34.50 (12.50)	-10.6 (-21.9)	-9.2 (-19.4)
카자흐스탄	6.20 (1.90)	7.40 (2.60)	7.00 (2.20)	7.00 (2.20)	12.9 (15.8)	-5.4 (-15.4)
우크라이나	11.60 (2.80)	14.95 (6.10)	11.80 (3.30)	11.80 (3.30)	1.7 (17.9)	-21.1 (-45.9)

주: 괄호 안은 사료용 소비량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3, December 11, 2012.

2011/12년 대비 소비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는 러시아를 비롯한 흑해 연안 국가들과 호주, 캐나다 및 유럽 국가들이다. 러시아의 경우 2011/12년 대비 9.2% (사료용 19.4%) 감소한 3,450만 톤(사료용 1,250만 톤)에 이를 전망이며, 카자흐스탄의 경우도 2011/12년 대비 5.4%(사료용 15.4%) 감소한 700만 톤(사료용 22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우 2011/12년 대비 21.1%(사료용 45.9%) 감소한 1,180만 톤(사료용 33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도 2011/12년 대비 2.6%(사료용 6.3%) 감소한 634만 톤(사료용 3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적으로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소비량 역시 상관관계를 지나 캐나다의 경우 생산량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은 2011/12년 대비 9.0%(사료용 20.1%) 감소한 885만 톤(사료용 37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미국과 인도의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2011/12년 대비 13.2%(사료용 92.2%) 증가한 3,641만 톤(사료용 857만 톤)에 이를 전망이며, 인도의 경우 또한 2011/12년 대비 4.9%(사료용 16.1%) 증가한 8,541만 톤(사료용 36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 교역량

세계 밀 수출량은 1억 3,277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0.2% 증가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15.8% 감소할 전망이다. 2011/12년 대비 수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는 아르헨티나, 호주,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이다. 아르헨티나는 57.4% 감소한 5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호주는 31.1% 감소한 1,700만 톤, 러시아는 53.8% 감소한 1,000만 톤, 카자흐스탄은 40.9% 감소한 7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표 8. 연도별 주요국의 밀 수출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11월	2012/13.12월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132.48	157.65	132.69	132.77	0.2	-15.8
미국	35.08	28.56	29.94	28.58	-18.5	0.1
아르헨티나	9.49	12.90	5.50	5.50	-42.0	-57.4
호주	18.66	24.69	16.50	17.00	-8.9	-31.1
캐나다	16.58	17.35	19.00	19.00	14.6	9.5
EU-27	22.91	16.57	17.50	18.00	-21.4	8.6
인도	0.07	0.89	6.00	6.50	9,185.7	630.3
러시아	3.98	21.63	10.00	10.00	151.3	-53.8
카자흐스탄	4.86	11.84	7.00	7.00	44.0	-40.9
우크라이나	4.30	5.44	6.00	6.00	39.5	10.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3, December 11, 2012.

반면 우크라이나의 수출량은 크게 증가하여 2011/12년 대비 10.3% 증가한 600만 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11월 15일부터 곡물 수출을 잠정적으로 제한키로 하였으며, 계속해서 수출제한조치가 불거져 온 러시아 또한 이에 대한 동조 가능성이 있어 향후 밀 공급량이 매우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1/12년 대비 캐나다, EU-27 및 인도의 수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캐나다는 9.5% 증가한 1,900만 톤, EU-27은 8.6% 증가한 1,800만 톤, 인도는 630.3% 증가한 65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수출이 부진하였던 미국의 경우 현재는 2,858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0.1% 증가할 전망이나 아르헨티나의 수출량 감소분을 대처하는 등 미국산 수요 증가로 인하여 향후 수출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계 밀 수입량은 1억 3,915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5.7% 증가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6.3% 감소할 전망이다. 2011/12년 대비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곳은 동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9.7% 감소한 1,560만 톤에 이를 전망이며, 북아프리카의 경우 10.4% 감소한 2,21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브라질, 중국, 서남아시아의 경우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브라질은 2.6% 증가한 750만 톤, 중국은 2.4% 증가한 300만 톤, 서남아시아는 6.9% 증가한 1,738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표 9. 연도별 주요국의 밀 수입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11월	2012/13.12월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131.65	148.48	137.64	139.15	5.7	-6.3
브라질	6.70	7.31	7.00	7.50	11.9	2.6
중국	0.93	2.93	2.50	3.00	222.6	2.4
서남아시아	13.57	16.26	16.88	17.38	28.1	6.9
동남아시아	15.80	17.27	15.60	15.60	1.3	-9.7
북아프리카	24.18	24.66	22.10	22.10	-8.6	-10.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3, December 11, 2012.

■ 기말재고량

세계 밀 기말재고량은 1억 7,695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10.5%, 9.6% 감소할 전망이다. 미국, 인도,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즉,

러시아를 비롯한 흑해 연안 국가들과 호주, EU-27, 브라질의 기말재고량이 급감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경우 589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57.1%, 45.9% 감소할 전망이다. 카자흐스탄 및 우크라이나는 2011/12년 대비 각각 54.7%, 42.6% 감소한 289만 톤 및 296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호주의 경우 576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29.2%, 17.5% 감소할 전망이다. 그밖에 EU-27과 브라질 또한 기말재고량이 각각 1,000만 톤 및 143만 톤에 달하여, EU-27은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14.9%, 18.5% 감소할 전망이며, 브라질은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23.1%, 17.3%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인도, 아르헨티나의 기말재고량은 각각 2,051만 톤, 2,195만 톤, 77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1.5%, 10.0%, 1.3% 증가할 전망이다.

표 10. 연도별 주요국의 밀 기말재고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11월	2012/13.12월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197.77 (25.1)	195.77 (22.9)	174.18 (21.6)	176.95 (21.9)	-10.5	-9.6
미국	23.47 (35.7)	20.21 (33.3)	19.15 (28.9)	20.51 (31.6)	-12.6	1.5
아르헨티나	4.11 (26.6)	0.76 (4.0)	0.97 (8.4)	0.77 (6.7)	-81.3	1.3
호주	8.13 (33.2)	6.98 (22.4)	4.64 (20.1)	5.76 (24.7)	-29.2	-17.5
캐나다	7.18 (29.4)	5.88 (21.7)	5.63 (20.6)	5.63 (20.2)	-21.6	-4.3
EU-27	11.75 (8.1)	12.27 (8.5)	9.23 (6.5)	10.00 (7.1)	-14.9	-18.5
브라질	1.86 (13.9)	1.73 (13.1)	1.26 (10.1)	1.43 (11.3)	-23.1	-17.3
중국	59.09 (53.0)	55.95 (45.3)	55.45 (45.1)	55.55 (44.8)	-6.0	-0.7
인도	15.36 (18.8)	19.95 (24.2)	22.45 (24.6)	21.95 (23.9)	42.9	10.0
러시아	13.74 (32.3)	10.89 (18.3)	4.94 (11.1)	5.89 (13.2)	-57.1	-45.9
카자흐스탄	2.88 (26.0)	6.38 (33.2)	3.14 (22.4)	2.89 (20.6)	0.3	-54.7
우크라이나	3.34 (21.0)	5.16 (25.3)	2.96 (16.6)	2.96 (16.6)	11.4	-42.6

주: 괄호 안은 기말재고율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3, December 11, 2012.

3.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 생산량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8억 4,909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2.1% 증가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3.7% 감소할 전망이다. 2011/12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는 미국, 브라질, EU-27, 우크라이나이다. 미국은 13.2% 감소한 2억 7,243만 톤, 브라질은 4.1% 감소한 7,000만 톤, EU-27은 17.4% 감소한 5,467만 톤, 우크라이나는 10.2% 감소한 2,05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생육기간 동안 가뭄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브라질의 경우 역시 건조기후로 파종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EU 국가들의 작황 상태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멕시코, 캐나다 및 중국의 생산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31.0% 증가한 2,750만 톤, 남아프리카는 8.7% 증가한 1,350만 톤, 멕시코는 10.8% 증가한 2,070만 톤, 캐나다는 15.0% 증가한 1,306만 톤, 중국은 7.9% 증가한 2억 8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경우 주요 산지의 폭우로 인하여 파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피해 여부에 따라 생산량의 변동이 클 가능성도 있다.

표 11. 연도별 주요국의 옥수수 생산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11월	2012/13.12월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831.36	881.75	839.70	849.09	2.1	-3.7
미국	316.17	313.92	272.43	272.43	-13.8	-13.2
아르헨티나	25.20	21.00	28.00	27.50	9.1	31.0
브라질	57.40	73.00	70.00	70.00	22.0	-4.1
남아프리카	10.92	12.42	13.50	13.50	23.6	8.7
EU-27	56.17	66.17	54.65	54.67	-2.7	-17.4
멕시코	21.06	18.68	20.70	20.70	-1.7	10.8
캐나다	12.04	11.36	11.60	13.06	8.5	15.0
중국	177.25	192.78	200.00	208.00	17.3	7.9
우크라이나	11.92	22.84	21.00	20.50	72.0	-10.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3, December 11, 2012.

■ 소비량

세계 옥수수 소비량은 8억 6,252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1.5% 증가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1.7% 감소할 전망이다.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용 소비량의 경우 5억 1,474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2.7%, 1.5% 증가할 전망이다.

표 12. 연도별 주요국의 옥수수 소비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11월	2012/13.12월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849.58 (501.30)	877.77 (507.31)	853.79 (507.54)	862.52 (514.74)	1.5 (2.7)	-1.7 (1.5)
미국	285.01 (121.80)	279.01 (115.51)	254.44 (105.42)	254.44 (105.42)	-10.7 (-13.4)	-8.8 (-8.7)
아르헨티나	7.30 (5.30)	7.20 (5.10)	8.80 (6.00)	8.30 (5.50)	13.7 (3.8)	15.3 (7.8)
브라질	49.50 (42.50)	52.50 (45.00)	55.00 (47.00)	55.00 (47.00)	11.1 (10.6)	4.8 (4.4)
남아프리카	10.65 (4.95)	10.80 (5.00)	11.10 (5.10)	11.10 (5.10)	4.2 (3.0)	2.8 (2.0)
EU-27	62.90 (48.00)	67.30 (52.00)	63.00 (47.50)	64.50 (49.00)	2.5 (2.1)	-4.2 (-5.8)
멕시코	29.20 (13.40)	29.50 (13.50)	29.70 (13.50)	29.70 (13.50)	1.7 (0.7)	0.7 (0.0)
캐나다	11.75 (6.79)	11.67 (6.43)	11.40 (5.90)	12.00 (6.50)	2.1 (-4.3)	2.8 (1.1)
중국	180.00 (128.00)	188.00 (131.00)	201.00 (139.00)	209.00 (145.00)	16.1 (13.3)	11.2 (10.7)
우크라이나	6.50 (5.40)	7.80 (6.50)	8.50 (7.00)	8.00 (6.50)	23.1 (20.4)	2.6 (0.0)
이집트	12.50 (10.10)	11.70 (9.70)	12.20 (10.20)	12.20 (10.20)	-2.4 (1.0)	4.3 (5.2)
일본	15.70 (11.20)	14.90 (10.40)	15.00 (10.50)	15.00 (10.50)	-4.5 (-6.2)	0.7 (1.0)
한국	8.21 (6.07)	7.82 (5.69)	8.10 (6.00)	8.10 (6.00)	-1.3 (-1.2)	3.6 (5.4)

주: 괄호 안은 사료용 소비량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3, December 11, 2012.

세계 소비량 감소의 주요인은 미국의 소비량 감소에 기인한다. 특히 옥수수 가격 급등으로 미국 중서부 지역의 옥수수를 원료로 한 바이오에탄올 공장의 생산 마진 감소와 축산 사료비 상승 등의 여파로 인하여 미국의 소비량은 2억 5,444만 톤(사료용 1억 542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10.7%(사료용 13.4%), 8.8%(사료용 8.7%)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에탄올 공장의 생산 마진이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 에탄올용 소비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 향후 소비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U-27의 경우 6,450만 톤(사료용 4,900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2.5%(사료용 2.1%) 증가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4.2%(사료용 5.8%)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2011/12년 대비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 캐나다, 중국, 우크라이나, 이집트 등이며, 이 가운데 아르헨티나와 중국의 소비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는 830만 톤(사료용 55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15.3%(사료용 7.8%) 증가하고, 중국은 2억 900만 톤(사료용 1억 4,50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11.2%(사료용 10.7%) 증가할 전망이다. 그밖에 브라질은 4.8%(사료용 4.4%) 증가한 5,500만 톤, 남아프리카는 2.8%(사료용 2.0%) 증가한 1,110만 톤(사료용 510만 톤), 캐나다는 2.8%(사료용 1.1%) 증가한 1,200만 톤(사료용 650만 톤), 우크라이나는 2.6%(사료용 0.0%) 증가한 800만 톤(사료용 650만 톤), 이집트는 4.3%(사료용 5.2%) 증가한 1,220만 톤(사료용 1,02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 교역량

세계 옥수수 수출량은 9,125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0.2%, 19.0% 감소할 전망이다. 대부분 수출국들의 수출량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베이스스 가격 및 선물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수출량 감소가 두드러지는 바 수출량은 2,921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37.3%, 25.4%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1/12년 대비 브라질은 23.8% 감소한 1,600만 톤, 우크라이나는 17.5% 감소한 1,25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아르헨티나 및 남아프리카의 수출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2011/12년 대비 아르헨티나는 8.8% 증가한 1,850만 톤, 남아프리카는 25.0% 증가한 25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남미산 옥수수 가격이 미국산 옥수수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남미산 옥수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공급량의 한정으로 점차 미국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3. 연도별 주요국의 옥수수 수출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11월	2012/13.12월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91.46	112.61	90.30	91.25	-0.2	-19.0
미국	46.59	39.18	29.21	29.21	-37.3	-25.4
아르헨티나	16.35	17.00	18.50	18.50	13.1	8.8
브라질	8.40	21.00	16.00	16.00	90.5	-23.8
우크라이나	5.01	15.16	12.50	12.50	149.5	-17.5
남아프리카	2.45	2.00	2.50	2.50	2.0	25.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3, December 11, 2012.

세계 옥수수 수입량은 올해 9,532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3.2% 증가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3.5% 감소할 전망이다. 2011/12년 대비 이집트, 멕시코, 동남아시아, 중국의 수입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집트는 22.5% 감소한 550만 톤, 멕시코는 19.6% 감소한 900만 톤, 동남아시아는 5.9% 감소한 610만 톤, 중국은 61.8% 감소한 2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EU-27은 27.0% 증가한 800만 톤, 일본은 0.7% 증가한 1,500만 톤, 한국은 4.7% 증가한 8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표 14. 연도별 주요국의 옥수수 수입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11월	2012/13.12월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92.37	98.82	93.75	95.32	3.2	-3.5
이집트	5.80	7.10	5.50	5.50	-5.2	-22.5
EU-27	7.44	6.30	6.50	8.00	7.5	27.0
일본	15.65	14.89	15.00	15.00	-4.2	0.7
멕시코	8.25	11.20	9.00	9.00	9.1	-19.6
동남아시아	7.80	6.48	6.00	6.10	-21.8	-5.9
한국	8.11	7.64	8.00	8.00	-1.4	4.7
중국	0.98	5.23	2.00	2.00	104.1	-61.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3, December 11, 2012.

■ 기말재고량

세계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1억 1,761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7.4%, 10.2% 감소할 전망이다. 2011/12년 대비 미국을 비롯한 브라질, 남아프리카, EU-27, 멕시코의 기말재고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 34.6% 감소한 1,642만 톤, 브라질 1.9% 감소한 1,038만 톤, 남아프리카 2.3% 감소한 299만 톤, EU-27 34.3% 감소한 447만 톤, 멕시코 6.7% 감소한 139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아르헨티나 75.5% 증가한 165만 톤, 캐나다 4.4% 증가한 141만 톤, 중국 1.3% 증가한 6,014만 톤, 우크라이나 4.8% 증가한 11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표 15. 연도별 주요국의 옥수수 기말재고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11월	2012/13,12월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127.06 (13.5)	131.04 (13.2)	117.99 (12.5)	117.61 (12.3)	-7.4	-10.2
미국	28.64 (8.6)	25.11 (7.9)	16.42 (5.8)	16.42 (5.8)	-42.7	-34.6
아르헨티나	4.13 (17.5)	0.94 (3.9)	2.15 (7.9)	1.65 (6.2)	-60.0	75.5
브라질	10.28 (17.8)	10.58 (14.4)	10.38 (14.6)	10.38 (14.6)	1.0	-1.9
남아프리카	3.42 (26.1)	3.06 (23.9)	2.87 (21.1)	2.99 (22.0)	-12.6	-2.3
EU-27	4.83 (7.5)	6.80 (9.6)	4.45 (7.0)	4.47 (6.9)	-7.5	-34.3
멕시코	1.41 (4.8)	1.49 (5.0)	1.39 (4.7)	1.39 (4.7)	-1.4	-6.7
캐나다	1.28 (9.5)	1.35 (11.1)	1.05 (8.5)	1.41 (10.4)	10.2	4.4
중국	49.42 (27.4)	59.34 (31.5)	60.14 (29.9)	60.14 (28.7)	21.7	1.3
우크라이나	1.12 (9.7)	1.05 (4.6)	1.26 (6.0)	1.10 (5.4)	-1.8	4.8

주: 괄호 안은 기말재고율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3, December 11, 2012.

4.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 생산량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6,772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1.6%, 11.7%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의 파종면적 증가와 작황지역의 날씨 양호로 인하여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브라질의 경우 올해 8,10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2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르헨티나의 경우 올해 5,50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34.1%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파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향후 기상 이변으로 생산량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반면 최대 생산국인 미국의 경우 주산지인 중서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올해 8,086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4.0% 감소할 전망임에 따라 세계 대두 생산량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1,26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13.0% 감소할 전망이다.

표 16. 연도별 주요국의 대두 생산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11월	2012/13,12월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263.59	239.63	267.60	267.72	1.6	11.7
미국	90.61	84.19	80.86	80.86	-10.8	-4.0
아르헨티나	49.00	41.00	55.00	55.00	12.2	34.1
브라질	75.30	66.50	81.00	81.00	7.6	21.8
중국	15.10	14.48	12.60	12.60	-16.6	-13.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3, December 11, 2012.

■ 소비량

세계 대두 소비량은 2억 6,125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3.7%, 2.0% 증가할 전망이다. 착유용 소비량도 2억 3,114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4.4%, 1.9%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2011/12년 대비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곳은 아르헨티나와 중국이며, 아르헨티나의 경우 6.3%(착유용 6.5%) 증가한 3,985만 톤(착유용 3,820만 톤), 중국의 경우 6.3%(착유용 7.3%) 증가한 7,658만 톤(착유용 6,54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2011/12년 대비 미국, EU-27, 일본의 소비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은 6.0%(착유용 7.8%) 감소한 4,588만 톤(착유용 4,273만 톤), EU-27은 4.2%(착유용 4.1%) 감소한 1,255만 톤(착유용 1,165만 톤), 일본은 5.7%(착유용 8.2%) 감소한 283만 톤(착유용 18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표 17. 연도별 주요국의 대두 소비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11월	2012/13.12월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251.96 (221.34)	256.18 (226.82)	261.03 (231.14)	261.25 (231.14)	3.7 (4.4)	2.0 (1.9)
미국	48.40 (44.85)	48.81 (46.35)	45.61 (42.46)	45.88 (42.73)	-5.2 (-4.7)	-6.0 (-7.8)
아르헨티나	39.21 (37.61)	37.50 (35.88)	40.35 (38.70)	39.85 (38.20)	1.6 (1.6)	6.3 (6.5)
브라질	39.33 (36.33)	40.04 (36.94)	39.99 (36.90)	40.10 (36.90)	2.0 (1.6)	0.1 (-0.1)
중국	65.95 (55.00)	72.07 (60.97)	76.58 (65.40)	76.58 (65.40)	16.1 (18.9)	6.3 (7.3)
EU-27	13.46 (12.27)	13.10 (12.15)	12.25 (11.35)	12.55 (11.65)	-6.8 (-5.1)	-4.2 (-4.1)
일본	3.21 (2.15)	3.00 (1.96)	2.83 (1.80)	2.83 (1.80)	-11.8 (-16.3)	-5.7 (-8.2)

주: 괄호 안은 착유용 소비량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3, December 11, 2012.

■ 교역량

세계 대두 수출량은 9,885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8.5%, 9.3%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이 올해 1,20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62.8%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브라질은 3,74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3.0%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3,661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1.2% 감소할 전망이다.

표 18. 연도별 주요국의 대두 수출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11월	2012/13.12월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91.12	90.43	98.55	98.85	8.5	9.3
미국	40.85	37.06	36.61	36.61	-10.4	-1.2
아르헨티나	9.21	7.37	12.00	12.00	30.3	62.8
브라질	29.95	36.32	37.40	37.40	24.9	3.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3, December 11, 2012.

세계 대두 수입량은 9,631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8.5%, 3.5%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의 경우 올해 북부 평야 지대의 극심한 가뭄과 남부 지역의 집중 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로 인하여 대두 수입량은 6,30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6.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EU-27, 일본, 멕시코의 수입량은 줄어들 전망이다 바, EU-27은 4.3% 감소한 1,130만 톤, 일본은 5.8% 감소한 260만 톤, 멕시코는 1.5% 감소한 335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표 19. 연도별 주요국의 대두 수입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11월	2012/13.12월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88.80	93.06	96.01	96.31	8.5	3.5
중국	52.34	59.23	63.00	63.00	20.4	6.4
EU-27	12.48	11.81	11.00	11.30	-9.5	-4.3
일본	2.92	2.76	2.60	2.60	-11.0	-5.8
멕시코	3.50	3.40	3.35	3.35	-4.3	-1.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3, December 11, 2012.

■ 기말재고량

세계 대두 기말재고량은 5,993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14.3% 감소할 전망임에 반해, 2011/12년 대비 7.0%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기말재고량은 2011/12년 대비 각각 16.6%, 28.9% 증가한 2,215만 톤, 1,672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중국의 기말재고량은 2011/12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은 23.4% 감소한 353만 톤, 중국은 7.7% 감소한 1,469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표 20. 연도별 주요국의 대두 기말재고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11월	2012/13,12월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69.93 (20.4)	56.00 (16.2)	60.02 (16.7)	59.93 (16.6)	-14.3	7.0
미국	5.85 (6.6)	4.61 (5.4)	3.80 (4.6)	3.53 (4.3)	-39.7	-23.4
아르헨티나	22.87 (47.2)	19.00 (42.3)	21.65 (41.4)	22.15 (42.7)	-3.1	16.6
브라질	22.69 (32.8)	12.97 (17.0)	17.17 (22.2)	16.72 (21.6)	-26.3	28.9
중국	14.56 (22.0)	15.92 (22.0)	14.69 (19.1)	14.69 (19.1)	0.9	-7.7

주: 괄호 안은 기말재고율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3, December 11, 2012.

세계 곡물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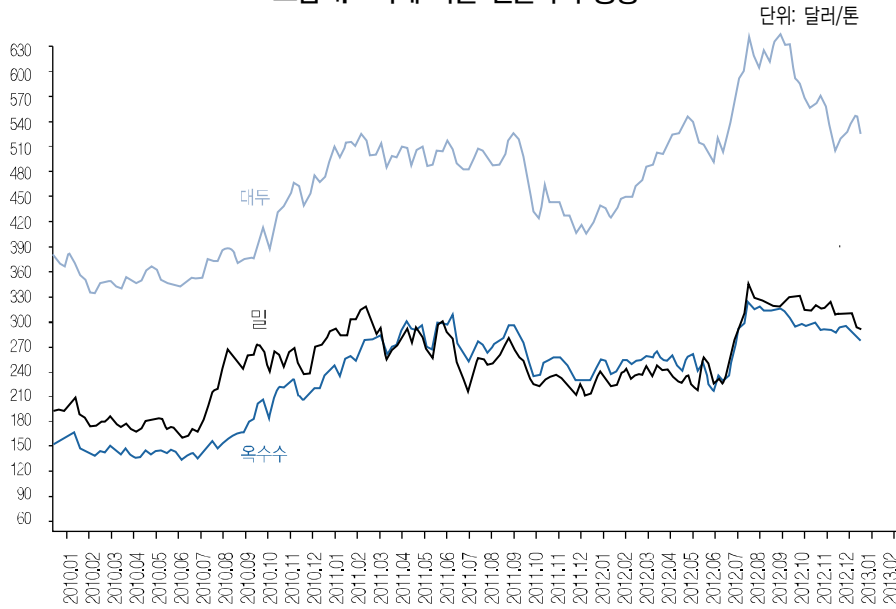
2013년 상반기 대두와 옥수수 가격은 미산 수확 물량에 따른 공급 우려 해소와 남미 국가들의 파종면적 및 생산량 증가 전망에 따른 공급 여건 개선 기대감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글로벌 재고 수준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기본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한 하방 경직성이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상반기 남미의 수확이 지연되거나 예상에 못 미치는 생산량이 나올 경우, 내년도 미국의 가뭄 상황이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가격 급등세가 연출될 시나리오도 예상된다. 한편 흑해, 호주,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에 대한 불확실성과 수출제한조치 우려는 한동안 밀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1월 평균 옥수수, 대두 선물가격은 각각 톤당 291달러, 533달러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상승흐름을 보였다. 이는 지난 2011년 11월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각각 18%, 24.3% 상승한 것이다. 또한 2012년 11월 평균 밀 가격 역시 톤당 316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무려 40.7% 상승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 가격은 지난 7월 중순 고점 경신 이후 횡보장세를 이어나가는 양상이며, 시장에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한 남미 국가들의 대두, 옥수수 파종 진행 및 생산량 전망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

미국의 대두와 옥수수 수확은 공급 압박에 대한 시장 우려를 완화시키며 마무리 되었고, 남미의 파종 면적 및 생산량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에 힘이 실린다. 흑해, 호주, 아르헨티나 밀 생산량에 대한 불확실성과 수출 제한 조치 우려는 한동안 밀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미산 대두와 옥수수가 수확되기 전까지 대두와 옥수수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할 것이며 이는 가격 흐름에 하방 경직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대두와 옥수수가 수확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재고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자국 수요를 고려했을 때, 브라질의 대두 재고량은 이미 부족해 수출량이 급감하는 추세이다.

* 작성: (주)외환선물 한성민 차장(sun@kebf.com)

그림 1. 국제 곡물 선물가격 동향



1. 밀 가격 동향

밀 가격은 밀 선물가격은 흑해 지역과 미국, 호주 등 주요 생산국들의 생산량에 대한 불확실성과 러시아의 수출 제한 조치 우려 등이 여전히 가격 지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물량 유입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하락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USDA 수급보고서 발표였다. 지난 12월 USDA의 수급보고서에서 미산 밀 생산량은 전월과 동일한 22억 6,900만 부셸로 나타났으며 미산 밀 수출량은 지난 달 11억 부셸보다 감소한 10억 5,000만 부셸로, 기말재고량은 7억 5,400만 부셸로 전월대비 5,000만 부셸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하락세를 지지해주었다.

더불어 당초 시장에서는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월과 동일한 1,150만 톤으로 발표되었으며, 호주의 밀 생산량 역시 시장 전망치와 부합하는 2,200만 톤을 기록하며 오히려 전월대비 100만 톤 상향 조정되어 발표됨에 따라 발표치에 대한 실망매물이 최근 하락세의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호주 밀의 기말재고량 역시 576만 톤으로 전월 464만 톤보다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세계 밀 생산량은 6억 5,511만 톤으로 전월 6억 5,143만 톤 보다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밀 기말재고량은 1억 7,695만 톤으로 전월 1억 7,418만 톤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산 밀의 수출량이 하향 조정된 반면 호주와 유럽 등의 국가들의 수출량이 증가하였다며 여전히 미산 밀 수출 수요는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주요 경작지의 기온은 -7.6도까지 하강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는 최소 20cm~최대 53cm의 눈이 내린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로 인한 crop 피해는 미약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Agriculture Ministry data에 따르면 12월 중순까지 winter crops의 condition은 90% 이상 양호하거나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발표된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2012년도)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으며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이번시즌 겨울밀 파종 면적은 전년대비 약 2.5%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브에콘(SovEcon)은 러시아의 12/13년도 곡물 수출량이 내수가격 상승과 내년 봄 수입량 증가 전망 영향으로 12월 말까지 1,330만 톤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세계 3위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이번시즌 고온 건조한 날씨 영향으로 밀 수확량이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밀 내수 가격에 역대 최고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2월 들어 현재까지 곡물 선적량 규모는 90~100만 톤 수준으로 전월(11월) 166만 톤, 10월 241만 톤과 비교하여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12월 밀 예상 선적량 규모 역시 50~55만 톤 수준, 내년 1월 예상 선적량 규모는 35~40만 톤 수준으로 지난 11월 97.8만 톤에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주 미국 일리노이주 남부와 인디애나주, 캔터키주에는 약 1~2인치의 비가 내린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미국 남동부 역시 일정 수준의 비가 내리면서 토양 수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밀 비상업거래(투기거래) 현황

단위: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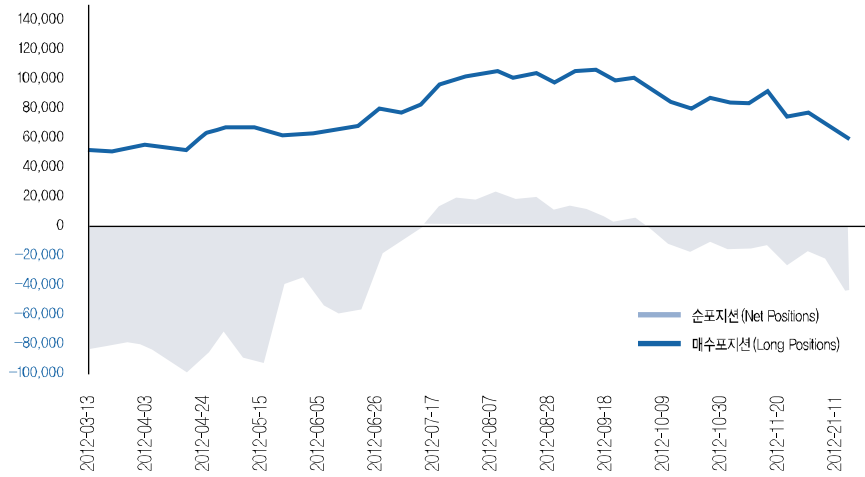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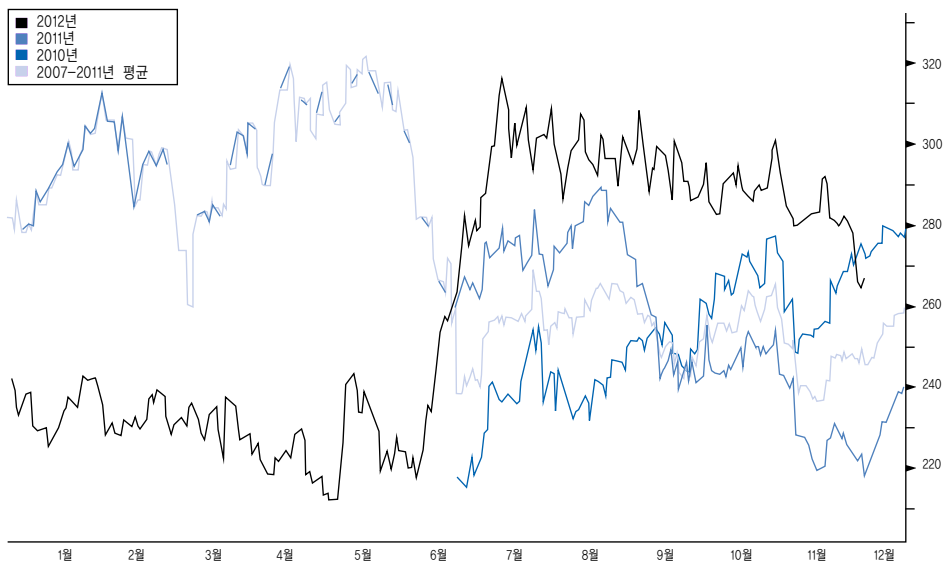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밀 선물가격 추이



2. 옥수수 가격 동향

옥수수 선물가격은 2012년 4분기로 접어들면서 추가적인 상승 재료 부재 속에 혼조 양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11일 발표된 USDA의 수급보고서에서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107억 2,500만 부셸로 전월과 동일한 수치로 발표되었으며 기말재고량 역시 6억 4700만 부셸로 발표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최근 미국의 옥수수 수출 부진으로 인해 미국의 옥수수 수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USDA는 전월과 동일한 11억 5,000만 부셸로 발표하였다. 12/13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는 8억 4,909만 톤으로 지난달 8억 3,970만 톤 보다 증가하였으며 세계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지난달 1억 1,799만 톤에서 1억 1,761만 톤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의 전망치인 1억 1,800만 톤보다 하회한 것으로 발표되는 등 여전히 공급 측면에서의 우려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관심을 모았던 남미 국가들의 생산량 전망치를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의 경우 12/13년도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는 전월 2,800만 톤에서 2,750만 톤으로 하향 조정되어 발표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말재고량 역시 전월 215만 톤에서 하향 조정된 165만 톤을 기록하였다. 반면 브라질의 12/13년도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는 전월과 동일한 7,000만 톤으로 발표되었다. 현재 남미 국가들의 옥수수 생산량 보다는 파종면적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대두 생산량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나 남미산 옥수수 생산량 또한 과거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하락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미산 옥수수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부진한 수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수입 수요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최근 가격 하락 조정 이후 미산 옥수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점은 단기적인 수요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에탄올 생산용 옥수수 수요는 옥수수 가격에 긍정적이지는 못할 전망이다. 에탄올의 정제 마진이 하락하면서 에탄올 생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데다 가솔린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에탄올-가솔린 스프레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최근 발표된 12월 1일에서 12월 7일까지의 하루 평균 에탄올 생산량은 82.4만 배럴을 기록하면서 전주대비 1.32%,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2.15%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12월 7일까지 총 에탄올 생산량은 576.8만 배럴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17.41%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지난주 에탄올 생산에 사용된 옥수수 사용량은 8,652만 부셸을 기록하면서 전주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옥수수 비상업거래(투기거래) 현황

단위: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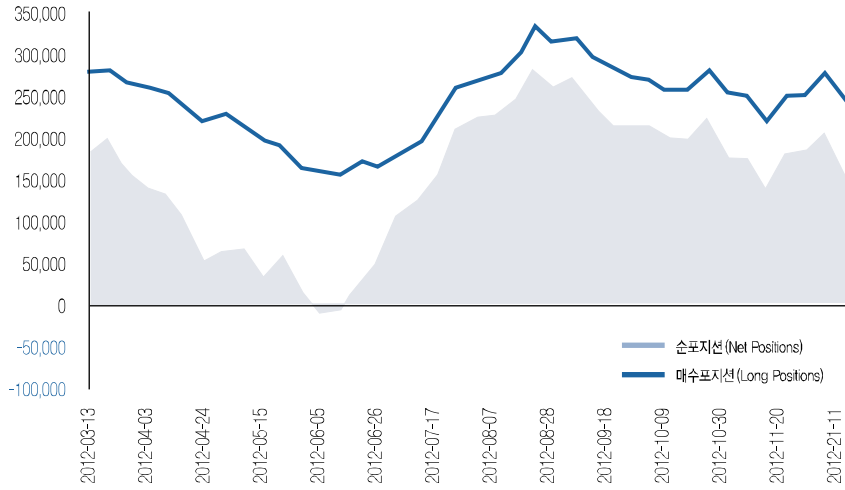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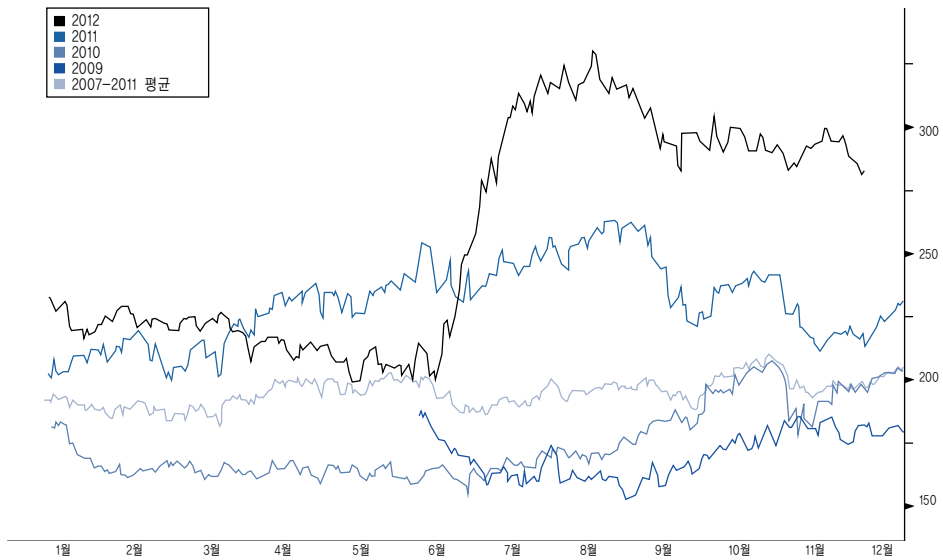


그림 5. 연도별 옥수수 선물가격 추이



3. 대두 가격 동향

대두 선물가격은 3분기 들어 미국 대두 작황 부진에 따른 급등세를 보인 이후 조정 차원의 차익실현 물량 유입으로 11월 중순까지 하락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의 미산 대두 수요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중국의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경기 개선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반등 시도에 나서는 모습이다. 12월 USDA의 수급보고서에서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6,772만 톤으로 지난 달 2억 6,760만 톤 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대두 기말재고량은 5,993만 톤으로 지난 달 6,002만 톤 보다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미산 대두 생산량은 전월과 동일한 29억 7,100만 부셸로 나타났으며 최근 중국의 미산 대두 구매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면서 미산 대두 기말재고량은 전월보다 하향 조정된 1억 3,000만 부셸로 발표되었다.

남미 국가들의 생산량 전망치를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은 시장의 전망에 부합하는 5,500만 톤으로 발표된 반면 기말재고량은 2,215만 톤으로 전월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아르헨티나의 옥수수과 대두 파종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폭우로 인해 옥수수 파종 지연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옥수수 파종 대신 대두 파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향후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 전망치는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2/13년도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 전망치는 전월과 동일한 8,100만 톤으로 나타났으며 기말재고량은 지난달 1,717만 톤에서 1,672만 톤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최근 브라질 주요 대두 생산지역에 내린 비의 영향으로 당초 시장 전망치보다 생산량 전망치가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남부 지역은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으나 11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월 전망치보다 약 30만 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브라질 대두 파종 진행율은 약 98% 완료되면서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gRural의 브라질 대두 생산량 전망치는 8,220만 톤이었으며, 브라질 대두 단수 전망치는 예년 평균보다 상회한 ha당 49.1(60-kilogram sacks)로 예측한 바 있다. 최대 대두 생산지역인 Mato Grosso 지방과 제 2위 생산지역인 Parana 지방은 11월 한달동안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 상황이 유지되었으나 12월에는 이미 한달 평균 강우량의 약 60% 가량의 비가 내렸으며, 12월 말까지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crop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토양 수분율은 밭아 및 성장에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1월 말까지 날씨 변수에 따른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대두 비상업거래(투기거래) 현황

단위: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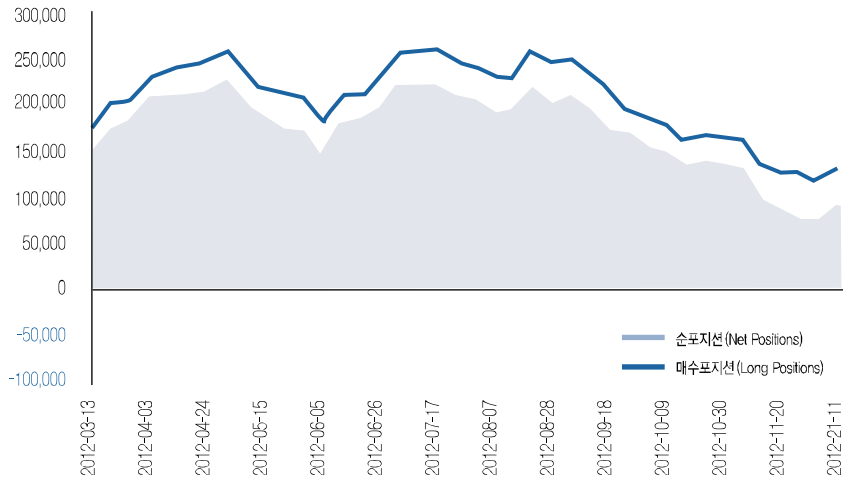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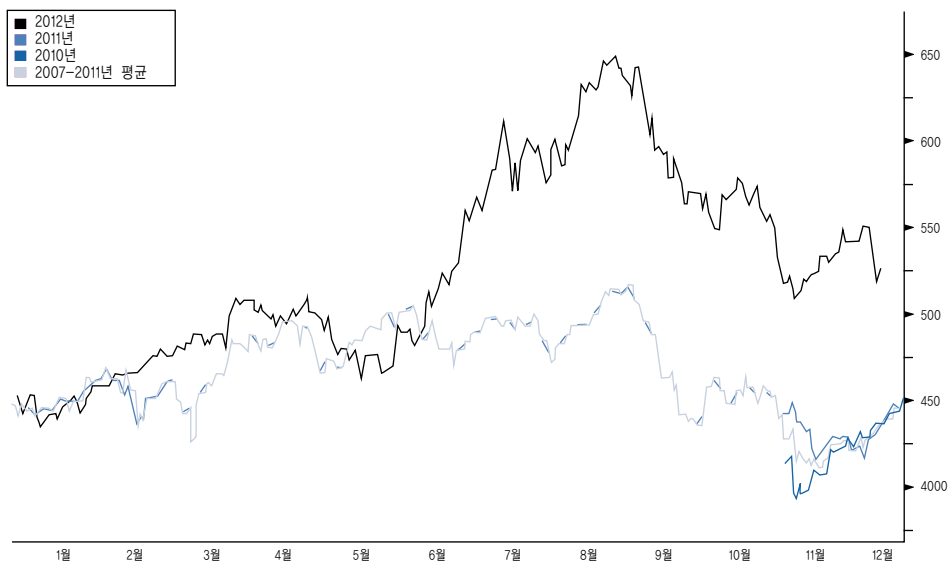


그림 7. 연도별 대두 선물가격 추이



곡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

글로벌 경기 회복을 이끌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부진한 펀더멘털에 근거한 상품가격 조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선진국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금융완화 이후 생성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가 점차 후퇴하고 있으며 스페인과 그리스를 둘러싼 유로권 재정 위기 우려로 달러 가치가 회복된 것도 상품 가격의 약세에 일조할 전망이다. 미국 대선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으로 의회 권력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재정절벽 협상 난항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매크로 요인의 영향보다는 곡물 가격에 대한 펀더멘털의 영향력이 다소 확대되는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추가 랠리를 이끌만한 재료 부재 속에 완만한 하락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상 여건은 작황 호조 여부의 주요한 결정요소로 남미 국가들의 날씨 및 생산 전망에 따른 민감도 확대가 예상되며, 펀더멘털 강세에 따른 밀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전망된다.

1. 원유시장 동향

최근 국제유가(WTI유 기준)는 주요 지지선이었던 배럴당 90달러대를 하회하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 정책 기조에 의한 유동성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재정절벽 리스크와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 등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 연준의 3차 양적완화 정책 확대와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 완화 등의 영향으로 배럴당 80달러 중반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배럴당 94달러 수준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선진국의 원유 수요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등 개도국들의 원유 수요 증가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석유 수요는 1% 미만 증가에 그치는 반면 공급은 비OPEC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 석유공급 능력이 내년엔 2.3%(210만 b/d)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증가분 중에서 비OPEC이 60%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의 석유생산도 점차 정상화될 전

* 작성: (주)외환선물 한성민 차장(sun@kebf.com)

망이다.

다만 OPEC국은 고유가를 유지하기 위해 유가 하락시 감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복지재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집트 및 튀니지 소요로 인해 야기된 리비아, 예멘, 바레인, 시리아 불안정은 산유지역인 중동지역 전체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켜 원유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유가격 상승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리비아 사태가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이는 리비아의 생산 중단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리비아 사태가 여타 국가, 특히 주요 원유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급효과를 미쳐 OPEC의 원유 공급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바레인 인종 문제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영향을 미친다면 대규모 혼란이 야기되면서 국제 유가 폭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내년에 소폭인 13만 b/d 규모의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란과 선진국 간의 핵 관련 갈등이 무력 충돌 혹은 전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 수준(1,700만 b/d)을 담당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문제로 불거지지 않는다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급등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우디의 증산과 더불어 내년도 러시아와 미국 등 Non-OPEC 생산량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아 전반적으로 2013년 수급 여건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제유가(WTI유 기준)는 배럴당 88달러대에 머물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연평균은 배럴당 95달러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내 국제유가가 현 수준대비 10% 이상의 급락세를 시현하지 않는다면 2011년 국제유가 수준(연평균 배럴당 95달러)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의 국제유가 수준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처럼 글로벌 경기를 위축시킬 만큼 높진 않으나, 미국 경기의 더딘 회복세와 중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여부, 유로존 경기 침체 국면 등 세계 경제성장률이 3%대 수준의 저성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유가는 고유가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10월)에 따르면 2013년 세계경제성장률은 3.6%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의 고유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수급 펀더멘탈 측면을 살펴보면 2013년 세계 석유 수급 상황은 2012년에 비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OECD 국가들의 석유 수요는 경기 펀더멘탈 부진으로 인해 여전히 회복 속도가 더디게 진행 중에 있으며, 실제로 OECD 국가들의 석유 수요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최근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이는 기저효과에 기인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증가폭이 다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계 석유 수요 비중이 높은 미국(약 25%)과

유로존(약 14.5%)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더딘 경기 회복세로 인해 석유 수요 개선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IA(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2013년도 세계 석유 수요는 전년 대비 약 80만 b/d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증가폭의 절반 이상을 중국의 석유 수요 증대가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총 세계 석유 수요 중 중국의 석유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은 12%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내수와 수출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인해 중국의 3/4분기 GDP 성장률이 7.4%를 기록하는 등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내 석유 수요 역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실물 경제지표 반등세에 힘입어 3/4분기 경기 저점 형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안정적인 지도부 교체 이후 사회 안정을 위한 경기 부양 기조 등에 힘입어 완만한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의 석유 수요는 내년에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우선 미국 대선 이후 오바마 정부의 연임으로 인해 미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럽중앙은행 역시 재정위기 우려 뿐 아니라 경기 둔화세를 방어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가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처럼 극에 치닫지 않는 이상 달러화가 제한적인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특히 미국의 12월 FOMC회의에서 연준은 12월 말로 종료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해 내년 초부터 매달 45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국채를 추가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실업률이 6.5% 이하로, 1~2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2.5% 이상으로 가지 않는 한 현재의 초저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동시에 밝힌 바 있다. 이미 연준의 3차 양적완화 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보다 국채 매입 시행으로 인해 유동성 효과가 이전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달러화 약세와 주요국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유동성 효과는 원유 선물시장에 투기자금 유입에 일조하며 유가의 상승 압력을 완만하게 높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외환시장 동향

■ 세계 경제의 낮은 성장률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성장률은 2012년 3.3%에서 2013년 3.6%로 소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00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평균 4.2%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성장률이다. IMF는 유럽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유럽 차원의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과 미국의 재정절벽 방지를 전망의 전제로 제시하고 만일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성장의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장 최근 경제전망보고서(11월)를 발간한 OECD는 지난 5월보다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금년 2.9%, 내년 3.4%로 제시했다. OECD는 세계경제가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로 여전히 약한 회복세에 있으며 국가별로도 상이한 회복을 보일 것이라는 점을 전망 하향 조정의 근거로 내세웠다.

2013년 세계경제가 빠른 회복을 보이기는 어렵지만 전년대비 경제성장률이 소폭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는 그동안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책 시행 효과와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제가 밑바탕에 있다. 미국, 유로,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정책의 시행으로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은 시차를 두고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며 유럽 재정위기 우려 완화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는 세계교역량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IMF와 OECD는 2012년과 2013년 세계교역량 증가율이 각각 3.2%에서 4.5%, 2.8%에서 4.7%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내년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2003~07년 기간 동안의 평균 8% 증가율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편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세계 경기부진으로 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안정되고 선진국 등 대부분 국가들의 총수요 압력이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고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인한 유가 급등 등 공급충격을 배제하면 당장 내년 인플레이션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IMF 등 주요 세계전망 기관들은 201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대비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MF는 선진국의 경우 올해 1.9%에서 내년 1.6%, 신흥국의 경우 6.1%에서 5.8%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았다. 다만 내년 하반기 이후로는 세계경제의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원유 및 원자재 수요가 증

대되고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의 재정절벽

유럽 재정위기와 함께 내년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만약 내년에 미국의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도 경기회복세가 꺾이고 경기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세금 인하,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부양책을 펼쳐온 결과 재정적자 누적과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구체적 실천 계획을 수립했으며 당장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미국 재정건전화의 기본 방향은 2012년 기준 GDP대비 7%인 재정적자 비율을 관리 가능한 3%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4조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이 요구된다. 문제는 현 법률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에만 재정수입증가와 재정지출 삭감1을 합해 GDP 대비 약 4.0%에 달하는 6,070억 달러의 재정적자 축소가 가져올 경제적 충격이다. 미 의회예산처는 재정절벽으로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0.5%, 실업률은 9.1%까지 상승해 다시 경기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미국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질 경우 이는 세계 여타 국가들에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확대와 세계교역량 위축 등 실물경제 경로를 통해 상당한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미국 정치권이 재정절벽의 현실화를 방지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미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간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두고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정적 경제충격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3. 주요국 경기 동향

최근 미 FOMC 정례회의에서 연말에 종료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후 월

450억 달러 규모의 장기국채 매입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해 실제적으로 QE4에 대한 발표가 있었지만 시장의 관심이 미 재정절벽 협상에 모아지면서 큰 위력은 발휘하지 못했다. 미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적 역학 구조상 2013년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재정 감축의 대안 마련을 위한 정치적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치는 재정절벽 대안 도출 및 부채한도 상향 합의 실패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고 있으며 무디스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으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2012년 세계경제는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으로 뚜렷한 둔화추세를 보였다. 향후 세계경제의 긍정적 측면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구조적 문제점들이 부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가계부채도 상당부분 조정되면서 가계 소비여력이 회복되고 있다. 중국도 주택경기가 반등하면서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정부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적자축소는 2013년에도 지속되면서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선진국들은 2013년 세계GDP의 0.5% 규모의 재정적자를 줄어나갈 것으로 추정된다. 유로존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급박한 유동성 위기는 줄었지만 위기국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화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에 따라 신뢰위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가운데 유럽과 일본의 부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엔화와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소폭 약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활력을 높이기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통화완화 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 확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

미국 경제에서 가장 주목할 현안은 재정절벽 협상 여부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양당간 합의도출 과정이 예상대로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된 가운데 현재로서는 미 대선 이후 연내에 민주-공화 양당간 합의도출에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단기적으로 급격한 재정적 충격을 방지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국가부채를 줄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양당간 세금 인상, 정부 지출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하고 급격한 긴축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침체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반면, 미국의 재정 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국가신용등급의 하향조정,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주택가격이 반등하면서 판매와

주택건설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미연준의 양적완화 재개로 주택담보부증권(MBS) 매입이 늘면서 모기지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주택재고가 줄어들면서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주택 재고가 2001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낮아져 공급부족으로 주택매매가 제약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향후 부족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규착공과 건축허가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건설경기의 회복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여건도 개선되고 있다. 부채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가계는 최근 저축을 줄이고 다시 소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자산가격 상승은 내구재 소비 회복과 소비심리의 호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투자와 소비의 증가가 고용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기업투자는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 3분기 중 미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데다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향후 소비가 개선되고 유럽재정위기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기업투자도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누적되었던 기업수익을 감안할 때 2013년 초반 재정절벽 우려가 해소될 경우 기업이 투자를 늘릴 여지는 충분할 것이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적자축소 노력이 강화되는 점은 미국경기의 본격적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은 국가부채가 GDP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부채확대가 지속될 경우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산통제법에 따른 2013년 미국 재정적자 축소 규모는 6,000억 달러로 GDP의 4%에 달해 한꺼번에 시행될 경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재정절벽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재정절벽에 수반되는 충격이 크다는 것을 민주당·공화 양당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 1분기 말까지는 적자규모를 적정선에서 줄이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유럽

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에 최근 희망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 유럽중앙은행(ECB)이 재정취약국에 대한 무제한의 단기국채 매입(OMT)을 공언한 이후,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수익률이 비교적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난항 끝에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재개와 그리스의 과다채무 감축 방안들이 거론되면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도 당분간 수그러들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의 경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상반기 중 7.1%를 기록 중이다. 여전히

남유럽 국가들 중에서 최대 적자국의 위치에 있지만, 최대 적자이던 시기에 비한다면 경상수지 개선 폭은 GDP 대비 7.9%포인트에 달한다. 그리스에 버금갈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던 포르투갈은 상반기 중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3.5%로 줄어들었다. 개선 폭은 위기 국가들 중에서 가장 큰 9.1%포인트이다.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에 비해 덜 하지만 스페인 역시 비교적 큰 폭으로 경상수지가 개선을 보이면서 상반기 적자 규모는 GDP 대비 3.5%를 기록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이탈리아는 상반기 중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1.9%에 불과하다.

한편 ECB는 무제한 국채매입 정책인 OMT 공표를 통해 재정위기국 지원을 위한 시장 개입 의지를 확인시켰으며, EFSF 후속기구로 상설화된 ESM은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도입되어 유로존 방화벽을 강화시켰다. 은행연합 설립을 포함하는 유로존 개혁안 마련도 가속화되고 있다. 단, 이러한 조치들이 활용되기까지는 많은 난제가 있고, 스페인 구제금융 시기는 아직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으며, 그리스의 중장기 채무 전망도 밝지 않다. ESM의 가용 규모를 늘릴 경우 이미 전체 자본금 중 27%를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 독일의 부담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9월 독일 현재의 ESM 합헌 판결은 향후 ESM 관련 결정의 정치적 제약 요건을 강화한 것이므로, 향후 독일의 부담액 확대가 불가피하게 될 경우 의회 승인의 법률적 hurdle이 더 높아진 상태이다.

유로존은 재정적자 축소로 정부부문에서의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출 연체율 상승 및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유럽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시 대출태도 강화로 이어져 경제 주체의 자금 조달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소비 및 투자 여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수요위축은 역내교역의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남유럽 국가에서 전체 유로존 국가로 경기둔화 추세가 확산될 전망이다. 독일 등 건전한 국가도 내년에 1%를 밑도는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유로존은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

개도국 중에서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중 대유럽수출이 급락하면서 경기가 빠르게 둔화된 바 있으나 하반기 들어서면서 성장활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전기대비 성장률은 1분기 1.5%에서 3분기 2.2%로 상승했다. 주택경기가 회복되면서 부동산관련 투자가 늘어나고 정부의 인프라투자도 지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부양책이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측면이다. 향후 세계교역이 다소 회복되면서 중국은 아시아 지역과의 교역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인하도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중국경제가 과거와 같이 9%대의 높은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장기적으로 소비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중국의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근로자들의 구매력도 단기간내 크게 높아지기 어려워 소비가 성장을 이끌어가는 힘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소득 대비 과도하게 높은 주택가격을 고려할 때 주택가격이 빠른 상승세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이 빈부격차를 늘리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격상승이 과도할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과잉투자 우려가 큰 상황이며 설비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자가 크게 호전되기 어렵다.

시진핑 정부는 성장보다는 소득분배에 중점을 두면서 임금상승을 용인하고 내부적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새 정부는 부동산 거품이나 지방정부의 부채문제 등을 고려할 때 부양을 통해 성장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장기적인 안정 성장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급격한 경제성장 둔화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내륙지역의 인프라 투자 등을 꾸준히 지속하면서 8% 내외의 성장을 유지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part

02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2012 World Grain Market



2013년 세계 경제 전망 / 47

2013년 외환시장 전망 / 58

2013년 국제 원유시장 전망 / 80

2013년 국제 곡물가격 전망 / 88

2013년 세계 경제 전망

금융위기와 재정위기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었다. 재정위기로 정책수단이 제한되고, 신흥국의 성장동력도 약화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세계 경제는 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2013년에도 세계 경제는 미약한 회복세가 나타나며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재정절벽을 피하더라도 재정 감축은 불가피하여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적완화의 효과보다 재정 감축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유로존의 경우 위기 대응을 위해 ESM 설립 등 방화벽 구축에 진전을 보였으나 재정위기와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다. 중국은 바오빠(保八)를 지키지 못하겠지만 5세대 지도부의 적극적인 내수 주도 성장정책으로 경착륙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1. 세계 경제

■ 성장력이 저하된 세계 경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신청 이후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4년이 지났다. 금융위기로 2009년 침체되었던 세계 경제는 2010년 하반기 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금융위기 직후 G20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조체계가 작동했고, 각국이 확장적 재정 및 금융 정책을 사용하여 경기 부양을 도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 하반기부터는 재정상황이 부실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상황에 처하면서 더 이상 재정 수단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미국도 국가채무가 GDP대비 100%에 육박하면서 재정 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금리를 인하하여 현재 제로금리 또는 초저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인하하는 확장적 금융정책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금리 인하가 제약이 되자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형태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정책만이 사용가능한 경기부양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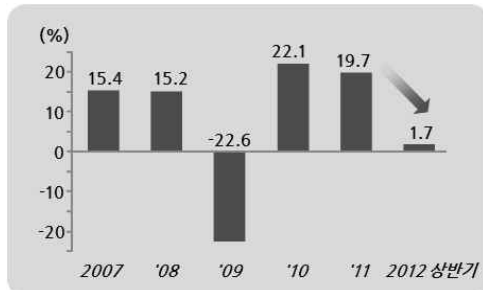
* 작성: 삼성경제연구소 김화년 박사(hnkim@seri.org)

이다. 그러나 양적완화가 연이어 시행되면서 그 효과는 점차 반감되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 직후 신흥국의 성장세는 크게 위축되지 않아서 신흥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재정위기가 연이 으면서 신흥국의 성장동력도 크게 훼손되었다. 대부분의 신흥국 경제에서 선진국으로 의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선진국의 재정위기 지속으로 인해 신흥국 수출도 큰 충격을 받았다. 내수 기반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흥국의 내수는 열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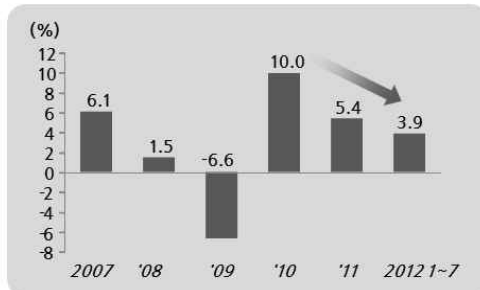
금융위기 직후만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의 성장력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불황이 길어지고 재정 문제가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까지도 정부의 보조 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재정위기로 인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어렵게 되었 기 때문이다. 또한 저성장이 장기화되며 기후변화협약에서도 온실가스배출 제한을 합 의하지 못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도 늦춰지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위축으로 인해 산업 측면에서 세계 경제의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 오히려 세 일가스 등 비전통에너지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전통에너 지 개발은 미국, 캐나다 등 북미에서만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산업 측면에서 세계 경제 의 활력소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림 1. 세계 교역량 증가율 추이



자료: : WTO

그림 2.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 CPB Trademonitor

■ 심화되는 신흥국의 성장동력 약화

금융위기 발생 이후 세계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신흥국 경제의 부진이 나타나고 있 다. 특히 신흥국의 대표주자인 인도와 브라질의 경제성장세 둔화가 지속 중이다. 이는

세계 경제의 버팀목이던 신흥국 경제 전체의 부진을 의미한다. 인도는 高물가,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의 3중고에 시달리며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인도는 2012년 5%대까지 성장이 둔화되었다.

브라질은 총수출 중 對유럽 수출 비중이 21%, 해외차입 중 유럽계 자본 비중이 64%에 달하는 등 유럽의존도가 높아 유로존 불안의 고조로 인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2012년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1%대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7.5%, 2011년 2.7% 성장에 비하면 성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신흥국의 대표인 인도와 브라질 모두 유로존 불안으로 인해 경기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인도는 유럽계 자금의 비중이 높아 현재 사상 최고 수준인 환율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물가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원자재와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환율 상승은 수출 증대보다는 물가 불안을 초래한다. 브라질도 유로존 불안에 따른 원자재 수요 위축 및 가격 하락 등으로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인 원자재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브라질의 총수출 중 원자재 수출이 약 65%를 차지한다.

그러나 인도와 브라질 모두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이 제한적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인도는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누적으로 정부지출을 확대하기 힘든 상황인데다가 유통시장의 개방 철회, 외국기업에 대한 소급과세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 상실한 상태이다. 또한 브라질은 과거 하이퍼 인플레이션 경험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 등 정부의 정책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세계 경제는 2013년에도 저성장 기조 지속

금융위기 이후에는 언제 위기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즉 블랙스완(Black Swan)으로 인한 불안이 컸다. 위기가 발생하면 그 충격도 컸기 때문에 경제 활동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다. 2012년 현재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불안 상황, 즉 그레이스완(Grey Swan) 상태로 바뀌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성장 회복을 위한 동력이 약화되면서 마땅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IMF 등 주요 기관은 유로존 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되자 2012년과 201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IMF는 2012년 10월에 발표한 201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4월) 전망치 대비 0.5%p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인사이트(GI)도

201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1.1%p 하향 조정했다. IMF는 201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12년 예상치보다 0.3%p 높게 전망하나, GI는 0.1%p 높은 3.1%로 전망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재정위기로 정책수단이 제한되고, 신흥국의 성장동력도 약화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 따라서 2013년에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주요 기관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IMF				Global Insight(GI)			
	2012년 성장률		2013년 성장률		2012년 성장률		2013년 성장률	
	4월 전망	10월 전망	4월 전망	10월 전망	4월 전망	10월 전망	4월 전망	10월 전망
세계 경제	3.5	3.3	4.1	3.6	3.4	3.0	4.2	3.1
선진국	1.4	1.3	2.0	1.5	1.3	1.2	2.1	1.1
-미국	2.1	2.2	2.4	2.1	2.2	2.1	2.4	1.8
-유로존	-0.3	-0.4	0.9	0.2	-0.5	-0.5	0.8	-0.4
신흥국	5.7	5.3	6.0	5.6	5.7	5.0	6.3	5.2
-중국	8.2	7.8	8.8	8.2	8.4	7.4	8.6	7.6
-인도	6.9	4.9	7.3	6.0	7.2	5.1	8.0	5.8

주: 각 기관이 2012년 4월과 10월에 전망한 2012년과 2013년 세계 경제 성장률
 자료: IMF (2012),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2.; IMF (2012),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2.; Global Insight 4월, 10월 전망DB.

2. 미국 경제

■ 부양과 긴축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

미국 경제가 주택경기를 중심으로 회복 징후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활력은 미진하여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일부 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은 여전히 취약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규모 재정긴축이 예정되어 있어 미국 경제가 다시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하는 재정절벽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라 2013년 재정긴축 규모 7,280억 달러가 모두 실행될 경우 2013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3%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¹⁾. 그러나 긴축을 유예하면 당장의 성장률 급락은 피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 부진이 심화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미국 의회예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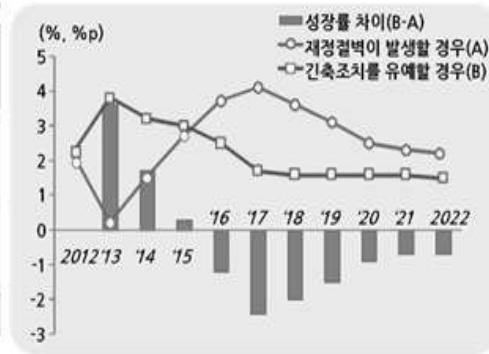
(CBO)은 2013~2022년 연평균 성장률을 긴축 유예 시 2.2%로, 긴축 이행 시의 2.6%보다 0.4%p 낮게 전망하고 있다.

그림 3. 2013년 시행 예정인 주요 재정긴축

(단위: 억달러, %)

분야	주요 내용	규모	GDP 대비
세금 인상	• 소득세율 인상, 급여세 감면 종료 • 의료보장세(오바마케어)	5,680	3.6
지출 축소	• 강제 재정지출 삭감(예산통제법) • 긴급 실업급여 프로그램 종료	1,600	1.0
총계		7,280	4.6

그림 4. 재정정책에 따른 성장률 전망



자료: Zandi, M. (2012), Navigating the U.S. Fiscal Cliff: Four Options, Moody's Analytics.

■ 경기 부양을 금융정책에 의존

미국은 재정을 확대하기 어려워 경기부양을 금융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성장 부진으로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현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2년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3차 양적완화(QE3) 정책을 발표했다. 경제상황이 상당히 개선될 때까지 매월 400억 달러의 주택저당증권을 시장에서 무기한 매입할 계획이다. 회수원금 재투자 및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 기존 조치와 합해서 2012년 말까지는 장기채권을 매월 850억 달러씩 매입할 것이다. 아울러 초저금리 정책 기한을 기존 2014년 말에서 2015년 중반으로 연장하고 필요시 추가 자산매입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12월 FOMC에서는 4차 양적완화(QE4)로 불릴만한 조치가 발표되었다. Fed는 실업률이 6.5%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통화완화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2년 말 투입자금이 모두 소진되는 단기국채 매각을 통한 장기국채 매입 프로그램(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규모는 기존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같은 수준인 매달 450억 달러로 정해졌다. 기존의

1) CBO (2012), Economic Effects of Reducing the Fiscal Restraint That Is Scheduled to Occur in 2013.

오퍼레이션 트뤼스트가가 장기국채를 사들이는 대신 단기국채를 매각해 시중에 풀린 돈을 흡수했던 반면 2012년 12월 발표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은 중화장치가 없다. 따라서 Fed의 장기 국채 매입 자금이 그대로 시장에 풀리게 될 것이다.

특히, 2012년 12월 FOMC에서는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 구체적인 지표를 통화정책에 연동시키는 역사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실업률이 6.5%를 웃돌면 인플레이션이 2%를 넘지 않는 이상 제로금리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양적완화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강화되고, 주택가격 상승이 점진적으로 소비와 투자 증대,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추가 양적완화도 성장세 둔화를 막기에는 역부족

그러나 재정긴축 효과가 양적완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보다 커서 2013년 미국 경제의 성장률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긴축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은 있지만, 재정긴축 자체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재정절벽을 막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나 재정비탈(Fiscal Slope) 정도의 긴축은 피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10년간 4.4조 달러 규모의 재정긴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이 현재의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국가신용등급 강등, 투자자 신뢰 악화 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Marple(2012)은 긴축 규모를 약 50% 축소해도 성장률이 1.5%p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재정긴축이 실행되기 전에도 재정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2012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0.5%p 하락과 약 4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²⁾. 또한 양적완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재정긴축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모기지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10월 11일 현재 3.39%)이고, 금융권 유동성도 풍부하여 추가 양적완화조치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2) Marple, J. (2012). Searching for a Detour around the Fiscal Cliff, TD Economics.

3. 유로존 경제

■ 1단계 방화벽 구축

위기 차단을 위한 유로존 차원의 방화벽 구축이 진전되었다. 2012년 6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위기대응 해법 중 1단계인 방화벽 구축에 성과를 보인 것이다. 위기대응 해법은 방화벽 구축(1단계) → 은행동맹(2단계) → 재정통합(3단계)로 구분 가능하다. 여기서 1단계 방화벽 구축이란 ECB(유럽중앙은행)의 新국채매입 프로그램 국채매입 신청, 긴축 및 구조개혁 의무 수용 등의 요건 충족 시 국채를 무제한 매입 채택(9월 6일), ESM(유럽안정화기구)의 출범(10월 8일) 등을 말한다. 특히, ESM은 한시적 구제 금융 기금인 EFSF(유럽재정안정기금)를 대체하는 상설기구로 ‘유럽판IMF’로 불린다. 이러한 1단계 방화벽 구축으로 위기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 내 불안감이 진정되고 있다.

그림 5. 유로존 위기의 대응해법



자료: 김득갑 외 (2012). 유로존 위기 진단과 기업의 대응. CEOinformation 868호. 삼성경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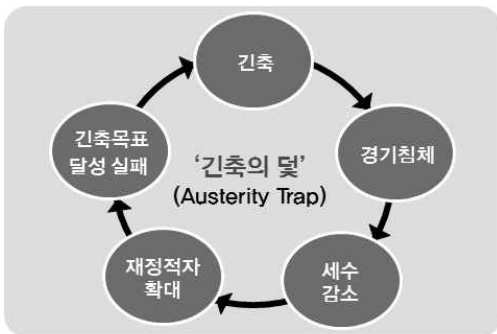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방화벽의 원활한 작동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은 회원국의 국채매입 요건인 ‘긴축 및 구조 개혁 의무’ 이행 차질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는 국채매입 신청국이 긴축 및

구조개혁의 이행 실패 시 국채매입을 중단하게 되어 위기가 증폭될 우려가 남아있다. ESM도 역할 수행에 필요한 요건 은행 직접지원을 위해서는 은행 감독권한 통합이 전제되어야 하고, 국채매입을 위해서는 긴축 및 구조개혁 요구를 회원국이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감독권한 통합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ESM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자본금은 7,000억 유로(납입자본금 800억 유로)이나, 실제 가용자원은 5,000억 유로로 자원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은행 직접지원과 국채매입에 한계에 처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회원국의 채무상환능력 약화가 지속되는 한 위기국면은 201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긴축의 덫으로 인해 경기침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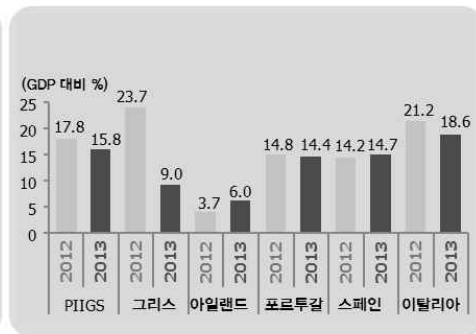
재정위기국은 소위 ‘긴축의 덫(austerity trap)’에 빠져 있어 긴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재정적자 축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긴축의 덫이란 ‘긴축→ 경기침체→ 세수 감소→ 재정적자 확대→ 긴축 목표 달성 실패→ 긴축 추구’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2013년에도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채무상환 부담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긴축목표 달성 애로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그림 7. 재정위기국의 만기도래 국채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2013년 5개 재정위기국(PIIGS)의 만기도래 국채 규모는 총 5,127억 유로(GDP 대비 15.8%), 이탈리아는 3,030억 유로(GDP 대비18.6%), 스페인은 1,573억 유로(GDP 대비14.7%)로 전망³⁾되고 있다. 따라서 방화벽 가동으로 최악의 위기는 모면하겠지만,

회원국의 채무상환능력 약화로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 측면에서도 재정긴축 및 금융정책의 한계로 인해 2013년 유로존 경제는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지출 축소, 세금 인상, 실업수당 및 연금지급 축소 등 유로존 국가의 긴축정책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⁴⁾은 4.1%(2011년) → 3.3%(2012년) → 2.6%(2013년)로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경제에 부담스러운 적자 수준이 지속될 것이다. 또한 금리인하 여력의 한계와 국채매입을 통해 풀린 유동성 흡수정책(불태화)⁵⁾으로 금융완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3. 중국 경제

■ 바오빠(保八)가 붕괴된 2012년 중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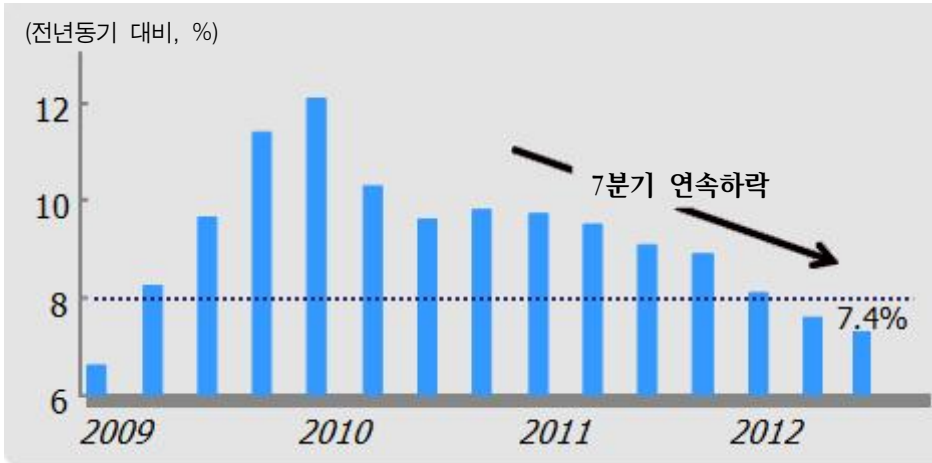
2012년 중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둔화로 성장률이 8%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1년 1/4분기부터 7분기 연속 하락하면서, 2012년 2/4분기에는 7.6%로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8%를 하회했다. 2012년 3/4분기에도 7.4% 성장에 그치면서 둔화세가 지속되었다. 유로존 경기 침체, 미국 성장 둔화 등으로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對선진국 수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둔화되었다.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2010년 31%에서 2011년 20%로 2012년 1~8월에는 7%로 하락했다. 2012년 9월과 10월에는 수출 증가율이 반짝 반등을 했지만 11월에는 다시 이 크게 하락했다. 수출 부진과 높은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와 소비증가세도 위축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Eurostat

4) IMF (2012), Fiscal Monitor – Taking Stock: a Progress Report on Fiscal Adjustment, October.

5) 불태화란 국채매입으로 풀린 유동성이 유발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ECB의 보유 자산 매각, 민간은행의 ECB 예치금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을 말함.

그림 8. 중국 경제 성장률



자료: CEIC

■ 소비 주도의 성장전략에 힘입어 경착륙 가능성은 낮음

세계 수요 부진으로 수출과 투자의 빠른 회복이 어려워 2013년에도 8%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이 금융위기에 이어 재정위기를 겪고 있어 중국 수출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의 총수출 중 약 70%가 선진국으로의 수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 상승, 위안화 절상 등으로 수출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선진국의 압력 등으로 위안화는 지난 8년간 23% 절상되었으며, 2007년 이후 명목임금은 연평균 15% 상승했다. 수출 부진으로 투자 둔화가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투자과열로 인한 물가 및 부동산 가격 불안을 경계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투자확대정책에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2013년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 둔화를 만회하기 위해 소비 증대에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경제 성장의 질적 수준 제고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소비 주도 성장을 위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를 정점으로 하는 중국 5세대 지도부의 등장으로 도시화 등 소비 주도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또한 2012년 지도부 교체로 다소 미뤄졌던 투자가 2013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9. 소비 주도 성장을 위한 개혁의 주요 내용



자료: 신장목 외 (2012), 최근 경제현안 진단, CEOinformation 870호, 삼성경제연구소.

2013년 외환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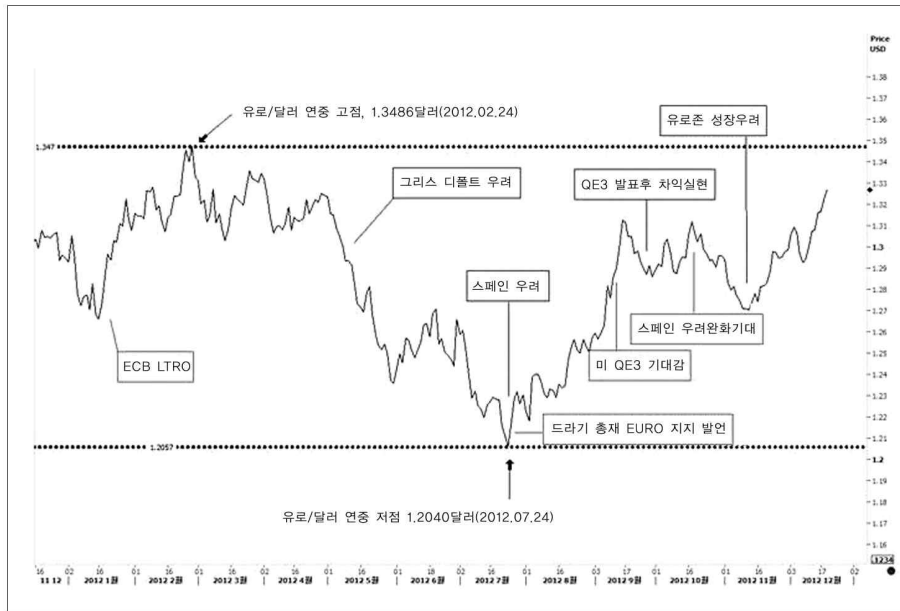
2013년도에는 글로벌 달러가 상대 통화 별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선진국 별로 양적완화 경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미국이 재정절벽의 위기만 넘긴다면 미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 경제보다 회복이 빠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반영한 펀더멘털성 달러 강세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로화나 엔화 등 선진국 통화들에 대한 반응일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 통화들에 대해서는 반대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캐리트레이드나 엔캐리트레이드를 통해서 아시아 통화들의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주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나 중국 경제의 제한적 반등 가능성 등은 상대적으로 유로캐리트레이드의 활성화를 약화시키게 되고 2012년 4분기부터 상승세를 시작한 달러/엔 역시 상승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엔캐리트레이드의 규모 역시 시장의 기대 수준에는 미흡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로 인해 달러/원에 미치는 영향 또한 2012년보다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와 위안화 절상의 영향을 반영하면서 환율의 기본적 하락 추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국의 개입 기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달러/원의 하락 속도를 둔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미 경제지표 호조에 따라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 중단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은 4분기 달러/원의 반등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2013년 달러/원의 거래범위는 1,030원~1,095원이 예상된다.

1. 유로/달러

2012년과 마찬가지로 2013년도 역시 유로/달러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큰 그림 상으로는 박스권 행보가 예상된다. 2012년의 외환시장을 관통한 대주제는 글로벌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와 중앙은행의 정책적 기대감이었는데 유로/달러는 국제외환시장에서 그 어느 통화쌍보다도 이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면서 1.20 달러대와 1.34 달러 사이에서 박스권 행보를 보여왔다. 2013년도에는 유럽 재정위기의 안정과 성장에 대한 우려가 서로 교차하는 가운데 미 재정절벽에 해소와 이에 따른 QE의 조기 종료 가능성 등이 어우러지며 기존의 박스권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작성: (주)외환선물 정경팔 팀장(kpchung@kebf.com)

그림 1. 2012년 유로/달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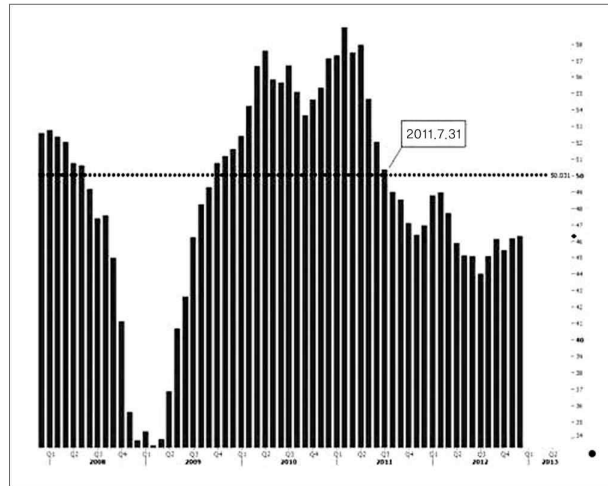
자료: 로이터, 외환선물

단기적으로는 유로/달러의 약세가 예상된다. 비록 미 연준이 2012년 12월 FOMC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종료하면서 매달 45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 방안을 내놓았지만 미국의 재정절벽 해소를 위한 미 여야 간의 회담이 지체될 경우 위험회피성 달러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재정절벽 이슈는 이에 대한 해결이 지체될 경우 미 경제에 너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늦어도 2013년 1월을 전후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또한 스페인이나 그리스를 둘러싼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큰 고비를 넘김에 따라 단기적으로 유로/달러의 약세는 지속 시간도 길지 않을뿐더러 속도감도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이후부터 유로/달러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승과 하락 가능성이 공존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 재정절벽 이슈가 해결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유로/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으며 이 경우 1.35 달러 대에서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경제가 침체를 면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유럽경제보다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펀더멘털 적인 요인으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달러가 하락할 가능성도 공존한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유로/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경우 유로존 경제의 침체 우려를 반영해 금리 인하까지 단행될 경우 유로/달러의 하락세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림 2. 유로존 제조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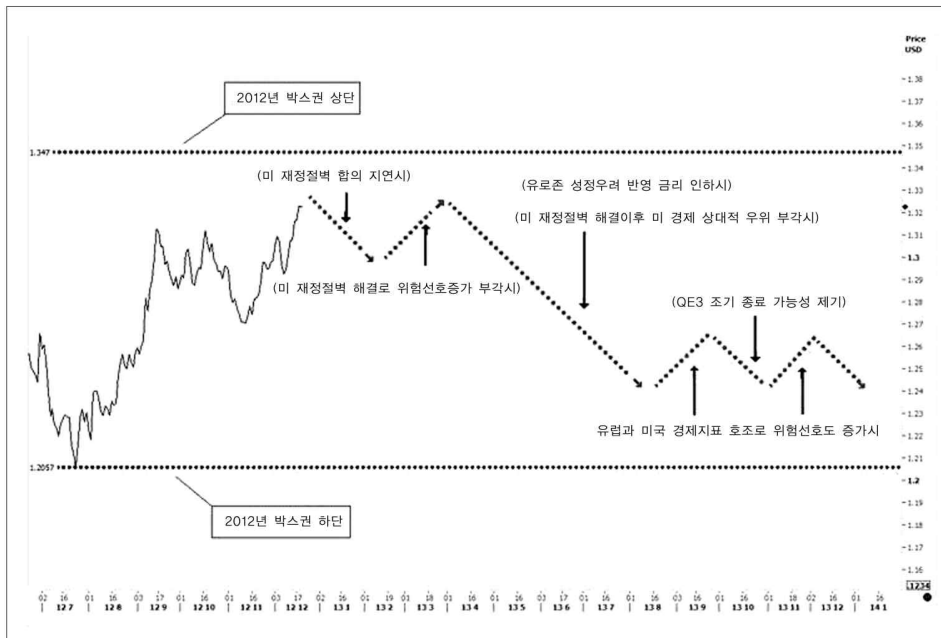
자료: 로이터, 외환선물

유로존 경제는 2009년 초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는데 조만간 회복될 것이라는 신호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ECB가 2012년 9월 새로운 국채매입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회원국의 요청이 있어야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가 거의 유일한 부양수단으로 남은 상태다.

이 때문에 2013년도 상반기 중에 ECB 정례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인 0.75%에서 0.5%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만큼 유로화가 달러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리 수준 우위의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유로/달러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도의 경우 유로/달러가 1.204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었던 것은 스페인 경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었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이러한 과도한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는 약화된 만큼 2013년도의 유로/달러의 연중 저점은 작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략 1.24 달러 수준에서 하락세가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과 달리 유로존의 침체를 반영한 유로/달러의 약세는 유로존의 수출에도 도움이 되면서 4분기에는 유로존 제조업의 반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유로/달러는 1.24 달러 수

준을 저점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미 경제가 유로존보다 상대적으로 회복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 때문에 반등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미 경제의 회복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서 QE의 조기 종료 가능성까지 제기될 경우 이에 따른 글로벌 달러의 강세와 미 경제회복을 반영한 위험통화들의 강세로 유로화가 강세 압력을 동시에 받으면서 유로/달러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2013년 유로/달러 예상 행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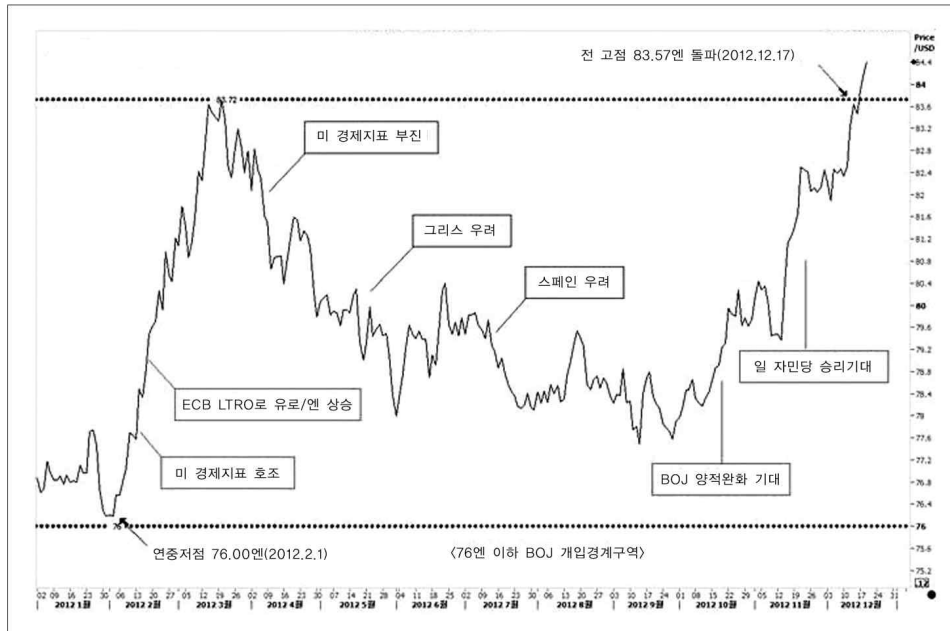
자료: 로이터, 외환선물

2. 달러/엔

달러/엔이 지난 5년간의 하락세를 뒤로 하고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게 된 것에 대해서는 2011년 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일본의 무역수지가 타격을 받은 점이나 중국과의 영토 분쟁 우려로 인해 대중국 수출이 차질을 입은 점 등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본다. 2012년 12월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이 매달 450억 달러 규모의 국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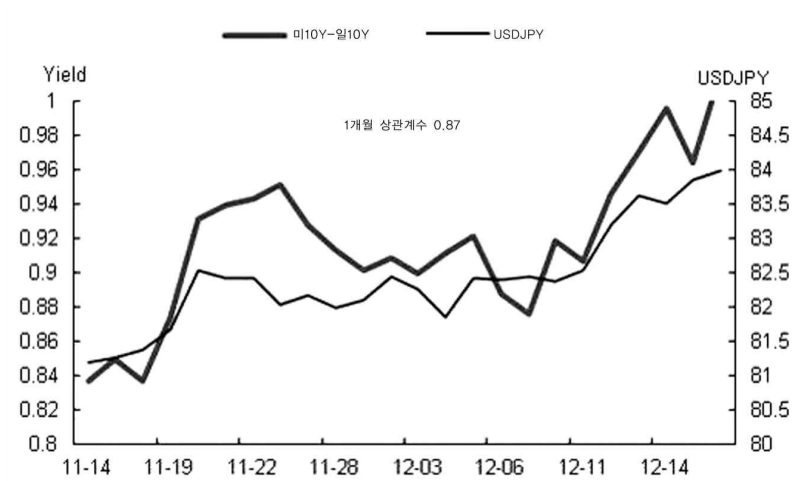
매입 안을 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엔이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시장이 가지고 있던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2012년 달러/엔 동향



자료: 로이터, 외환선물

그림 5. 미-일 금리 스프레드와 달러/엔



자료: 연합인포맥스, 외환선물

그런데 달러/엔 동향에 영향을 주는 변수 가운데 하나인 미국채 10년물과 일본 국채 10년물 사이의 수익률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 흥미로운 결과를 보게 된다. 그것은 바로 달러/엔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2012년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중순까지 미일 수익률 스프레드와 달러/엔과의 상관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둘 사이의 상관계수는 0.87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 1년간의 상관계수 0.47에 비하면 거의 배에 육박한 수준이다. 이것은 이 한 달간의 기간 동안 일본 국채 수익률은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자민당의 당선 가능성을 반영해 하락한 반면 미국 국채 수익률의 경우는 미 연준의 추가 부양책에 따른 인플레이 우려를 반영해 상승하면서 두 수익률 사이의 스프레드가 확대되었고 이 스프레드의 확대가 달러/엔의 상승을 이끈 경우라고 하겠다.

그림 6. 엔화 강세 시대의 마감?



자료: 로이터, 외환선물

미 연준이 양적완화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의 상승은 일정수준에서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미일간의 스프레드 확대 또한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13년도에도 달러/엔이 2012년 4분기 때처럼 수익률 스프레드 확대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유럽의 침체로 인해 유로존의 금리 인하까지 단행될 경우에는 유로/엔의 하락하면서 달러/엔의 상승에는 걸림돌로 작

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2013년 5월 일본 정부가 통화완화정책을 옹호하는 신임 일본 중앙은행 총재를 선임하면서 달러/엔 상승에 자극을 줄 수 있겠지만 일본 중앙은행 법을 개정해 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더욱 복잡한 문제인 만큼 일본 정부의 기대만큼 엔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2013년 상반기의 달러/엔 상승 속도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느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 재정절벽의 우려가 해소되고 이후 미국의 경제지표가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일 경우 달러화 강세가 달러/엔의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 경제지표의 호조는 매우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13년 전체적으로 달러/엔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최고 90엔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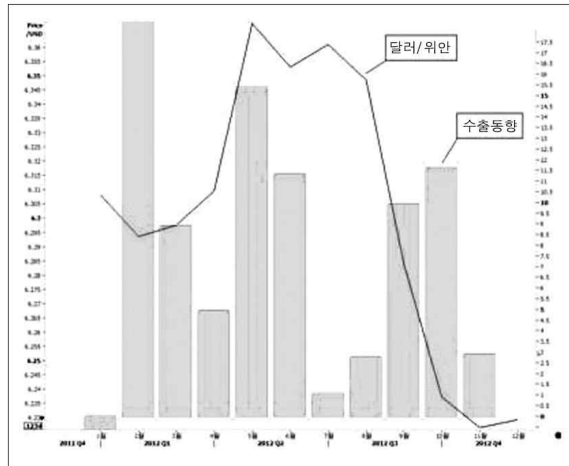
3. 달러/위안

위안화는 2012년도에 국제외환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은 통화다. 미 연준의 QE3 발표 이후 글로벌 달러가 차익실현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대비 강세를 지속하면서 아시아 통화 강세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위안화가 강세를 지속한 것은 정치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적인 요인으로는 미 대선을 앞 둔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의 강력한 위안화 절상 요구를 반영한 면이 있었고 경제적인 요인으로는 중국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내 달러 유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위안화가 강세를 지속했지만 중국의 수출이 급감하면서 강세가 둔화된 것은 향후 위안화 동향에는 경제적인 요인이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2013년에도 위안화는 절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개인 싱크탱크인 웨스트 브러더스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경제가 앞으로 5년간 연 7.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고작 2%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중국과 주요 선진국 간의 금리 차이 등을 근거로 위안화가 향후 5년간 10% 절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행 역시 최근 ‘중국 경제 금융 형세 전망보고’에서 2013년에는 위안화 가치가 3% 안팎으로 상승해 6.06 위안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도 위안화의 달러화 대비 연중 최대 절상폭이 1.59%였던 점을 감안하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절상폭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의 주요 수출국 가운데 하나인 독일 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도 유럽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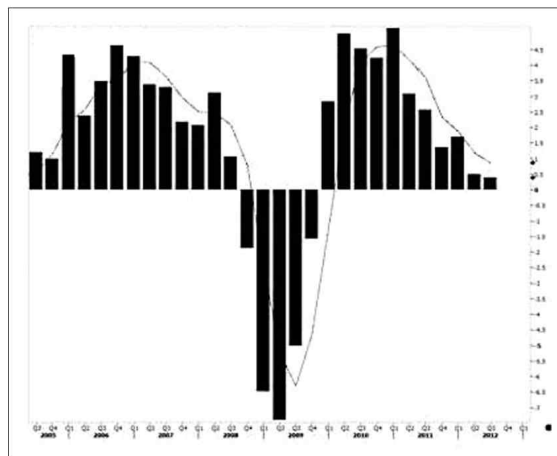
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럽의 중심국인 독일까지 경제부진이 지속될 경우 위안화의 절상 속도와 폭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림 7. 중국 위안화와 수출 동향



자료: 로이터, 외환선물

그림 8. 독일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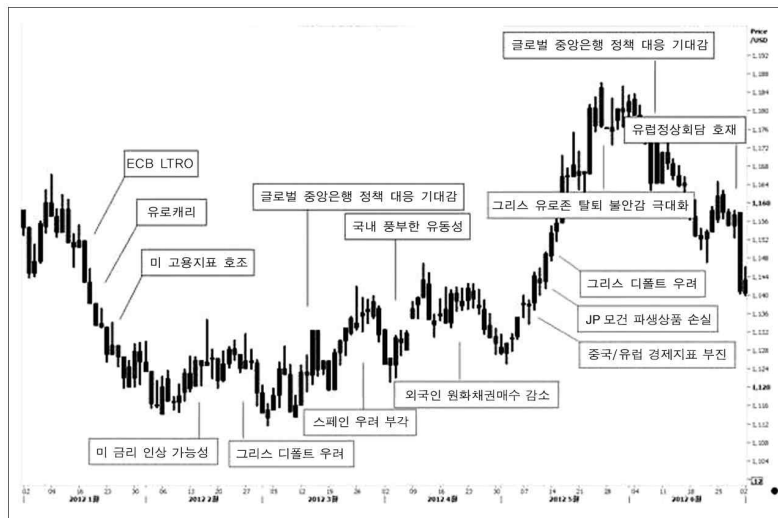


자료: 로이터, 외환선물

4. 달러/원

2012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달러/원은 유로/달러처럼 글로벌 경제의 우려와 중앙은행의 정책적인 기대감을 동시에 반영하며 방향성 없는 행보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드라키 총재의 유로화 지지발언은 본격적인 하락 추세의 신호탄이 되었다. 이후 미 연준의 QE3 발표 직후 대부분의 위험통화들은 소위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시장 속성에 따라 약세를 보였지만 원화는 강세를 지속하면서 달러/원의 비 논리적인 하락 행보가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9. 2012년 상반기 달러/원



자료: 로이터, 외환선물

2012년 하반기에 달러/원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이유는 3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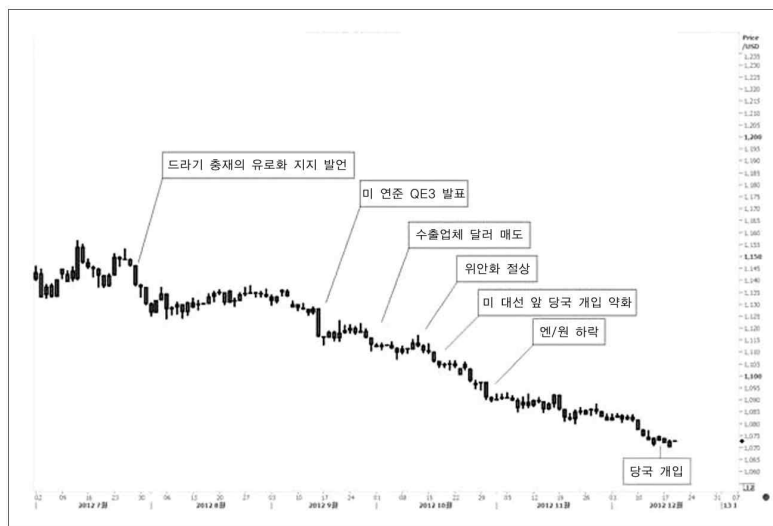
첫째, 글로벌 외환시장이 점차 지역화되면서 유럽의 재정위기나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 등이 원화에게 본격적인 약세 요인이 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역외시장참여자들의 달러/원 매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다. 바로 이 빈 자리를 수출업체들이 달러 매도로 매우면서 달러/원의 하락세가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글로벌 외환시장이 지역화되었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가까운 통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그 사례에 해당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엔화의 약세다. 유로화 약세시에는 활발하지 않던 역외시장참여자들이 엔화 약세시에는 서울 시장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1,100원이나 1,080원과 같은 주요 지지선의 하향 돌파에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 요인은 미 대선이다. 미 대선을 앞두고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면서 한국의 외환당국 역시 원화 절상을 용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해외 위험통화들과의 괴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예전과 같은 기준으로 개입을 단행하지 않은 것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환율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고 그 기대감이 결국 환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림 10. 2012년 하반기 달러/원



자료: 로이터, 외환선물

2013년에도 달러/원은 큰 흐름상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어떤 요인들이 작용할지 4대 해외 변수와 3대 국내 변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4대 해외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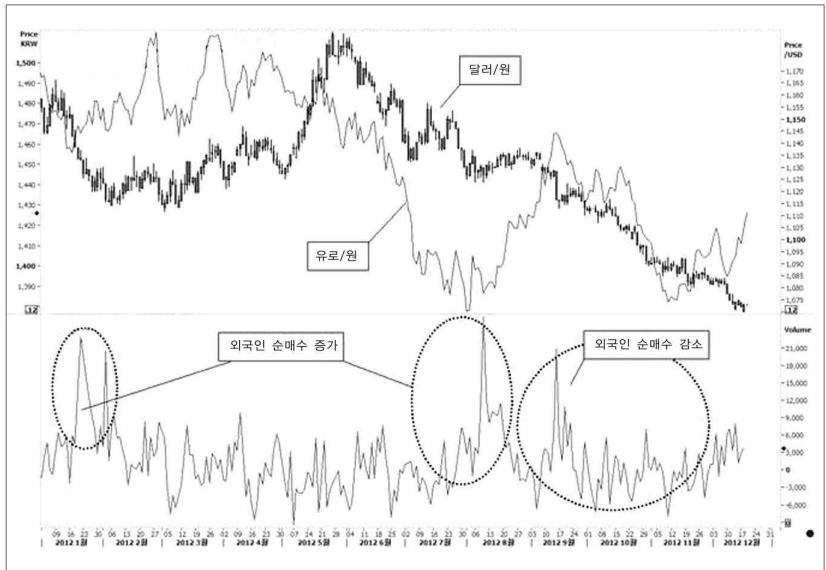
2012년 국제외환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던 것은 캐리트레이드였다. 캐리트레이드는 저금리 통화를 편당해서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진행되는데 상반기에는 (1) 유로캐리트레이드가, 하반기에는 (2) 엔캐리트레이드가 원화를 포함하는 주요 통화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2013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분석

했다. 또한 2012년부터 원화와의 상관성이 높아진 (3) 위안화의 영향과 마지막으로 (4) 미국의 재정절벽과 양적완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1) 유로캐리트레이드

유로캐리트레이드가 일어나는 이유는 유로존의 불투명한 경기 전망을 반영해 새로운 투자처를 따라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통상 유로/아시아 통화의 형태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며 유로/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로/달러와 달러/아시아 통화의 동시 매도를 통해서 유로/아시아 통화의 매도 포지션을 형성하게 된다.

그림 11. 2012년 유로/원 & 달러/원 & 외국인 순매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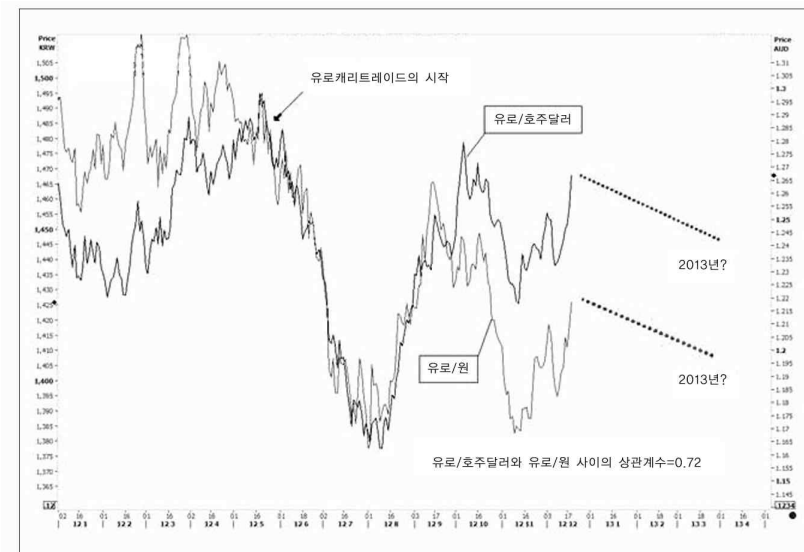


자료: 로이터, 외환선물

달러/원은 2012년 1~2월과 6~7월 그리고 9~10월 등 3차례 걸쳐 유로/원 하락의 영향을 받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 외국인 순매수를 동반했지만 3번째의 경우 외국인 순매수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점이 차이점이자 특이사항이라고 하겠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부분은 6~7월에 걸쳐서 진행된 캐리트레이드인데 당시 그리스와 스페인 우려가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도 캐리트레이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캐리트레이드가 막 시작된 5월 하순 당시에는 아직 그리스의 디폴트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만약 그리스가 디폴트되는 운명을 맞았다면, 혹은 그에 대한 우려가 글로벌금융시장을 뒤 흔들 정도로 심각하게 인식되었다면 캐리트레이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캐리트레이드에서의 투자통화들 역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에 유로캐리트레이드가 가능했던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럽중앙은행이 뒷감당을 해 줄 것이며 투자통화들은 안전할 것이라는 국제외환시장 큰손들의 믿음이 작용한 결과라고 하겠다. 유로캐리트레이드를 주도한 통화쌍은 유로/호주 달러인데 유로/원과의 상관계수가 0.72에 이르는 만큼 달러/원은 유로캐리트레이드로부터 밀접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2. 2012년 유로캐리트레이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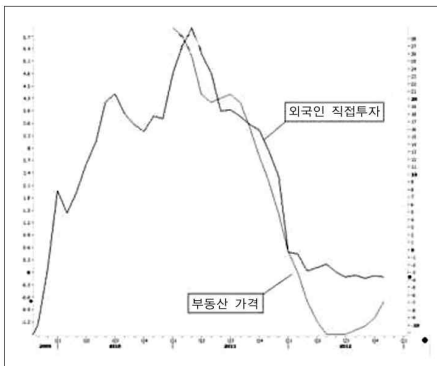


자료: 로이터, 외환선물

그럼 2013년에도 이러한 캐리트레이드는 진행될 것인가?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완화되었지만 유로존의 성장 우려가 제기되면서 유로화의 약세가 예상되는 점은 유로화를 캐리트레이드의 펀딩통화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활한 캐리트레이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캐리트레이드의 투자통화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볼 때 2013년도의 호주 달러의 방향성과 호주 달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의 경제 상황이 캐리트레이드의 활성화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잣대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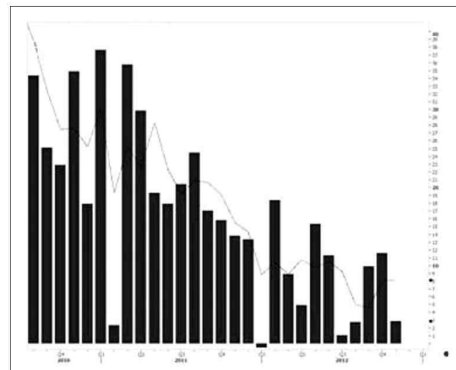
2013년도 호주 달러는 미 달러화 대비 약세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경제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지난 7년 동안 이어져온 광산업 붐이 예상보다 일찍 빠른 속도로 식고 있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성장이 구멍이 뚫려서 다른 경제 분야들이 이를 메워줘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현행 3%의 기준금리가 2013년도 말에는 2%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금 유출이 호주 달러의 약세 재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호주의 기준금리가 2%까지 하락하더라도 유로존의 현행 기준금리인 0.75%보다 높은 만큼 유로캐리트레이드에서 투자통화로서의 유인 요인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2013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이 7.5% 수준으로 예상되는 점은 호주 달러의 약세를 일정부분 제한하면서 캐리트레이드를 유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금리 우위에 따른 매력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13년도에는 2012년도보다 상대적으로 둔화된 캐리트레이드가 전망된다.

그림 13. 중국의 부동산과 외국인 투자



자료: 로이터, 외환선물

그림 14. 중국의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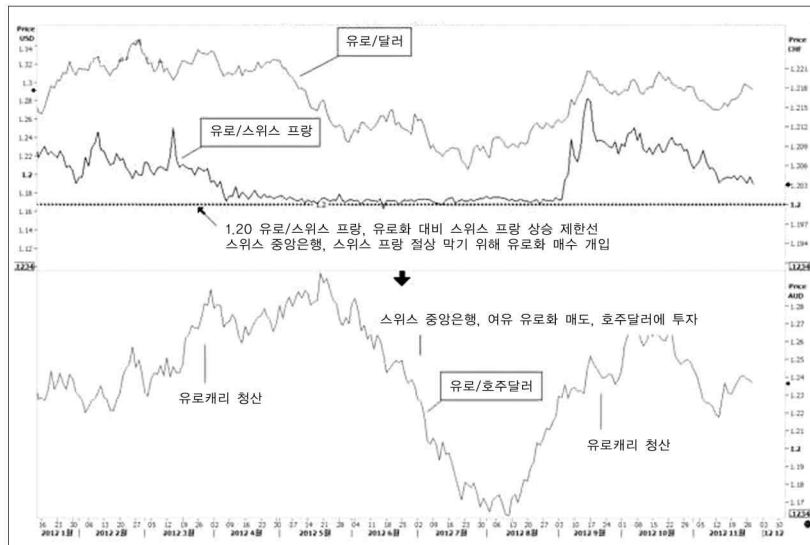


중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진정되고 있는 부분은 호주 달러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부동산 건설에 필요한 철광석을 호주가 중국에게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성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 반등의 위험도 진정시켜야 하는 입장에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중국 경제가 호주 달러에, 또는 유로/호주 달러 캐리트레이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유로존의 경기 침체, 특히 중심 국가인 독일 경제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의 대 유럽 수출이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은

50%에 가까운 수출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 경제 반등의 기대감을 희석시키면서 동시에 캐리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 역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요인들을 희석시킬 수 있는 재료로는 유로캐리트레이드의 수급적인 요인을 꼽아볼 수 있다. 스위스중앙은행의 경우 스위스 프랑의 절상을 막기 위해 1.20 유로/스위스 프랑을 스위스 프랑 상승의 제한선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유로화 약세가 진행될수록 스위스 프랑의 강세를 막기 위해 유로화를 무제한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이때 발생하는 여유 유로화의 투자처를 물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로화 매도/호주 달러 매수의 유로/호주 달러 캐리트레이드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급적인 요인이 얼마나 발생하느냐가 유로캐리트레이드의 활성화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15. 유로캐리트레이드의 수급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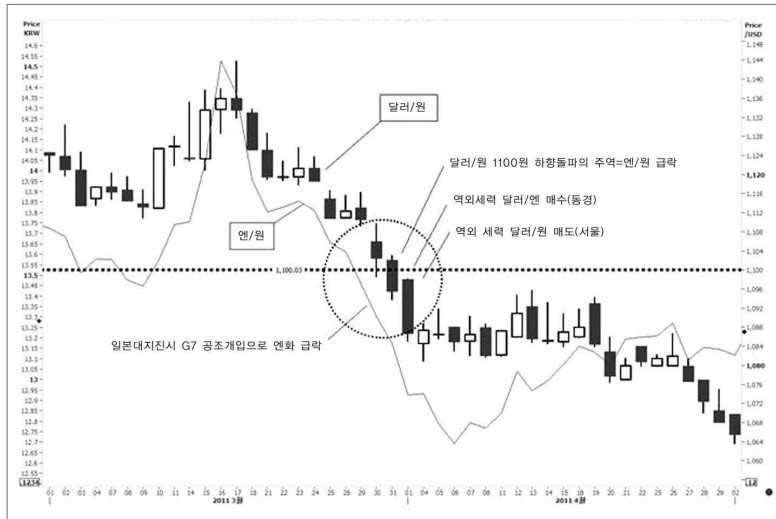
자료: 로이터, 외환선물

(2) 엔캐리트레이드

2013년도에 유로캐리트레이드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엔캐리트레이드다. 글로벌 외환시장이 점점 지역적인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아시아 통화들은 유로화 보다는 엔화의 약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화 역시 이 범주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달러/원이 지난 2011년 3월과 2012년 10월에

각각 1,100원을 하향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엔화 약세에 따른 엔/원 환율 급락의 영향을 받아 역외시장참여자들이 동경에서 달러/엔을 매수하고 동시에 서울에서 달러/원을 집중 매도했기 때문이었다.

그림 16. 2011년 1,100원 하향 돌파 당시



자료: 로이터, 외환선물

그림 17. 2012년 1,100원 하향 돌파 당시



자료: 로이터, 외환선물

2013년도 역시 시장은 엔/원이 달러/원의 주요 지지선 하향 돌파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주역으로 등장할 지의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2013년도에 달러/엔의 상승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2012년 말 100엔당 1,270원대를 기록한 엔/원 환율 역시 완만하게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2013년도에는 100엔당 1,200원까지 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8. 엔캐리트레이드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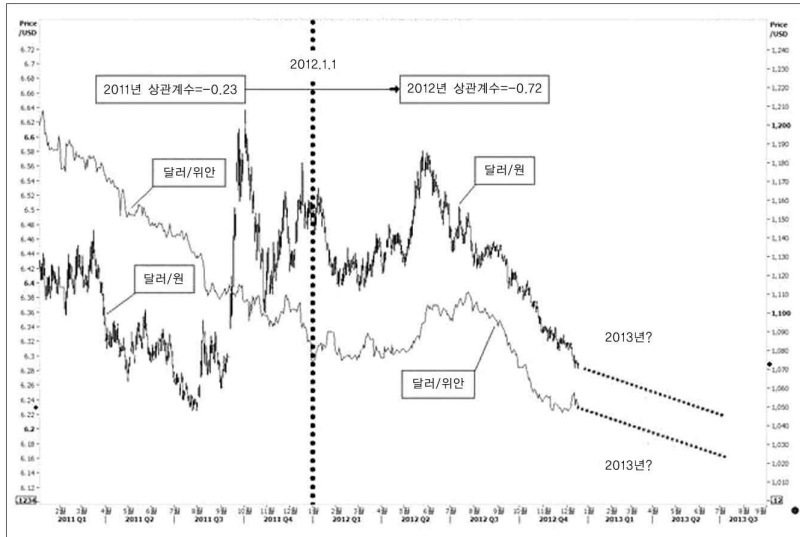
자료: 로이터, 외환선물

(3) 위안화와 원화

2011년까지만 해도 위안화와 원화와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수준이었다. 원화가 그리스 디폴트 우려를 반영해서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위안화는 중국 당국의 관리 하에 강세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도에 들어오면서 원화와 위안화 사이의 상관계수는 0.72로 급반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상반기에는 달러/위안이 달러/원처럼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2011년도와 비교해 볼 때 국제 외환시장의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중국 당국의 입장 변화가 나타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미 대선 앞두고 중국이 위안화의 절상을 용인하는 동안 한국의 외환당국 역시 원화 절상을 용인하는 입장을

취한 점이 두 통화 사이의 상관계수가 높아진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2013년도에 위안화는 2~3%의 절상이 예상되고 있는데 위안화의 절상은 아시아 통화 전반에 절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원화 역시 이 영향권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19. 달러/원과 달러/위안의 상관관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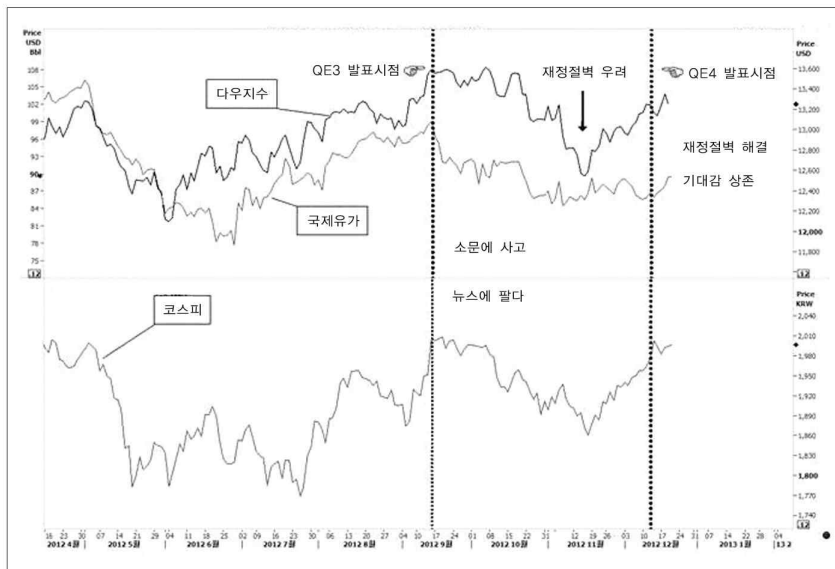
자료: 로이터, 외환선물

(4) 미 재정절벽과 QE

미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는 2012년 중 원화에게 큰 영향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이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해결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서로 교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절벽 해결의 데드라인인 2012년 12월 31일에 다가갈수록 혹은 이를 넘어서까지 회담이 진행될수록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원화의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원화가 당연히 추세적인 약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며 저가매수의 기회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이후 미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감안해야 할 변수는 미 연준의 양적완화의 조기 종료 시행 또는 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는 상황이다. QE3나 QE4가 출현한 배경이 재정절벽 상황에 대한 미 연준의 선제적인 조치로 본다면 재정절벽이 해소된 이후의 상황에

서는 그 필요성이 점차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가 조기에 종료될 정도의 상황은 미국의 경제지표가 안정적으로 호조를 보이는 시기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주식과 글로벌 달러 모두의 강세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달러/원에게는 상방과 하방 압력을 동시에 받게 되는 상황이 예상된다. 따라서 QE의 조기 종료 논란은 달러/원에 게 변동성 확대와 함께 제한적 수준의 반등세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0. 미 재정절벽 이슈와 QE에 따른 위험자산 시장 동향



자료: 로이터, 외환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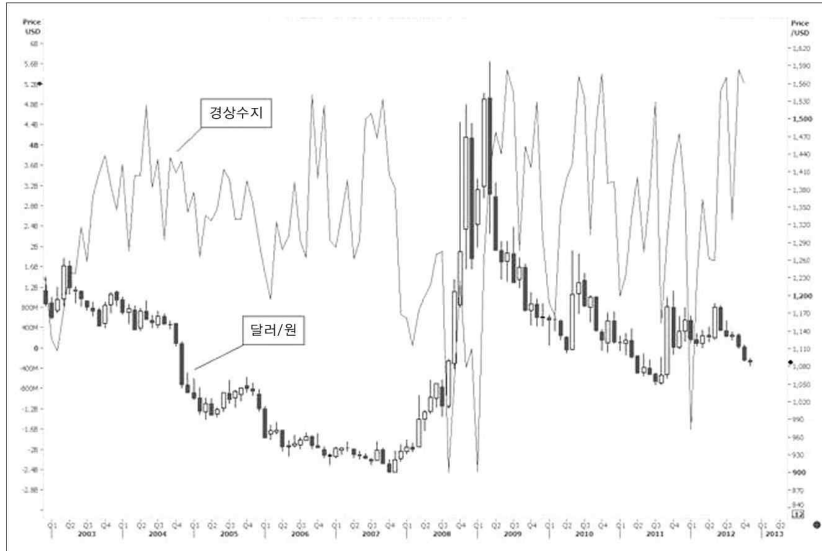
■ 3대 국내 변수

2012년도 하반기 달러/원의 하락에 영향을 주었던 (1) 경상수지가 흑자를 계속 이어 갈지 여부와 (2) 외국인 동향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3) 당국 변수에 대해 분석했다.

(1) 경상수지

교과서적 이론으로는 환율과 경상수지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것을 다음의 차트가 말해주고 있다.

그림 21. 환율과 경상수지



자료: 로이터, 외환선물

2008년도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시기에만 부정적인 관계가 뚜렷할 뿐 그 이외에 시기에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이는 환율이 하락할 경우 수출기업들이 제품 개발에 더욱 힘쓴 것이 작용한 면이 있고 이로 인해 경상수지가 늘어나면서 환율 하락에 기여한 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2013년도에도 큰 틀에서는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과 함께 수출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엔/원 환율의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경상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하락 압력은 다소 둔화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2) 외국인 동향

2012년 하반기 캐리트레이드와 함께 달러/원이 하락 압력을 받는 가운데 나타난 특이한 점은 외국인 주식이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그 이전에 캐리트레이드가 등장할 때와는 구별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비록 외국인이 주식의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원화가 달러화로 환전되어 역송금되지 않고 원화 계정에 그대로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2013년 재정절벽 해소 이후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이더라도 국내 시장에 신규 달러가 유입되지 않는 한 서울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2. 외국인 원화채권 매수 동향



연월	노르웨이	미국	스위스	칠레
2012.10	3,480	3,100	3,310	5,500
2012.09	1,890	2,960	1,330	
계	2,685	6,060	4,640	5,500

자료: 연합인포맥스, 외환선물

2012년 외국인이 주식 순매도를 보이던 시기에도 원화채권에 대한 수요는 외국 중앙은행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2013년 역시 아시아 통화의 강세가 예상되고 원화에 대한 외국인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화 채권 수요와 환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수요의 절대량 보다는 자금 시장을 경유해서 환헤지를 하는 물량을 뺀 나머지 물량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환율이 하락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3) 당국

2012년 달러/원의 1,100원과 1,080원은 다소 허무하게 무너졌는데 여기에는 미 대선과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당국이 극히 소극적인 미세조정으로 대응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2012년 10월 중에는 원화의 절상률이 아시아통화들 가운데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예전에는 이처럼 원화와 해외통화들과의 괴리가 커질 경우 매우 정당한 개입의 명분으로 작용했지만 국내외 정치적인 상황이 반영되면서 당국은 예전과 같은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달러/원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진 요인이 되었다.

2013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은 정치적인 요인들이 제거된 만큼 당국이 예전에 사용했

던 정당한 개입의 명분을 심분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원화의 절상률이 해외 통화들의 그것 대비 돋보이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도의 관전 포인트는 대기업 손익분기점인 1,059원을 목전에 둔 1,060원선과 2011년도의 연중 저점 이었던 1,050원선을 당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방어하느냐 하는 점이 되겠다.

그림 23. 당국이 원하는 특정한 레벨은 존재하는가



자료: 로이터, 외환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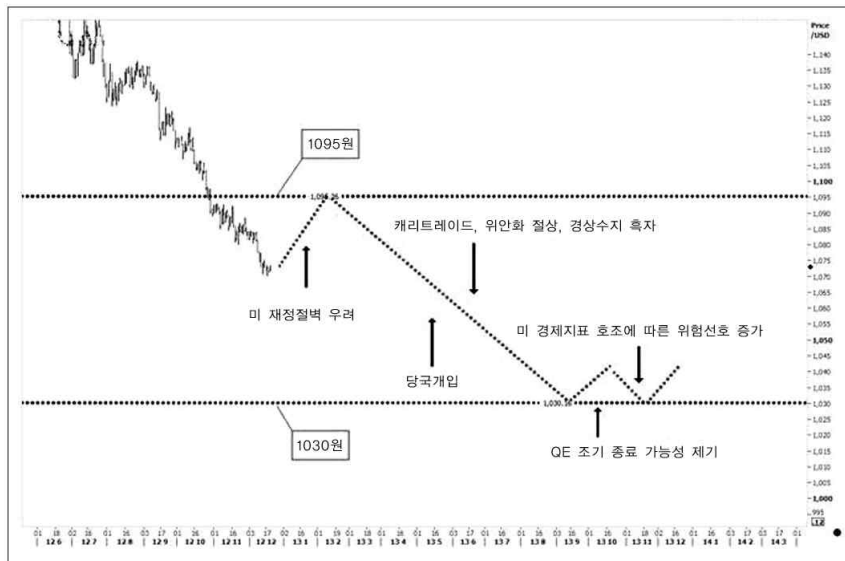
■ 거래범위 전망

2013년도를 미 재정절벽에 대한 해결이 없이 시작할 경우 1월 달은 연중 환율의 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인상에 대비해 뉴욕증시에서 차익실현 매도세가 나오면서 원화를 비롯한 위험통화들에게 약세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070원대에서 1월을 출발한다고 볼 때 재정절벽 이슈로 인한 환율의 반등은 최고 1,095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비록 1,100원이 다소 무력하게 무너지긴 했으나 빅 피겨가 갖는 상징성이 저항선 역할을 강하게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점매도의 기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후 재정절벽의 해소와 함께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유로화나 엔화와 같은 선진국 통화들 대비 강세를 보이겠지만 이머징 통화들 대비해서는 캐리트레이드의 영향

을 받아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달러/원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캐리트레이드와 엔캐리트레이드, 위안화 절상 그리고 경상 수지 흑자 등이 달러/원에게 하락 재료로 작용하겠지만 2012년보다는 재료로서의 강도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당국의 개입 기준 역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2012년 4분기보다는 달러/원의 하락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1,060원과 1,050원이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1,030원을 연중 저점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후 미 경제지표의 호조에 따른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 중단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달러/원이 반등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글로벌 증시 강세에 따른 위험통화 강세 요인도 공존하는 만큼 1,050원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24. 연간 거래 예상 범위: 1,030원~1,095원



자료: 로이터, 외환선물

2013년 국제 원유시장 전망

금년 국제유가는 유럽 재정위기, 지정학적 리스크, 美 재정절벽 등 다수 불확실성 상존으로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은 채 등락을 반복했다. 2013년에도 연초에는 현재의 박스권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 여건 개선 등 하방압력과 지정학적 리스크, OPEC 증산 중단 가능성, 저가 매수세 등 하방경직 요인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불확실성의 해소를 전제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가 바닥을 확인하고 회복 조짐이 가시화될 경우 그간 부진했던 수요가 회복되고, QE3 등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으로 투기자금 유입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유가 상승세가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와 美 재정절벽은 그레이스완(Grey Swan)으로서 단기 변동성 장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이란 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꼬리리스크(tail risk)로서 국제 원유시장을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1. 2012년 동향

■ 금년 국제유가, 다수 불확실성으로 등락을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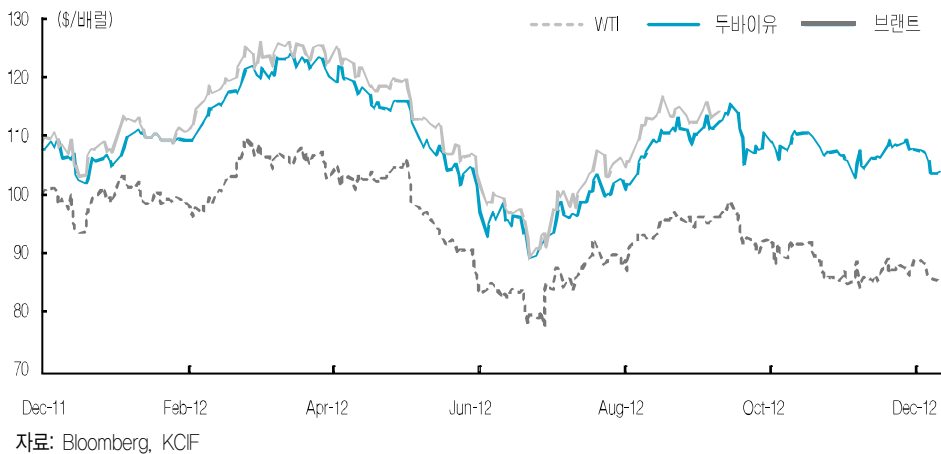
2012년 국제 원유시장에는 굵직한 이슈들이 유난히 많았던 것 같다. 먼저, 지난해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가 해를 넘겨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번지면서 유로존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란 핵 개발을 둘러싼 서방과 이란 간 갈등은 서방의 이란 원유 금수 등 제재 조치 발표,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협 등으로 확대되었고, 시리아의 내전 심화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중 하나로 자리매김 했다. 이 밖에 중국의 성장 둔화와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 미국의 QE3 및 재정절벽(fiscal cliff) 가능성, 비축유(SPR) 방출 논의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였다.

금년 국제유가는 이러한 이슈들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한 탓에 전체적으로 등락을 반

* 작성: 국제금융센터 오정석 부장(jsoh@kcif.or.kr)

복했을 뿐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했다. 두바이유는 이란 리스크가 불거진 3월 중순 124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가능성 등으로 6월에는 88달러로 하락했다. 이후 미국의 QE3 기대감 등에 힘입어 9월 중순 115달러를 회복하기도 했으나,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 합의 난항, 美 재정절벽 우려 등이 겹치면서 100~110달러 박스권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졌다. 두바이유는 금년 들어 12월 5일까지 2.4% 상승했는데, 2011년의 18.4%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그림 1. 2012년 국제유가 추이(daily)



2. 주요 이슈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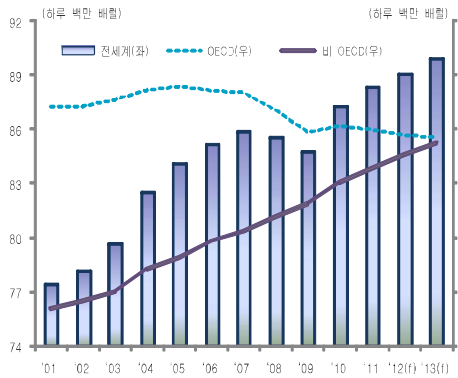
■ 글로벌 경기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수요 부진 예상

美 에너지정보청(EIA) 등 주요 기관들은 내년 전세계 원유 수요를 하루 9천만 배럴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금년보다 1% 정도 늘어난 것으로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회복기에 접어들었던 2010년의 증가율 3% 내외와 비하면 크게 둔화된 수치이다. 경제권역별로 살펴보면, OECD 수요가 금년에 1% 감소한 데 이어 내년에도 0.5% 감소하면서 전체 수요 부진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정위기 여파로 유럽의 수요가 2% 줄어들면서 전체 OECD 수요 감소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소비국인 미국의 수요가 소폭이나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그나마 위안이 된다. 반면 중

국 등 신흥국 수요는 금년(+2.8%)과 비슷한 수준인 2.5% 증가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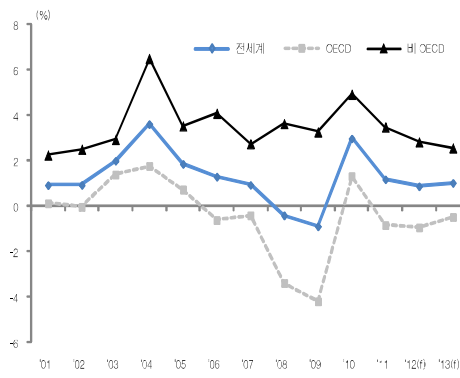
한편,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재정절벽 등 세계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으로 전세계 수요가 상기 예상보다 줄어드는 하방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OPEC은 유럽 경기 침체가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는 등 상황이 악화될 경우 내년 상반기 수요 증가 전망치를 최대 20% 정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림 2. 전세계 원유수요 추이



자료: EIA

그림 3. 경제권역별 수요 증가율 추이



자료: EIA, KC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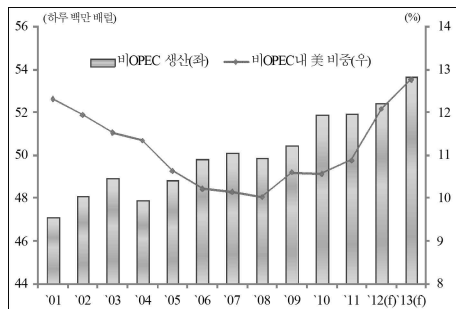
■ 비OPEC 생산 증가로 전세계 생산 견조한 증가세 예상

내년 전세계 원유 생산은 금년 대비 1%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비 OPEC의 생산 호조에 기인하는데, 주요 기관들은 하루 5,300만 배럴 내외로 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OPEC 생산은 그동안 기존 유전의 노후화와 신규 유전 개발 지연 등으로 생산이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09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오며 전세계 수급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비OPEC 중에서도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의 생산 호조가 두드러진다. 미국은 셰일오일, 캐나다는 오일샌드 등 비전통원유 생산이 크게 늘고 있으며, 채굴기술 발전과 더불어 향후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국의 원유 생산이 2020년에 하루 1,110만 배럴로 늘어나며 사우디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위 생산국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OPEC 생산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IEA가 내년 Call on OPEC⁸⁾을 금년보다 하루 40만 배럴 하향조정하는 등 OPEC의 생산 필요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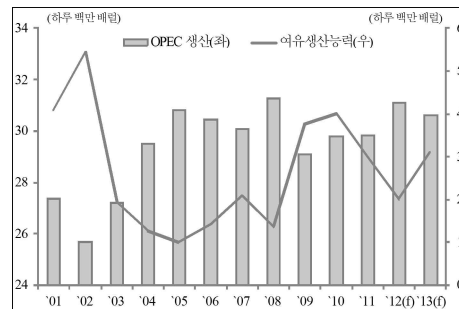
망되고, 금년 중 과도하게 늘어난 생산량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년 중 OPEC 생산은 지난해 보다 4.2% 증가했는데, 사우디가 30년 이래 최대 규모로 생산하며 서방의 제재에 따른 이란 생산의 큰 폭 축소를 상쇄했고, 리비아 생산도 내전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매장량이 풍부한 이라크도 정정불안을 던고 금년 하반기 이후 생산량이 하루 300만 배럴을 넘어섰다.

그림 4. 비OPEC 생산 및 미 비중



자료: EIA

그림 5. OPEC 생산 및 여유생산능력



자료: EIA

■ 지정학적 리스크, 내년에도 핵심 화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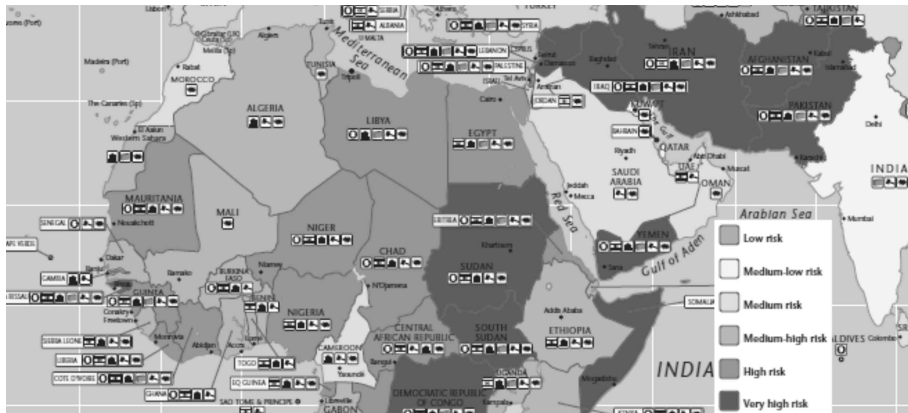
금년 국제원유시장 최대 불확실성 중 하나였던 이란 핵 문제가 결국 해결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되었다. 미국은 금년 7월 이란의 원유 금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방수권법안을 시행하였고, EU도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및 이란산 원유 운송수단에 대한 보험제공 중단이라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단행하였지만, 이란은 오히려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경고하는 등 강경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서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이란과 P5+1(UN 안보리 상임이사국+독일) 간 핵 협상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란 핵 문제가 내년에도 국제원유시장에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권 2기를 맞이한 오바마 대통령이 기존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견지할 것인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외교적 해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최근

8) Call on OPEC은 전세계 수요에서 비OPEC 생산과 OPEC NGLs(Natural Gas Liquids, 유전 및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액체천연가스로 석유화학의 원료로 사용)를 차감한 것으로 원유 수급 균형을 위한 OPEC의 생산 필요량을 의미함.

이란의 핵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하는 등 상황에 따라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선제 공습 가능성도 주요 관전 포인트이다.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 가능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스라엘이 설정한 레드라인(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다량의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는 시기, 내년 6월경)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란 핵 문제 해결에 별다른 진척이 없을 경우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란과 서방의 핵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지만 우라늄 농축 등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커 협상의 타결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중동아프리카 지정학적 리스크 현황



자료: Aon '2012 Political Risk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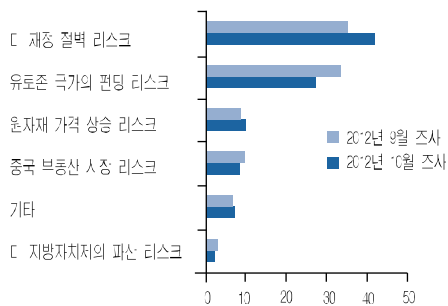
이란뿐만 아니라 여타 중동 및 아프리카 산유국들의 정정불안에도 주목해야 한다. 원유 생산량이 만만치 않아 자칫 전세계 수급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금년 3분기 기준 세계 5위 산유국인 이라크는 중앙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간 원유수출 통제권 및 수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언제든지 원유 수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리비아도 최근 생산량이 내전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과도정부의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지고, 지난 9월 美 영사관 피습과 같은 무장단체들의 테러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아 생산차질 우려가 상존하는 국가이다.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는 요주의 국가로 분류된다. 최대 무장반군세력인 MEND(니제르델타 해방운동)의 석유시설 공격이 이어지고 있으며 크고 작은 테러가 끊이지 않는 등 상시 정정불안 국가로 원유생산 차질 또한 빈번히 발생한다.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시리아는 금년 3분기 생산이 하루 16만 배럴에 불과하지만,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 터키 등 주변국들과는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

■ 유럽 재정위기, 美 재정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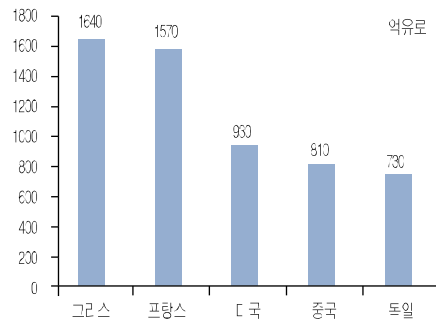
유럽 재정위기가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OMT)이 발표된 9월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 불안의 진앙지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의 10년 국채금리는 7월 중순 사상 최고인 7.6%에서 최근 5.3% 수준으로 떨어졌고, CDS 프리미엄도 642에서 290으로 하락했다. 또다른 위기국이었던 이탈리아의 국채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하며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국가 채무 및 경제체력 등을 감안했을 때 그리스가 내년 중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탈리아는 부채 문제에 최근 몬티 총리의 사임 계획 발표 등으로 정정불안마저 겹치는 상황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유럽 재정위기가 해결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유럽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어 원유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 7. 글로벌 투자위험 Survey



자료: BoA

그림 8. Grexit의 경제적 충격('13~'20)



자료: Bertelsman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문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느냐에 있다.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먼저, 빠른 시일 내 미국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재정절벽이 해결된다면 시장 안정이 이어지겠으나, 부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신용등급도 강등될 수 있어 긍정적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이다. 재정비탈(fiscal slope) 수준에서 타협안이 도출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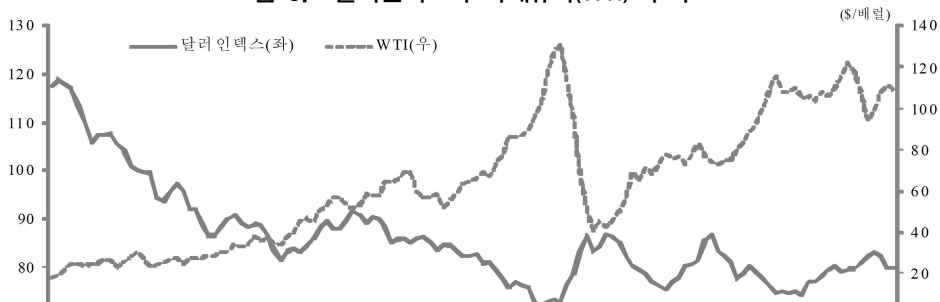
화될 것으로 보여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재정긴축이 불가피해 경기회복세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협상 실패로 재정절벽이 실현될 경우 급격한 긴축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침체되고 세계 경제 역시 동반 침체될 것으로 우려된다.

■ 달러화 움직임에도 주목해야

유가와 달러화는 역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혹자는 ‘달러 약세는 고유가의 거울’ 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달러화 정책을 통해 고유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금년에는 유럽 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 美 재정절벽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대두되는 바람에 원유시장에서 달러화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유가 전망을 위해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이슈이다.

달러화는 금년 들어 Risk-On/Risk-Off 현상(리스크 요인에 따른 시장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최근 이탈리아 정정불안,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 등 유럽 위기가 재부상하고, 미국의 경제지표도 호전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달러화의 매력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으나, 불확실성이 여전해 전체적으로 박스권 움직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달러가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에 좀 더 비중을 뒤편할 것 같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내성이 강화되고, 미국 재정절벽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타협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경우 안전자산으로서 달러화 수요가 점차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Fed의 유동성 공급 확대 등 추가 부양노력이 지속된다면 달러화 약세 전환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림 9. 달러인덱스와 국제유가(WTI) 추이



주: 월 평균 가격임.
자료: Bloomberg

3. 2013년 국제유가 전망

■ 박스권 움직임 지속 후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

앞서 살펴본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종합하면, 내년 초에는 현재의 박스권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 부진 및 공급 확대로 개선된 수급여건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이란 등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OPEC의 증산 중단 가능성, 풍부한 유동성을 배경으로 하는 저가 매수세 등 하방경직성 요인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여유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가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량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전망도 박스권 움직임을 유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사우디는 적정 유가 수준을 배럴당 100달러로 평가하고 있어 유가가 이를 크게 하회할 경우 적극적인 감산을, 반대로 큰 폭으로 상회할 경우 증산을 단행하면서 유가 안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연초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서서히 해소된다는 전제 하에 유가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투자심리도 회복되면서 원유 등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될 경우 재고 재구축(restocking) 수요와 투기자금 유입이 확대되며 유가 상승세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 그레이스완, Tail Risk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내년에도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변동성을 확대시킬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재정위기와 美 재정절벽은 그레이스완(Grey Swan), 즉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나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이슈라는 측면에서 유가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보다는 상황 변화에 따라 단기적인 변동성 장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핵 문제 등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는 tail risk로서 원유시장을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요인이다. Tail risk가 현실화될 경우 원유공급에 대규모 차질이 발생하여 유가가 급등하는 등 단기적으로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3년 국제 곡물가격 전망

2013년 상반기 대두와 옥수수 가격은 미산 수확 물량에 따른 공급 우려 해소와 남미 국가들의 파종면적 및 생산량 증가 전망에 따른 공급 여건 개선 기대감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재고 수준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기본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한 하방 경직성은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상반기 남미의 수확이 지연되거나 예상에 못 미치는 생산량이 나올 경우, 내년도 미국의 가뭄 상황이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추가적인 가격 급등세가 연출될 시나리오도 예상된다. 한편 흑해, 호주,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에 대한 불확실성과 수출제한조치 우려는 한동안 밀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1. 2012년도 주요 곡물가격 요약

2011년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종료 및 그리스로 시작된 유로존 재정위기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으로 확산되면서 곡물 선물가격은 주요지지대가 붕괴되면서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미국 텍사스의 가뭄 심화 등 날씨 변수에 따른 수급 우려가 추가 하락이 제한받는 모습을 보인다. 잇따른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나오면서 2011년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곡물 가격은 연말 남미 국가들의 날씨 변수(가뭄심화)와 더불어 2012년 들어 미국의 역대 최악의 가뭄이 이슈화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급등장세를 연출하였다.

2012년 옥수수와 대두의 파종 면적은 파종에 우호적인 날씨 상황으로 이른 파종이 이루어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 미국 옥수수 파종면적은 9,640만 에이커로 1937년 기록한 9,720만 에이커 파종 이래 75년 만에 최대수준(역대 최고치)으로 발표되었으며 대두 파종면적 역시 7,610만 에이커(역대 세번째로 높은 파종면적)로 발표되었다. 반면 미국 봄밀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하여 3% 감소한 1,200만 에이

* 작성: (주)외환선물 한성민 차장(sun@kebf.com)

커로 발표되었다. 이는 밀의 경우 세계적으로 재고상황이 여유있는 편이라 미산 밀이 가격 경쟁력을 갖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올 봄 이른 기온 상승으로 옥수수 파종에 매우 적합한 여건을 만들면서 옥수수 파종 진행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고, 많은 지역에서 봄밀 대신 옥수수가 파종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2012년 미 옥수수의 경우 파종면적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최근 10년 내 최대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기존 타이트한 구곡 재고 상황 때문에 차후 재고량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었으며, 결정적으로 1956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던 미국의 가뭄으로 인한 대두와 옥수수 생산량 하향조정으로 인해 곡물가격은 급등세로 전환되었고 8월 말 전후로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였다. 미국 FOMC의 3차 양적완화 단행도 곡물가격의 지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3분기 수확 시즌에 들어서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의 경작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단기 급등 이후 일부 조정물량이 유입되면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1. 2012 US Principal Crop Acre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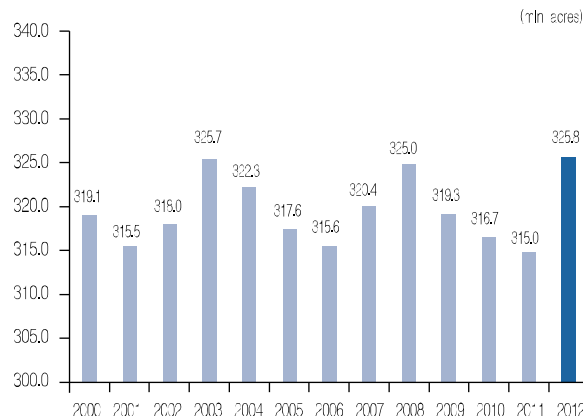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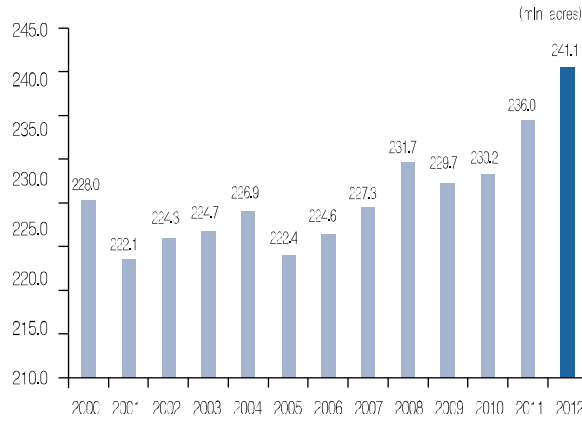


그림 2. 2012 Projecting Record 4-Crop Planted Acreage



2. 2013년 주요 곡물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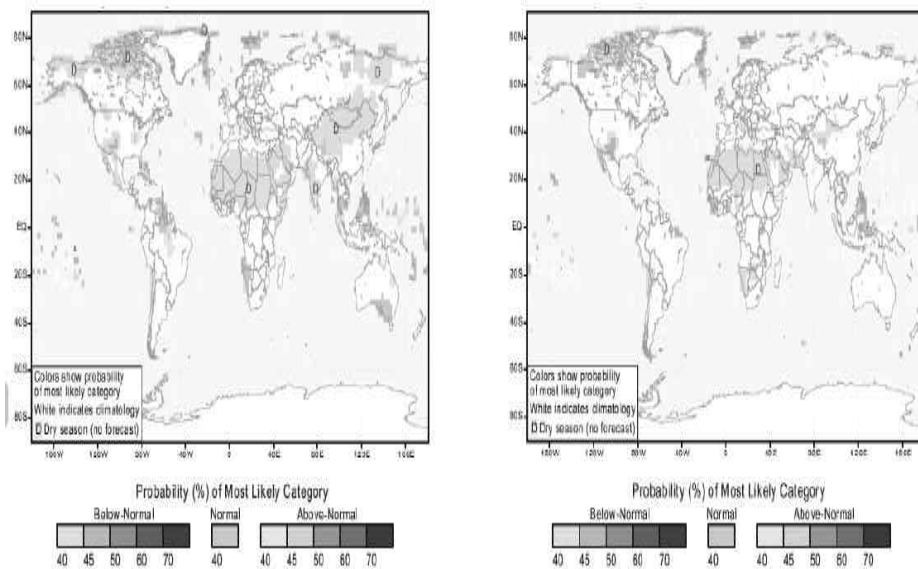
2013년 상반기 대두와 옥수수 가격은 미산 수확물량에 따른 공급우려 해소와 남미 국가들의 파종면적 및 생산량 증가 전망에 따른 공급 여건 개선 기대감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재고 수준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기본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한 하방 경직성은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상반기 남미의 수확이 지연되거나 예상에 못 미치는 생산량이 나올 경우, 내년도 미국의 가뭄 상황이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추가적인 가격 급등세가 연출될 시나리오도 예상된다. 한편 흑해, 호주, 아르헨티나 밀 생산량에 대한 불확실성과 수출 제한 조치 우려는 한동안 밀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12/13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는 8억 4,909만 톤으로 전년도 8억 8,175만 톤에 비해 약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세계 기말재고율 역시 13.6%에 그치며 전년도(11/12년도)14.9%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글로벌 수급 우려는 201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최악의 가뭄을 겪은 이후 현재 USDA가 예측하고 있는 미산 옥수수 단수 전망치는 에이커당 122.3부셸 수준으로 지난 95/96년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당초 시장 예상보다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지만 미국 옥수수 생산량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다. 한편 파종면적 증가로 긍정적인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남미 국가들을 살펴보면 최근 아르헨티

나 옥수수 파종기간 중 많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 발생으로 인한 파종이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브라질 역시 대두와 옥수수 파종에 대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향후 단수 감소 및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공급 우려에도 관심이 요구된다. 현재 남미 옥수수 파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작 면적은 전년대비 약 6%,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13년도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는 전년대비 약 13%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미국 옥수수 파종면적 예상치는 12/13년도 파종면적인 9,690만 에이커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13년도 미국 옥수수 기말재고율은 전년도 7.9%보다 감소한 5.8% 수준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15%의 에탄올이 포함된 연료(E15) 구매안을 지지하면서 2013년도 에탄올용 옥수수 수요량은 전년도 3억 4700만 부셸보다 상승한 5억 부셸 수준으로 미국 가솔린 수요 둔화와 에탄올 수요 증가 둔화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옥수수 소비 감소가 차후 상반기 옥수수 가격 안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국 Corn Belt 지역의 토양수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파종시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날씨 변수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옥수수 가격에 가장 큰 가격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2013년 1월~3월/3월~6월 세계 강수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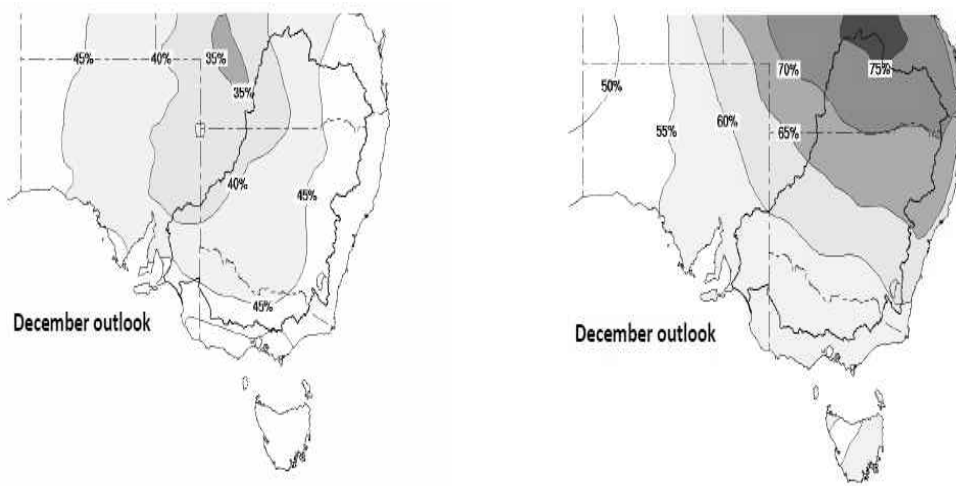
12/13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 전망치는 2억 6,760만 톤으로 전년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 주요 대두 생산국들의 생산 증가 전망이 잇따라 나오면서 내년도 상반기 대두 가격 안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9월 USDA의 미국 대두 단수 전망치는 에이커당 35.3부셸로 전망하면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후 콘벨트 동부를 중심으로 내린 비가 기뭇해 같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 최근 단수 전망치는 에이커당 39.3 부셸 수준까지 개선되면서 대두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대두 파종 지연과 더불어 브라질의 건조한 날씨 상황이 지속됨에 따른 공급 우려는 여전히 대두 가격의 지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수급이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이며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 가능성에 따른 대두 수요 증가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1/12년도 남미산 대두 생산량 감소로 미산 대두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 대두 기말재고율은 4.5%까지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한 미산 대두 가격 상승으로 일부 수입국가들의 수입물량이 남미로 대체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올해 대두가격이 역대 최고수준을 경신하는 등 강세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내년도 미국 대두 파종면적 역시 올해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되며 13/14년도 미국 대두 파종면적은 7,900만 에이커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대두 소비량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실제 미국 대두 재고율은 4.5~5.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종면적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생산 전망과 전년도와 같은 기상이변이 없는 한 남미 대두 생산량 역시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으나 하락폭은 제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는 전년대비 약 13%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미국 옥수수 파종면적 예상치는 12/13년도 파종면적인 9,690만 에이커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13년도 세계 밀 생산량 전망치는 6억 5,143만 톤으로 전년대비 약 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호주의 밀 생산량 전망치가 전년대비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러시아의 밀 생산량 전망치는 전년도 5,623만 톤보다 급감한 3,800만 톤, 우크라이나 역시 전년도 2,212만 톤보다 급감한 1,550만 톤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호주의 밀 생산량 전망치 역시 엘니노 영향으로 전년도 2,992만 톤보다 하회한 2,200만 톤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국가별로 생산량 감소율(%)을 살펴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이 각각 -32%, -31%, -30%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호주와 아르헨티나가 각각 전년대비 -19%, -4%의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세계 밀 기말재고율은 26.3%로 전년도 28%와 비교하여 소폭 감소한 수준으로 예상된

다. 호주 서부지역의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추가적인 생산량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12월에 발표된 USDA의 수급보고서상 호주 밀 생산량 전망치는 ABARES의 전망치보다 100만 톤 감소한 수준이었다. 다만 12/13년도 미국 밀 생산량 전망치는 전년대비 약 13.5% 증가한 6,176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부 공급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입국들의 수입 동향은 최근 흑해산 밀에서 미산 밀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미산 밀 기말재고율은 28.9%를 유지하며, 최근 10년 평균보다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2012년 12월~2013년 3월 강우량 및 기온 전망



part

03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2012 World Grain Market



해외곡물시장 뉴스 / 97

그래픽으로 보는 해외곡물시장 / 113

해외곡물시장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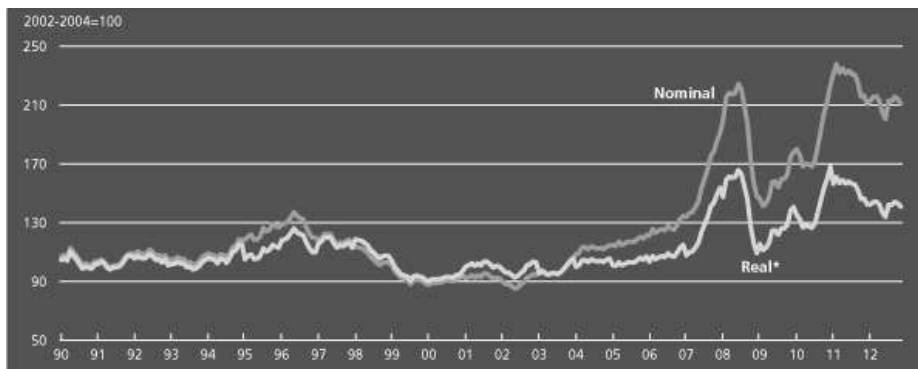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p>미국 11월, 대두가공품 생산량 3년 만의 최대치 가둠으로 미국 대두의 단백질 함유율 저하 EPA, 에탄올 의무사용량 고수하기로 결정</p> <p>캐나다 밀 생산량, 16년 만에 두 번째로 많은 수준 캐나다산 대두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p>	<p>브라질 브라질 남부지역의 대두 단수 감소 예상 독일산 밀 구매 가능성 존재</p> <p>아르헨티나 3월 예정이었던 옥수수 수확 5~6월로 미뤄질 듯 곰팡이성 질병으로 밀 품질 하락</p> <p>파라과이 곡물수출세 부과 검토 중</p>
아시아	유럽
<p>중국 9년 연속 식량생산량 증가 흑룡강성 대두 재배면적 감소 추세 세계 2위 종자시장으로 급부상</p> <p>인도네시아 밀가루 긴급 관세 20% 부과</p> <p>필리핀 2013년 말까지 쌀 자급자족 목표</p>	<p>러시아 곡물 수출가능물량 50% 초과 전망</p> <p>우크라이나 옥수수 수출 제한 가능 밀 수출 중단 준비 중</p>

■ 2012년 11월 FAO 식량가격지수 전월보다 1.5% 하락

2012년 11월 FAO 식량가격지수는 211p로서 지난달보다 3p(-1.5%) 하락하였으며 2012년 6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FAO 식량가격지수가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한 원인은 유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국제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유제품 가격지수가 지난달보다 0.5% 상승한 반면 곡물, 유지류, 육류, 설탕은 각각 1.5%, 2.9%, 0.7%, 4.8% 하락하였다.

1990~2012년 FAO 식량가격지수



주: 실질가격지수는 명목가격지수를 세계은행 제조업단가지수(Manufactures Unit Value index)를 기준치로 하여 조정한 것임.
 자료: <http://www.fao.org>

11월 FAO 곡물가격지수는 쌀과 밀 가격이 하락하여 지난달보다 4p(-1.5%) 하락한 256p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27p(+12.0%) 높은 수준이지만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 4월의 274p보다는 18p(-6.6%) 낮은 수준이다. 쌀은 수출 공급량이 충분하였고 밀은 11월 초 우크라이나가 수출금지조치를 철회하여 가격이 하락한 반면, 옥수수는 남미의 기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가격이 상승하였다. 11월 FAO 유지류가격 지수는 지난달보다 6p(-2.9%) 하락한 200p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하락하였다. 유지류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생산량 증대와 수입 수요 감소에 따른 팜유의 재고량 증가이다. 또한 예상보다 높은 미국의 대두 단수, 유채씨유와 해바라기씨유 생산량 증가, 세계 경제성장 둔화 우려 등이 유지류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1월 FAO 육류가격지수는 지난달보다 1p(-0.7%) 하락한 175p를 기록하였다. 이는 사료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대비 3.5% 하락한 수준이다. 돼지고기 가격이 2.2%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육류 가격은 10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11월 FAO 유제품가격 지수는 195p로서 지난달보다 1p(+0.5%) 상승하였다. 유제품가격지수는 지난 7월 최저

치(173p)를 기록한 이후 불확실한 공급 전망과 수요 증대로 인하여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남반구 수출국의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1월 FAO 설탕가격지수는 지난달보다 14p(-4.8%) 하락한 274p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65p(-19.2%) 하락한 수준이다. 최근 설탕가격 하락은 세계 최대 설탕 수출국인 브라질이 수출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되기 때문이다.

1990~2012년 FAO 식량가격지수(2002-2004=100)

시기	식량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1990	105.4	97.7	74.0	124.0	74.8	178.1
1991	103.6	97.1	79.1	125.4	79.6	127.2
1992	108.5	102.5	84.3	125.2	95.4	128.5
1993	104.6	99.5	86.0	118.1	84.6	142.2
1994	110.6	104.5	113.4	115.0	82.3	171.8
1995	123.2	119.3	125.0	118.4	109.6	188.5
1996	129.1	140.8	111.2	128.4	109.4	169.7
1997	118.5	112.4	112.5	123.2	105.1	161.4
1998	107.1	99.9	129.9	103.2	99.1	126.6
1999	92.4	90.6	91.6	97.8	86.3	89.0
2000	90.4	85.2	67.8	95.8	95.4	116.1
2001	93.4	86.5	67.6	96.5	107.1	122.6
2002	89.9	94.4	87.0	89.5	82.2	97.8
2003	97.7	98.1	100.8	96.8	95.1	100.6
2004	112.4	107.5	112.2	113.7	122.6	101.7
2005	117.3	103.5	103.6	120.1	135.4	140.3
2006	126.7	121.7	112.5	118.5	128.0	209.6
2007	158.7	166.9	170.0	125.1	212.4	143.0
2008	199.8	237.8	227.2	153.2	219.6	181.6
2009	156.9	173.7	150.9	132.9	141.6	257.3
2010	185.3	182.6	194.2	152.2	200.4	302.0
2011	227.6	246.8	252.3	176.6	220.5	368.9
2012/1	212.8	222.7	233.7	174.2	206.8	334.3
2012/2	215.6	226.3	238.7	178.1	202.0	342.3
2012/3	216.0	227.8	244.9	178.0	197.0	341.9
2012/4	213.0	223.3	251.0	179.6	185.6	324.0
2012/5	204.7	221.3	233.8	175.0	176.1	294.6
2012/6	200.4	222.1	220.7	169.5	173.4	290.4
2012/7	212.9	260.2	226.1	166.8	172.9	324.3
2012/8	212.5	259.9	226.0	170.5	175.6	296.2
2012/9	215.7	262.6	224.7	174.9	187.7	283.7
2012/10	214.1	259.5	206.4	176.0	194.0	288.2
2012/11	210.9	255.6	200.4	174.7	195.0	274.4

자료: <http://www.fao.org>

■ 11월, 미국 대두가공품 생산량 3년 만의 최대치

11월, 미국의 대두가공업자들은 약 1억 5,730만 부셀의 대두를 가공하였다. 국립유지가공협회(NOPA, National Oilseed Processors Association)에 따르면 이는 대두박 수출량이 기록적인 수준이었던 2009/10유통년도 이후 최대 생산량이다. 현재 대두가공업자들은 대두박에 대한 높은 수요에 발맞추어 대두가공품 생산을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다.

대두박 생산량은 10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올해 여름 가뭄으로 인하여 미국 대두의 단백질 함유율이 2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대두유에 비해 대두박 수요가 더 높아 대두유 재고량이 전년대비 약 29% 증가한 23억 8,400만 파운드에 달하였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금번 유통년도(10월~9월)의 미국 대두 재고량은 9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미국의 대두가공품 생산 속도는 2013년 초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수확을 시작하기 전까지 높은 속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14일 USDA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3년 만의 최대치인 305만 톤의 대두박을 수출하였다.

■ 가뭄으로 미국 대두의 단백질 함유율 저하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가뭄은 곡물의 생산량뿐만 아니라 품질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대두의 단백질 함유율이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대두에서 대두박으로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평균보다 확연히 적어 졌다. 이는 7월 동안 가뭄의 여파로 대두의 생육 발달과정 중 질소고정(nitrogen fixation: 생물이 대기에 존재하는 분자상 질소를 고정하고 이를 질소원으로 하여 동화하는 현상)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가뭄 피해를 입은 농지의 질소 함유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단백질 함유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 대두는 대두유의 주성분은 더 많아졌다. 아이오와 주립대학 농경제학자들의 전망에 따르면 대두의 평균 단백질 함량은 35~36%이지만, 미국 대두의 단백질 수준은 전체 중량의 33~34%에 불과할 것이라고 한다. 반면 대두유 함량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량의 19.5~20%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향후 수 개월간 대두가 대두박 및 대두유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생산할 수 있는 대두박 물량에 큰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립유지류가공협회(NOPA) 보고서에 의하면 9월 평균 대두박 생산량은 2년 만의 최저 수준인 부셀당 47.5파운드였다.

■ 미국 환경보호청(EPA), 에탄올 의무사용량 고수하기로 결정

미국 중서부지역의 가뭄 피해로 사료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축산업자들의 수익성이 급감하였다. 이에 따라 조지아와 뉴멕시코의 주지사들은 지난 8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에탄올 의무사용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EPA는 에탄올의무사용량이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에탄올의무사용량의 유예로 인해 얻게 되는 옥수수 가격 하락의 효과가 겨우 1%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EPA의 부행정관 지나 맥카시(Gina McCarthy)는 “올해 가뭄으로 일부 경제 부문, 특히 축산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EPA 조사 결과 재생가능연료기준을 유예하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에탄올의무사용량은 132억 갤런이며 이를 위해 미국 옥수수 생산량의 40%가 에탄올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EPA가 에탄올 의무사용조항에 대한 유예 요청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2008년 텍사스주는 에탄올 의무사용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EPA는 이를 기각했었다. 에탄올 의무사용조항을 유지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것은 아처 다니엘스미드랜드(Archer Daniels Midland), 포엣(POET) 등 에탄올 생산기업이다.

11월 16일 시카고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은 EPA가 에탄올 의무사용량을 고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장 초반의 하락세를 딛고 반등하여 전일대비 2달러 상승한 톤당 286달러로 정산되었다.

■ 캐나다산 대두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

캐나다곡물위원회에 따르면 2012/13년도 8월~10월 3개월 동안 캐나다의 누적 대두 수출량은 86만 8,300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이며, 이 가운데 약 2/3에 해당하는 53만 8,000톤이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2011/12년도 중국이 캐나다에서 구입한 대두가 16만 6,000톤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물량이다.

12월 초 캐나다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012/13년도 대두 생산량은 490만 톤이고 옥수수 생산량은 1,310만 톤이다. 이는 미국 및 남미의 생산량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나 올해 미국의 곡물 생산량이 가뭄으로 인해 4년 만의 최저 수준이 된 이후 수입국들이 내년 초 남미의 수확기 이전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캐나다 가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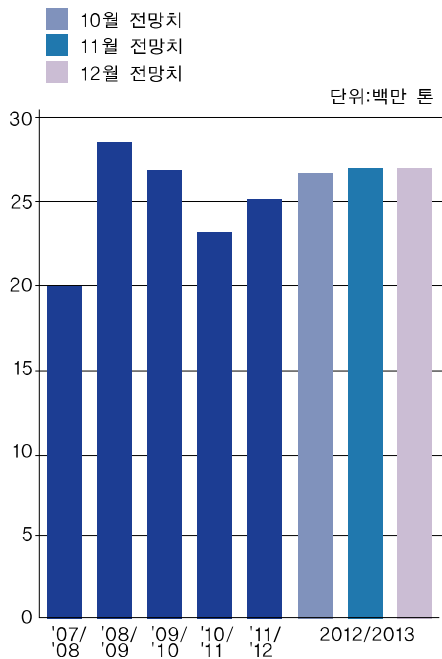
이에 따라 캐나다의 선적패턴도 변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는 미국을 통해 대두를 수출하지만 2012년 10월 캐나다의 수출업자들은 캐나다 서부해안(Port Metro Vancouver)에서 대두 11만 6,000톤을 직접 선적하였다. 캐나다 서부해안을 통한 선적은 4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없었으나 2011/12년 14만 8,000톤까지 증가하였다.

■ 캐나다 밀 생산량, 16년 만에 두 번째로 많은 수준

12월 5일 발표된 캐나다 통계국의 2012/13년도 생산량 보고서에 의하면 캐나다의 밀 생산량이 16년 만에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라고 한다. 캐나다는 세계 3위의 밀 수출 국가로서, 이는 다른 세계 주요 밀 생산국들이 작황 악화 우려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소식이다. 미국의 겨울밀 재배지역은 건조한 반면 아르헨티나는 호우로 작황 피해가 있고 호주 및 흑해연안지역의 생산량도 급감했다.

캐나다 통계국에 따르면 2012년 캐나다 전체 밀 생산량 2,720만 톤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하고 캐나다 통계국 추정치(10월 4일 기준)보다 2% 높은 수준이다.

캐나다 밀 생산량



자료: 로이터통신(12월 6일)

■ 브라질 남부지역의 대두 작황에 따라 전체 생산량 전망치 감소 가능성 존재

현재까지 브라질의 최대 대두 생산지역인 중서부지역의 기후조건은 평년 수준이므로 단수 하락의 우려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브라질 대두 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남부지역의 토양수분함량은 2011년 가뭄 당시보다도 대폭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남부지역 대두의 단수 하락으로 인해 브라질의 전체 대두 생산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무역업자들이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을 전망하고자 할 때 브라질 최대의 대두 생산지역인 중서부지역 즉 마토그루수, 마토그루수두술, 고이아스만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지만 이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브라질 남부지역은 대두 생산량의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브라질 전체 대두 생산량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1년은 브라질 남부가 전체 대두 생산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2011년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은 남부지역 가뭄 피해로 인해 전년대비 약 12% 감소하였고 남부지역의 대두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35% 감소하였다. 반면 중서부지역의 대두 생산량은 사실상 전년대비 2% 증가하였다. 따라서 중서부지역의 상황만을 주시하던 무역업자들은 2011년 브라질 대두의 전반적인 작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브라질은 생산량이 전년대비 급증한 경우, 대부분 중서부지역이 아닌 남부지역 생산량 증가로 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무역업자들은 중서부지역만큼 남부지역의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브라질 남부지역의 가뭄은 정기적으로 많은 강수량이 공급되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 남부지역에서 대두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빠라냐(2011년 브라질 대두의 16% 생산)의 토양수분함량은 전년대비 20% 이상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막 파종한 대두는 향후 생육발달기 동안 충분한 비가 내려 수분을 공급해주기만을 기대해야할 것이다. 남부지역의 또다른 대두 주산지인 리오그란데두술과 산타카타리나의 토양수분량 역시 2011년 가뭄 당시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므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많은 양의 비가 내려줘야 한다.

브라질 중서부지역의 작황만을 주시하는 무역업자들은 현재까지 브라질 대두의 작황이 양호하다고 생각할 것이나 사실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대두 생산량이 많은 남부지역의 수분 수준이 낮기 때문에 대두 생육발달기 동안 충분한 양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대두 생산량은 전망치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브라질, 독일산 밀 구매 가능성

브라질의 주요 밀 수입국은 아르헨티나지만 최근 브라질이 독일로부터 밀을 구매했는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곡물애널리스트인 Noel Fryer에 따르면 독일산 밀이 선적된 최소 1척 이상의 선박이 곧 브라질로 향할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또다른 유럽 애널리스트는 독일산 밀 5만 톤이 곧 선적을 위해 함부르크에 도착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한 무역업자는 물량이 알려지지 않은 1월/2월 선적 예정인 독일산 밀 2척분이 브라질로 수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남미산 밀과 혼합하여 남미산 밀을 제분용 등급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수개월간 호우로 인해 밀 단수가 감소하고 품질이 저하되었다. 무역업자들은 브라질의 독일산 밀 수입 소식에 대해 아직 세부내용은 불투명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하였지만, 브라질이 올해 아르헨티나로부터 고품질 밀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른 공급 국가를 찾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이 모두 기후로 인해 감소한 가운데 최근 수 주 사이에 유럽산 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주 주간 EU 수출허가물량은 2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현재 함부르크 기준 독일산 표준 밀 가격은 파리 기준 밀 가격에 비해 톤당 10달러나 더 높다. 11월 23일 1월물 밀 선물가격(파리 기준)은 톤당 270유로이다.

■ 3월 수확 예정이었던 아르헨티나 옥수수 5~6월에나 수확될 듯

아르헨티나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옥수수 수출국이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옥수수가 홍수 피해로 인해 예상보다 늦게 수확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국들은 미국산 옥수수에 장기간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세계 식량가격도 현재보다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생산농가들은 곡창지대인 팜파스(Pampas)에 8월부터 10월까지 비가 과도하게 내려 파종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옥수수 생산량은 이전 전망치에 비해 2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팜파스 지역의 많은 부분이 물에 잠겨 아르헨티나 옥수수는 평년보다 3개월 늦은 12월에나 파종이 완료될 것이므로 수확은 5~6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옥수수산업회의소(Maizar)의 사무국장 Martin Fraguio에 따르면 올해 5월과 6월 수확이 진행될 것 같으며 2012/13년 아르헨티나 옥

수수 생산량은 2,500~2,800만 톤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뭄 피해로 인해 초기 전망치보다 약 1억 톤이 감소한 미국 옥수수 생산량(2억 7,200만 톤)의 부족분을 보충하기에는 부족한 물량이다. 2011년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3억 2,300만 톤이었다.

세계 옥수수 공급량의 부족으로 인해 시카고거래소(CBOT)의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년대비 최대 16%까지 상승했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게는 주요 식량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선진국에는 경기 부양에 어려움을 주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야기하였다. 세계 옥수수 시장은 아르헨티나 옥수수가 통상적으로 수확되는 3월까지 미국산 옥수수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아르헨티나 옥수수 수확이 늦어지면서 이제 5~6월까지 미국산 옥수수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옥수수 수출할당제에 대해 이전의 점진적 증가 할당체계에 서 1년치 할당량확정체제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이전 수출할당제에서는 구매자간 경쟁이 점차 감소하므로 옥수수 생산농가들이 빨리 판매해야할 유인이 있었지만 새로운 수출할당제 하에서는 옥수수를 빨리 판매하거나 빨리 파종할 필요가 없어졌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9월에 올해 옥수수 수출할당량이 1,500만 톤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국내 공급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수출량을 감소시킨 것이다.

아르헨티나 곡물거래소에 의하면 현재 아르헨티나의 2012/13년 옥수수 재배의향면적 340만 ha 중 50%만 파종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12%p 낮은 수준이다.

■ 곰팡이성 질병으로 아르헨티나 밀 품질 하락

아르헨티나 밀은 단백질을 없애는 붉은곰팡이(Fusarium)에 의한 피해를 받고 있다. 흉수 이후 곰팡이의 공격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밀은 생산량뿐만 아니라 품질 저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생산농가들이 밀에서 다른 작물로 작목을 전환함에 따라 올해 밀 파종면적 역시 24% 감소한 350만 ha로 추정된다. 현재 아르헨티나 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서 아르헨티나 최대 곡물시장인 로자리오 곡물거래소는 아직 수확량 추정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USDA는 아르헨티나 밀 생산량을 1,150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아르헨티나 밀의 44%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중부 및 남부에서 재배된다. 부에노스아이레스곡물거래소의 농경제학자인 Esteban Copati는 아르헨티나 밀 생산량이 1,11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밀벨트 주산지에서 곰팡이는 밀이 생식성장기에 진입한

이후에 발생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밀 생육성장 초기에 곰팡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의 밀 단수가 나쁘지 않아 다른 지역의 생산량 감소가 상쇄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파라과이, 곡물수출세 부과 검토 중

파라과이 상원은 12월 4일 대두, 옥수수, 밀 수출에 10% 수출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수출세 법안은 아직 하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생산농가들은 수출세가 부과되면 파라과이가 인근의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비해 곡물수출가격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Marcelo Duarte 상원에 의하면 이 법안은 파라과이의 신생 대두가공업을 보호하여 1차 생산품인 대두보다 대두박, 대두유와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수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수출세 지지자들은 파라과이 의회가 대선을 4개월 앞두고 12월 21일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현재 대부분의 대두를 가공 전 상태로 수출하고 있으며, ADM, Bunge, Louis Dreyfus가 대두가공공장을 열게 되면 2013년엔 최대 400만 톤의 대두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다. 파라과이는 전년에 가뭄 피해로 대두를 430만 톤밖에 생산하지 못했지만 2012/13년 대두 생산량 전망치는 84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생산농가들 및 애널리스트들은 수출세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수출업자들이 농가에 세금을 제외한 남은 금액만 지급하게 될 것이므로 생산농가들이 간접적으로 대두가공산업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형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즈 정부가 대두 수출세를 35%나 부과하여 오랫동안 생산농가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었다. 생산농가들은 수출세가 역진세이며 농업 부문에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중국, 2004년 이후 9년 연속 식량 생산 증가

중국의 식량 생산은 2004년 이후 9년 연속 증가하여 2012년 5억 8,957만 톤을 달성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1,836만 톤(3.2%) 증가한 수준이다. 품목별 생산량은 벼 2억 429만 톤, 밀 1억 2,058만 톤, 옥수수 2억 812만 톤으로 옥수수 생산량이 벼 생산량을 초과하여 최대 식량작물로 부상하였다.

2012년 중국 정부는 농업 부문 특히 식량 생산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다. 식

량 생산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고 식량 생산과 관련된 농업기술 지원으로 9년 연속 증산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다. 2012년 중국 식량 생산의 특징을 다음과 같다.

첫째,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다수확 작물의 재배면적을 증가시켰다.

2012년 중국의 식량 재배면적은 1억 1,127만 ha로 전년대비 69.4만 ha(0.6%) 증가하였다.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식량 재배면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약간 증가하였다. 주요 식량작물 가운데 벼와 옥수수 재배면적은 각각 3,030만 ha, 3,495만 ha로 전년대비 각각 24만 ha, 140.7만 ha 증가한 반면, 밀과 대두 재배면적은 각각 2,414만 ha, 718만 ha로 전년대비 각각 13.1만 ha, 71.2만 ha 감소하였다. 재배면적 증가로 인한 식량 생산량 증가분은 약 358만 톤이다.

둘째, 대부분 농업지역의 기후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단수가 향상되었다.

2012년 중국의 농업기상조건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북부농업지역은 봄 파종기간과 여름 파종 이후에 비가 많이 내려 작물 파종과 발아에 도움이 되었으며 여름에도 대부분 지역에 충분한 강수와 고온으로 옥수수와 벼 생육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올해 대부분 농업지역의 적산온도가 10℃ 이상으로 평년에 비해 높았으며 동북지역의 동부, 화북지역 대부분, 황회(黃淮) 등 지역은 전년 동기대비 100~200℃ 높았다. 이러한 충분한 강수와 적당한 온도 조건으로 식량작물 특히 옥수수의 단수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2012년 전국 식량작물의 평균 단수는 5,299kg/ha로 전년대비 ha당 133kg(2.6%) 증가하였다. 그 중 벼, 밀, 옥수수 단수는 각각 6,743kg/ha, 4,995kg/ha, 5,955kg/ha 이다. 단수 제고에 따른 식량 생산량의 증가분은 약 1,478만 톤이다.

셋째, 식량 생산에 대한 정부정책과 농업기술의 기여도가 높아졌다.

2012년 중국정부는 식량 생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강화하였다. 전국적으로 ‘식량안정증산운동(糧食穩定增產行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고 농업 4대 보조금(식량직불보조, 우량종보조, 농기계구입보조, 농자재종합보조)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밀과 벼의 최저수매가를 제고하였다. 올해 중앙 재정은 약 33억 위안의 자금을 농업기술 보급에 투입하였다.

넷째, 주산지의 생산량 증대가 뚜렷하였고 옥수수가 제1의 식량작물로 부상하였다.

2012년 13개 주산성(省)의 식량 총생산량은 4억 4,610만 톤으로 전년대비 1,188만 톤(2.7%) 증가하였으며, 전국 총생산량의 64.7%를 차지한다. 2012년 옥수수 생산량은 처음으로 벼 생산량을 383만 톤 초과하여 중국 제1의 식량작물로 부상하였다. 최근 10

년간 벼 생산량은 27% 증가한 반면 옥수수는 80% 증가하였고, 재배면적은 2007년부터 옥수수가 벼를 넘어섰다.

중국의 식량생산량 추이

연도	재배면적 (만 ha)	생산량 (만 톤)	전년대비 증감률(%)
2003	9,941	43,067	-5.8
2004	10,161	46,947	9.0
2005	10,428	48,402	3.1
2006	10,496	49,804	2.9
2007	10,564	50,160	0.7
2008	10,679	52,871	5.4
2009	10,899	53,082	0.4
2010	10,988	54,648	2.9
2011	11,057	57,121	4.5
2012	11,127	58,957	3.2

자료: 중국통계연감

■ 중국 흑룡강성 대두 재배면적 감소 추세

흑룡강성은 중국 최대 대두 주산지로서 2009년 기준 대두 재배면적은 401만 ha, 전국 919만 ha의 약 44%를 차지한다. 대두 재배면적 규모별로 보면, 흑룡강성 다음으로 안휘성 97만 ha, 내몽고 84만 ha 순이다. 최근 흑룡강성의 대두 재배면적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흑룡강성의 대두 재배면적은 240만 ha로 전년대비 30%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9년과 비교하면 40%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중국식량망(中國糧食網)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대두 재배면적은 700만 ha로 2012년 대비 약 33만 ha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두 생산량도 2012년 대비 10% 감소한 1,300만 톤으로 전망되었다.

전문가들은 대두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을 대두 재배농가들의 수익 하락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의 가뭄도 중국 대두산업에 영향을 미쳐 대두 재배농가의 수익성 하락을 야기하여 재배농가들은 옥수수로의 작목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흑룡강성의 보리현(勃利縣)의 경우, 현재 대두 재배면적은 2,000 ha로 2008년의 3만 ha와 비교하면 급감한 상태이다. 현재 국제 대두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아 흑룡강성의 대두가격 또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흑룡강성의 대두가격은 kg당 4.4~4.6위

안, 우수품질일 경우 4.8~5.0위안 수준이다. 대두 생산량의 감소 추세를 감안한다면 대두가격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대두 재배면적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대두산업의 발전 방향을 식품콩과 Non-GMO 식품에 주력하여 수입산과 차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Non-GMO 식품에 주력하기 위해 고지방, 고단백질 등 대두 품종을 연구개발하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대두와 옥수수 간의 가격차를 고려하여 가격보조정책을 시행한다면 대두 재배농가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대두 수입에 따른 원가 상승 압력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중국, 세계 제2위의 종자시장으로 급부상

2012년 중국의 종자시장 규모는 2000년 대비 25% 증가한 1,000억 위안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종자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중국내 종자기업은 약 7,000여 개로 주식회사와 민영기업이 대부분이다. 그 중 50대 종자기업의 총 매출액은 전체 종자시장 매출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벼와 옥수수는 50%를 넘어서고 있다. 중국 농업 부문에서 생산에 대한 우량종자의 기여도는 약 43% 수준이다. 향후 종자산업의 발전은 농업 생산의 안정적인 발전과 식량 생산량 증대에 있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 인도네시아, 밀가루 긴급관세 20% 부과

최근 인도네시아는 국내 제분산업을 수입 밀가루와의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해 200일 동안 밀가루에 20%의 긴급관세(emergency tariff: 주요 국내 산업의 긴급한 보호, 특정물품 수입의 긴급한 억제 등이 필요할 때 특정물품의 관세율을 높여서 부과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가 WTO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밀가루 생산자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어 잠정적 세이프가드조치가 긴급히 취해지지 않는다면 생산시설 폐쇄와 파산 등 복구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일시적인 긴급관세는 일국이 예상하지 못한 수입량 증가로 내수산업에 심각한 피해의 위협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WTO 규칙상 허용된다. 인도네시아 제분협회(APTINDO)는 국내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정부에 8월부터 수입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인도네시아 제분협회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2011년 밀 소비량은 600만 톤 이상이며 이 중 밀 550만 톤을 수입했고 밀가루도 68만 톤 수입했다. 인도네시아에 밀가루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터키이며, 인도네시아가 수입하는 물량의 60%는 터키산이고 30%는 스리랑카산, 그리고 나머지는 벨기에, 호주, 일본, 우크라이나산 이다.

■ 필리핀, 2013년 말까지 쌀 자급자족 목표

2010년 기준 세계 1위의 쌀 수입국이었던 필리핀은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쌀을 인근 국가인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였으나 2013년 말까지 쌀 자급자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지난 12월 3일 필리핀 농업부 장관이 필리핀의 국내 쌀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쌀 10만 톤 수입계획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혀 쌀 세계가격을 낮추는데 일조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 쌀 가격은 공급량이 충분하고 필리핀 등 주요 수입국들의 낮은 수요로 인해 향후 몇 년간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의 2011년과 2012년 쌀 수입량은 각각 86만 톤, 50만 톤이었다. 필리핀의 2012년과 2013년 쌀 생산량은 각각 1,800만 톤, 2,000만 톤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필리핀은 2013년부터 쌀을 수입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필리핀은 기후가 작황에 유리하고 정부가 관개시설 및 기타 농업 인프라 개선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어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필리핀 농업부 장관은 2013년부터 일부 특수미를 아랍에미리트와 미국에 수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후가 불리해지지 않는 한 자급자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필리핀의 농업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2013년까지 쌀을 자급자족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 러시아의 곡물 수출가능물량 50% 초과 전망

11월 21일 러시아의 농업부 차관 Ilya Shestakov는 러시아의 곡물 수출량이 2012/13년 1,550만 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1/12년의 최고치인 2,810만 톤에 비하면 절반 정도의 수준이지만 현재 러시아의 수출가능물량을 대폭 초과하는 수준이다. 당초 러시아는 밀, 보리, 옥수수 등 전체 곡물의 수출가능물량을 공식적으로 1,00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세계 3위의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최근 3년 동안 두 차례의 가뭄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출속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곡물의 약 1,100만 톤이 이미 수출되었다. 수입량이 증가한다 할지라도 러시아의 기말재고량은 600만 톤에 머물러 2013년 작황이 저조할 경우 이를 완충 작용할 물량이 부족하게 된다. 2011년 러시아의 기말재고량은 공식적으로 1,940만 톤이었다.

러시아 농업부 차관에 의하면 2012/13년 곡물 수입량은 120만 톤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러시아곡물연합(Grain Union) 회장인 Arkady Zlochevsky는 2012/13년 러시아의 곡물 수입량은 전년대비 70만 톤 증가한 120만~180만 톤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소브에콘(SovEcon) 애널리스트들은 러시아의 곡물 수입량이 2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의 밀 생산량이 가뭄으로 1/3 감소한 후 러시아의 국내 밀 가격은 현재 매우 높은 수준이다. 러시아 정부는 곡물가격을 낮추기 위해 10월 23일부터 정부 비축량 중에서 13만 톤을 매주 국내시장에 방출하고 있다.

러시아 농업부 차관에 의하면 러시아의 올해 밀 생산량은 2011년의 5,600만 톤에 비해 감소한 3,900만 톤이고 국내 수요량은 3,700만 톤이라고 한다. 또한 금번 유통연도 동안 러시아의 밀 수출량은 950만~1,000만 톤이며 밀 수입량은 50만~80만 톤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러시아는 2013년 밀 파종기인 올해 가을의 기후 역시 좋지 않아 러시아 농업부는 겨울밀 파종면적을 이전의 1,682만 ha에서 1,590만 ha로 하향 조정했다.

■ 우크라이나, 옥수수 수출 제한 가능

곡물분석기업 ProAgro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옥수수 재고량은 부족하지만 수요는 높은 상황이므로 2013년 봄부터 옥수수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우크라이나의 보리가 사실상 거의 없고 밀 수출금지가 실시되기 때문에 무역업자들의 관심은 온통 옥수수로 쏠려 옥수수 수출이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2011/12년 세계 4위의 옥수수 수출국이었으며 2012/13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의 2,270만 톤에 비해 적은 2,100만 톤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올해 옥수수 수출량은 1,400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애널리스트들은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수출량은 1,200만 톤을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수출량은 400만 톤이다.

지난 10월, 우크라이나의 농업부 장관 Mykola Prysyazhnyuk는 올해는 보리와 옥

수수에 대해 수출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 우크라이나, 밀 수출 중단 준비 중

우크라이나의 농업부 장관 Mykola Prysyazhnyuk는 지난 11월 민간 무역업자들과의 회의에서 무역업자들이 제분용 밀 수출을 감소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음을 발표하였다. 우크라이나 농업부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의 누적 제분용 밀 수출량이 520만 톤에 달하였고 농업부는 민간 무역업자들과 밀 550만 톤 이상은 수출하지 않기로 비공식적인 합의를 하였다.

우크라이나 농업부장관은 11월 15일부터 밀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10월에 발표했었고, 심각한 식량부족사태가 발생할 경우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같은 발언은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주수입국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세계 제 1위의 밀 수입국인 이집트는 2013년부터 우크라이나를 밀 공급국 목록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밝혔었다.

흑해연안지역에 위치한 우크라이나는 인접한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함께 주요 곡물수출국이며 2012년 밀 생산량의 1/3이 가뭄 피해를 입어 생산량 추정치가 1,500만 톤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우크라이나 무역업자들은 공식적인 수출금지조치를 선호하는데, 이는 비공식 수출장벽의 경우 일부 특혜를 받는 기업들만 이득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2010/11년 가뭄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우크라이나 정부는 세관의 형식 및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등 비공식적인 수출금지조치를 단행했었다. 당시 수출업자들은 수출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그래픽으로 보는 해외곡물시장 : 중국의 밀 소비시장

■ 제분용 밀 소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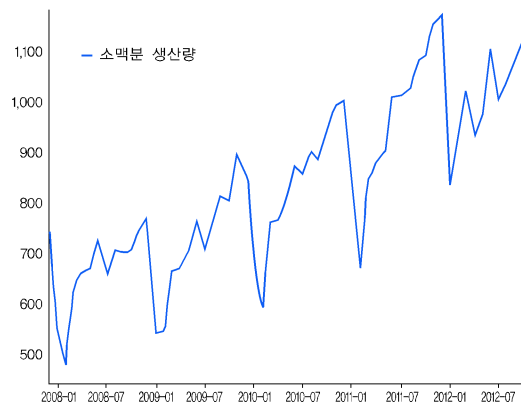
전국적으로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밀가루 소비가 더욱 늘어남에 따라 제분기업의 가동률 또한 다소 증가하였다. 2012년 1~10월 중국의 일정규모 이상 소맥분 가공기업의 생산량은 약 1억 54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7.8% 증가하였다. 그 중, 10월 소맥분 생산량은 약 1,124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 전월대비 3.1% 증가하였다.

2008~2012년 11월 중국의 밀기울 가격(위안/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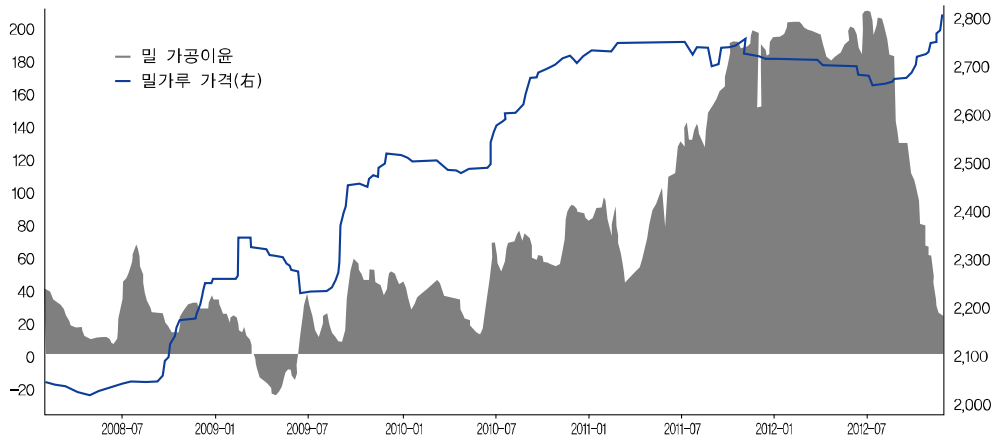
11월, 중국의 밀가루 전국 평균 가격은 2,764위안/톤, 밀기울 평균 가격은 1,658위안/톤이다. 밀가루 가격의 상승폭이 밀 가격 상승폭보다 작고 밀기울 가격이 큰 폭의 상승 없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여 밀가루의 가공이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밀가루 가공이윤은 11월 초의 60.1위안/톤에서 현재 24.85위안/톤까지 급격히 하락하였다.

2008~2012년 10월 중국의 소맥분 생산량(만 톤)



* 본 내용은 중국의 농산물수급전망기관인 BRIC농업컨설팅에서 2012년 12월 5일 발표한 “중국 밀 및 밀가루 시장 월보(小麦及面粉市场月报)”를 바탕으로 작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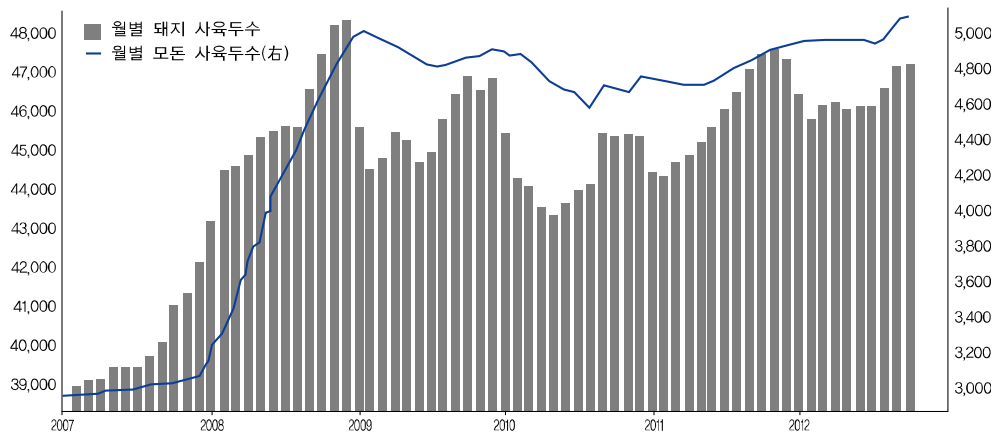
2008~2012년 11월 중국의 밀가루 가격 및 밀 가공이윤 추이(위안/톤)



■ 사료용 밀 소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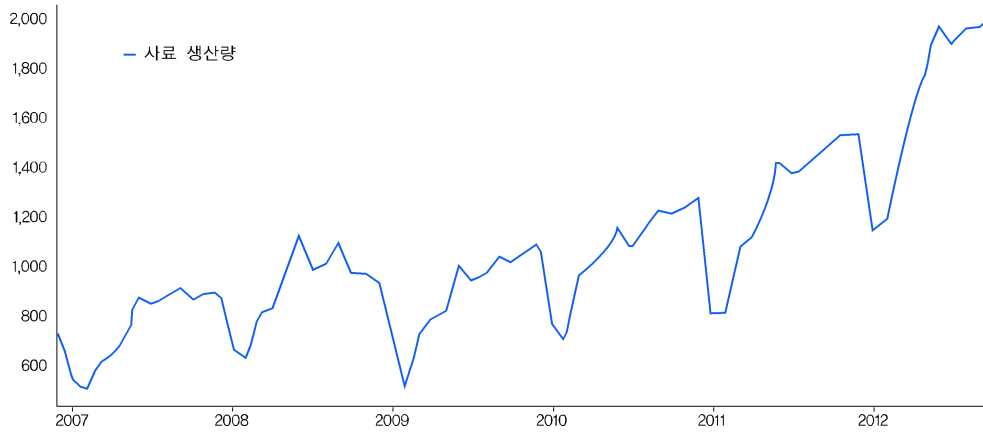
중국 농업부 통계에 따르면 10월 중국의 돼지 사육두수는 4억 7,282만 마리, 번식 가능한 모든 사육두수는 5,078만 마리이다. 11월 돼지가격은 소폭 상승하여 평균 14.33위안/kg이고, 현재 사육이윤은 마리당 102.85위안이다. 2012년 10월, 중국의 사료 생산량은 약 2,018만 톤으로 전월대비 2.9%, 전년 동기대비 35.3% 증가하였다.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의 사료 생산량은 1억 6,874만 톤(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9% 증가하였다.

2007~2012년 10월 중국의 돼지 및 모든 사육두수(만 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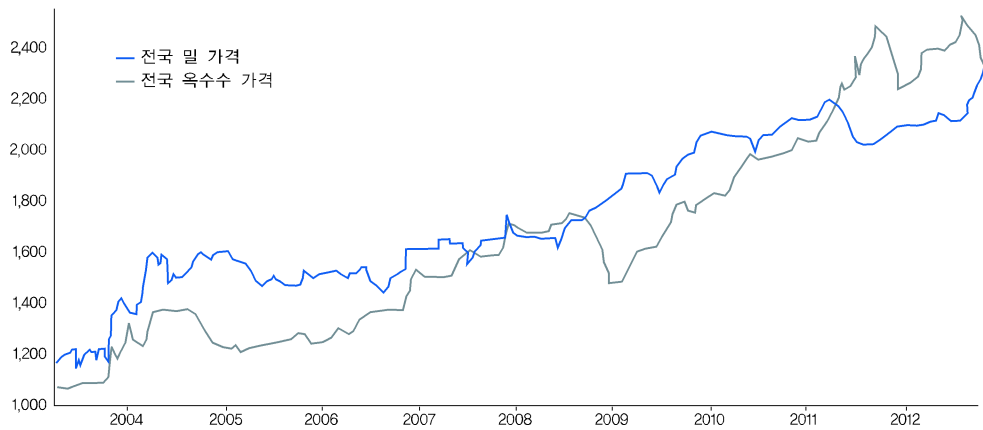


주산지의 옥수수과 밀 가격이 역전되면서 밀은 가격우위를 상실하였다. 11월 30일 기준, 화북 황회지역의 밀과 옥수수 가격차는 1.07:1로 톤당 100위안 정도 차이가 난다. 11월 옥수수를 대체한 밀 수량은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감소하였다.

2007~2012년 10월 중국의 사료 생산량(만 톤)



2003~2012년 11월 밀과 옥수수 가격 비교(위안/톤)



■ 중국의 지역별 밀 소비 현황

밀 소비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하남, 산둥, 허북, 안휘로 연간 소비량은 1,000만 톤 이상이다. 하남성의 2011/12년도 밀 소비량은 2,506.3만 톤으로 전체 소비량의 약

22%를 차지한다. 두 번째로 소비량이 많은 지역은 강소, 신강, 사천, 섬서로 연간 소비량은 500만 톤 이상 1,000만 톤 이하이다. 연간 소비량이 100만 톤 이상 500만 톤 이하인 지역은 호북, 감숙, 산서, 내몽고, 운남, 흑룡강, 영하, 귀주이고 나머지 지역의 연간 소비량은 100만 톤 미만이다.

2011/12년도 중국의 지역별 밀 수급 상황

단위: 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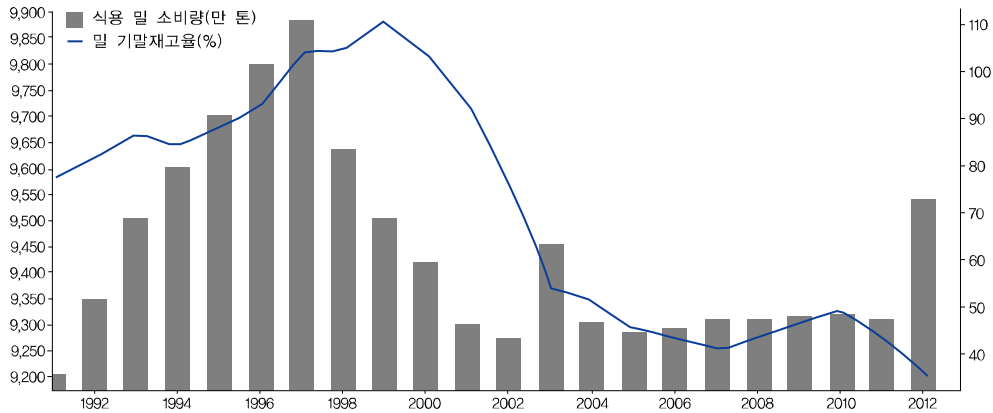
	생산량	소비량	구분			
			제분용	사료용	산업용	종자용
전국	11,580.0	11,567.0	9,312.0	625.0	1120.0	510.0
북경	31.2	28.9	23.2	1.6	2.8	1.3
천진	54.4	52.4	42.2	2.8	5.1	2.3
허베이	1237.2	1140.2	917.9	61.6	110.4	50.3
산서	212.4	346.4	278.9	18.7	33.5	15.3
내몽고	172.2	251.6	202.5	13.6	24.4	11.1
요녕	4.5	4.2	3.4	0.2	0.4	0.2
길림	1.0	2.0	1.6	0.1	0.2	0.1
흑룡강	117.0	139.6	112.4	7.5	13.5	6.2
상해	22.3	27.5	22.1	1.5	2.7	1.2
강소	1010.4	989.4	796.5	53.5	95.8	43.6
절강	23.4	28.8	23.1	1.6	2.8	1.3
안휘	1184.2	1121.6	902.9	60.6	108.6	49.5
복건	1.1	1.9	1.5	0.1	0.2	0.1
강서	1.9	4.8	3.8	0.3	0.5	0.2
산둥	2059.5	1688.2	1359.1	91.2	163.5	74.4
허남	3074.2	2506.3	2017.7	135.4	242.7	110.5
호북	333.6	473.1	380.8	25.6	45.8	20.9
호남	6.4	13.5	10.9	0.7	1.3	0.6
광둥	0.2	0.3	0.3	0.0	0.0	0.0
광서	0.6	1.9	1.5	0.1	0.2	0.1
해남	0.0	10.0	0.0	10.0	0.0	0.0
중경	52.0	80.1	64.5	4.3	7.8	3.5
사천	425.8	608.3	489.7	32.9	58.9	26.8
귀주	44.8	125.2	100.8	6.8	12.1	5.5
운남	92.8	205.9	165.8	11.1	19.9	9.1
서장	24.7	17.6	14.1	1.0	1.7	0.8
섬서	385.4	545.7	439.3	29.5	52.8	24.1
감숙	262.7	458.9	369.5	24.8	44.4	20.2
청해	39.3	49.6	39.9	2.7	4.8	2.2
영하	74.0	104.1	83.8	5.6	10.1	4.6
신강	630.9	549.4	442.3	29.7	53.2	24.2

주: 2011/12년도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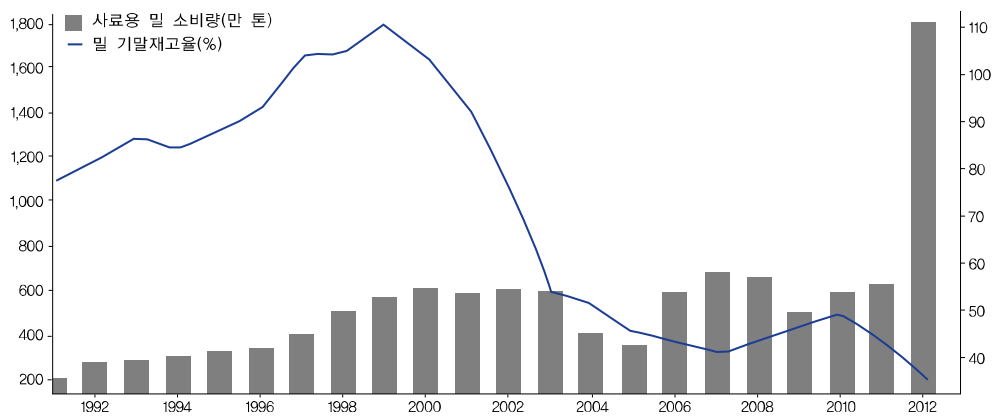
■ 중국의 밀 소비 전망

11월에도 밀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밀 가격은 옥수수 가격보다 톤당 100위안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사료용 밀의 소비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전 전망치에서 이미 사료용 밀 소비량을 200만 톤으로 하향조정하였고 11월 중순부터 옥수수 가격도 안정되기 시작하여 2012/13년도 중국의 사료용 밀 소비량은 전월과 같은 수준인 1,800만 톤으로 전망되었다. 11월 들어 밀가루 소비가 왕성해지면서 밀가루 가격도 상승하기 시작하였지만 밀 가격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밀의 가공이윤이 급격히 낮아졌다. 중국의 농산물수급전망기관인 BRIC에 따르면 현재 밀 가공이윤은 톤당 약 25위안 정도이며, 2012/13년도 제분용 밀 소비량은 9,540만 톤, 총 소비량은 약 1억 2,500만 톤으로 전망된다.

1992~2012년 중국의 식용 밀 소비량 및 기말재고율



1992~2012년 중국의 사료용 밀 소비량 및 기말재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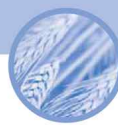




part

04 세계 기상 정보

2012 World Grain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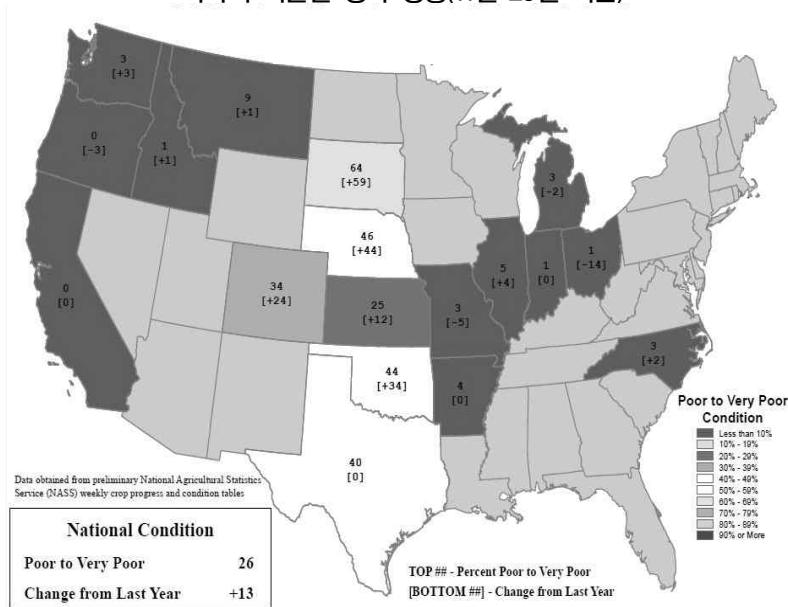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 121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1.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및 태평양연안 북서부에는 호우(주간 강수량 8~12인치)가 여러 차례 내렸다. 캘리포니아주의 북부 저지대에는 호우로 인해 홍수가 발생하여 밭작업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겨울작물에 필요한 수분이 공급되었다. 반면 대평원에는 온난건조한 기후가 지속되어 겨울밀 작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남서부의 기온은 화씨 80도까지 올라갔으나 남부, 동부, 중서부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서늘했다. 남동부에서는 겨울밀 파종 및 대두수확작업이 마무리 중이다.

미국의 겨울밀 생육 상황(11월 25일 기준)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99(No. 49), December 4, 2012

* 세계 기상 정보는 미국 농무부(USDA)에서 발표한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기후 및 작황 현황임.

주중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건조하여 밭작업을 촉진시켰다. 특히 적색경질밀 재배지역 대부분의 주중 강수량은 0.1인치 미만이었다. 버지니아주는 건조 기후로 인해 대두 수확 마무리작업에 도움이 되었으나 토양 수분이 더욱 고갈되었다. 한편 일련의 태풍전선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주 대부분 지역에는 평균 이상의 강수량(누적 강수량 6인치 이상)이 있었다.

2. 유럽

유럽대륙은 태풍전선으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에 비와 눈이 내려 겨울밀에 필요한 토양 수분이 증가하였으나 밭작업은 저해되었다. 영국(강수량 25-110mm), 이탈리아(강수량 50-150mm)는 국지적으로 홍수가 발생하였고 남부 유럽은 저수량이 증가했다. 이베리안 반도 북부에서 폴란드 북서부에 이르는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려 겨울작물 및 유지작물에 필요한 토양 수분이 증가되었다. 발칸반도에도 소나기(강수량 2-15mm)가 재개되어 생육성장기의 겨울밀에 필요한 토양 수분이 공급되었다. 유럽대륙 중부 및 동부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2~7℃ 높아 겨울밀과 유지작물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한편 폴란드, 독일, 영국 북부의 겨울밀은 동면기에 진입했다.

3. 구소련(FSU) 서부

기후가 평년보다 온난(최대 7℃ 이상)건조하여 러시아의 겨울밀 최대 주산지인 남부의 토양 수분은 더욱 감소했으며, 이 지역에는 수분부족문제가 지속되어 겨울밀 입모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한편 우크라이나 북부와 벨라루스에서부터 러시아 볼가강 구역에 이르는 지역에는 한랭전선이 비와 눈을 유발하여 동면기의 겨울밀에 필요한 토양 수분이 유지되었다.

4. 동아시아

기후가 서늘하여 산동성과 하북성의 겨울밀이 동면기에 진입하는 속도가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하남성, 안휘성, 강소성의 겨울밀은 서늘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생육 발달을 지속하고 있다. 화북평원의 남부, 양쯔강유역에는 가벼운 소나기(강수량 10mm 미만)가 내려 표토층 수분이 유지되었고 중국 남부 및 남동부에는 호우가 내렸다.

5. 호주

서부(강수량 10-20mm) 및 남동부(강수량 5-25mm) 기후가 습하여 겨울밀의 성숙 및 수확속도가 늦어졌다. 그러나 뉴사우스웨일즈 북부 및 퀸즐랜드 남부의 여름작물 재배지역은 대부분 기후가 고온건조하여 관개작업이 필요했다. 호주 서부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1~2℃ 낮았던 반면 남부 및 동부지역의 기온은 섭씨 30도 후반~40도 초반에 이르는 등 평년보다 2~5℃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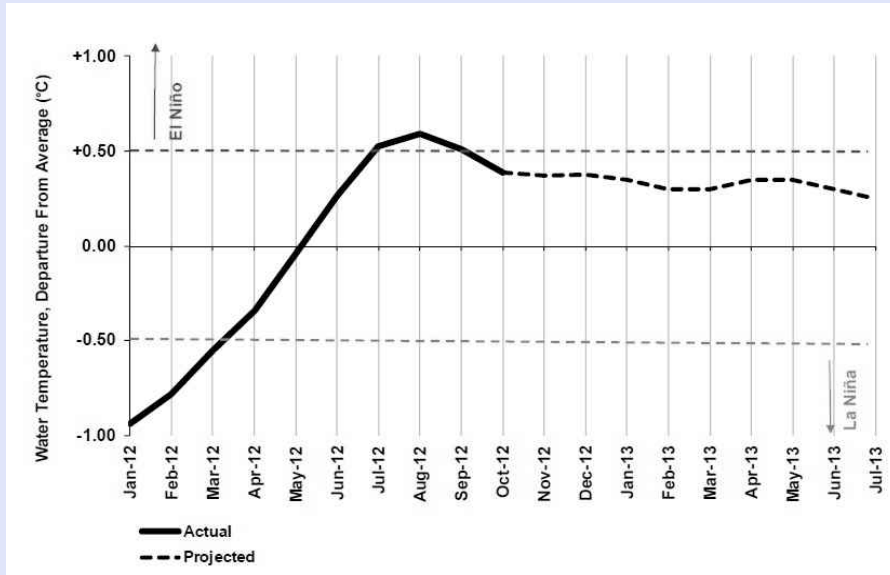
6. 아르헨티나

중부지역의 기후가 평년보다 습하여 여름작물의 파종작업이 지연되었고 겨울밀이 과도하게 습하여 생육 발달이 저해되었다. 주산지인 코르도바, 라팜파,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타페 남부에 내린 강수량은 25~50mm였다. 아르헨티나 북부지역의 차코 동부와 포르모사에는 국지적 호우(강수량 25-100mm)가 내려 여름작물에 필요한 수분이 공급되었다. 아르헨티나 농업부에 의하면 11월 29일 기준 옥수수 파종율은 63%로 전주대비 4%p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10%p 낮은 수준이고, 대두 파종율은 58%로 전주대비 11%p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8%p 낮은 수준이다. 겨울밀 수확율은 28%로 전년 동기대비 4%p 낮은 수준이다.

7. 브라질

마토그루수 동부에서 미나스제라이스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토칸틴, 바히아 서부 등 브라질 북동부 내륙지역 포함)에 국지적으로 많은 소나기(강수량 50~100mm, 국지적으로 200mm 초과)가 내려 브라질 중부의 대두 및 기타 여름작물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이에 상응하는 강수량이 마토그루수두술 및 파라과이에도 내렸고, 빠라냐 북부 및 상파울루에는 좀 더 적은 강수량이 내렸다. 브라질 남동부(빠라냐 북동부에서 미나스제라이스 남부에 이르는 지역)에는 지난주 온난건조한 기후에 이어 금주 비가 내린 것이 옥수수와 대두에 도움이 되었다. 반면 브라질 남부(리우그란데두술, 산타카타리나, 빠라냐 남부)는 건조기후가 지배적이어서 옥수수, 대두의 수분이 감소하였으나 겨울밀의 수확에는 도움이 되었다.

태평양 적도 부근 표층수온의 증감 상황 및 전망(2012 1월~2013년 7월)



자료: T-storm

엘니뇨/라니뇨는 2013년 중순까지 중립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part

05 [부록] 통계

2012 World Grain Market



세계 곡물 통계 / 127

국가별 대두 통계 / 131

세계 곡물 통계

□ 쌀(정곡)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144,412	2.75	269,908	12,413	11,258	270,066	52,606
1981/1982	144,375	2.83	277,902	11,726	10,232	278,456	50,503
1982/1983	140,526	2.98	284,974	10,731	9,884	277,833	56,781
1983/1984	144,613	3.12	306,942	12,515	10,708	292,600	69,316
1984/1985	144,067	3.23	316,758	10,740	10,615	298,287	87,662
1985/1986	144,728	3.23	317,986	11,485	10,311	306,784	97,690
1986/1987	144,809	3.21	316,051	13,063	10,686	308,060	103,304
1987/1988	141,432	3.29	315,092	11,572	10,452	312,026	105,250
1988/1989	146,582	3.35	332,117	14,015	11,701	323,373	111,680
1989/1990	147,811	3.45	345,247	11,484	10,589	335,392	120,640
1990/1991	146,966	3.53	351,371	12,115	10,593	343,821	126,668
1991/1992	147,486	3.55	353,235	14,453	12,028	350,794	126,684
1992/1993	146,480	3.58	354,003	14,876	12,954	355,574	123,191
1993/1994	145,332	3.62	354,700	15,837	16,138	359,239	118,953
1994/1995	147,342	3.66	364,148	21,058	19,380	363,850	117,573
1995/1996	148,352	3.69	368,791	19,820	18,127	366,581	118,090
1996/1997	150,083	3.77	381,382	19,110	16,666	376,768	120,260
1997/1998	151,708	3.79	387,433	26,646	24,232	377,539	127,740
1998/1999	153,114	3.83	394,915	25,633	25,219	388,228	134,013
1999/2000	155,860	3.91	409,176	22,837	20,268	397,550	143,070
2000/2001	152,443	3.90	399,260	24,100	22,203	393,697	146,736
2001/2002	151,352	3.93	399,472	26,883	26,053	412,489	132,889
2002/2003	146,896	3.83	378,199	28,684	26,476	405,916	102,964
2003/2004	149,317	3.92	392,312	27,427	25,003	411,277	81,575
2004/2005	151,839	3.93	400,920	28,260	26,071	406,276	74,030
2005/2006	153,853	4.04	417,312	29,734	26,458	411,351	76,715
2006/2007	154,503	4.04	419,901	31,442	28,328	418,142	75,360
2007/2008	155,054	4.14	432,953	31,482	29,880	425,868	80,843
2008/2009	158,204	4.22	448,701	28,960	27,323	435,510	92,397
2009/2010	156,134	4.21	441,009	31,139	28,205	435,298	95,174
2010/2011	157,601	4.25	449,301	34,876	32,748	443,697	98,650
2011/2012 (추정)	158,995	4.36	465,013	38,672	35,469	454,759	105,701

□ 밀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236,901	1.84	435,867	90,126	89,496	443,433	112,657
1981/1982	238,911	1.86	444,995	100,376	97,042	441,758	112,545
1982/1983	238,353	1.98	472,739	100,949	93,230	447,850	129,929
1983/1984	229,923	2.11	484,307	101,794	97,994	465,073	145,359
1984/1985	231,669	2.20	508,913	103,646	101,573	484,075	168,124
1985/1986	229,826	2.15	494,811	82,452	80,505	482,527	178,470
1986/1987	227,895	2.30	524,082	89,274	86,488	508,470	191,296
1987/1988	220,087	2.27	498,710	111,565	112,247	531,254	159,434
1988/1989	217,878	2.27	495,276	105,151	102,384	516,684	135,259
1989/1990	226,333	2.36	533,132	103,419	98,797	526,684	137,085
1990/1991	231,015	2.55	588,801	103,843	99,003	549,477	171,569
1991/1992	222,770	2.44	543,510	109,948	108,361	550,254	163,238
1992/1993	222,061	2.53	562,634	110,039	108,810	546,474	177,869
1993/1994	221,044	2.53	558,470	103,717	98,561	547,828	183,355
1994/1995	213,326	2.45	523,031	98,215	99,877	543,801	164,247
1995/1996	216,715	2.48	537,516	99,195	97,293	544,183	155,678
1996/1997	227,132	2.56	581,470	106,903	98,466	564,954	163,757
1997/1998	226,437	2.69	610,232	104,413	103,787	576,122	197,241
1998/1999	219,239	2.69	590,436	101,297	100,006	577,029	209,357
1999/2000	212,793	2.76	586,839	113,468	109,193	581,196	210,725
2000/2001	215,740	2.70	583,075	101,527	99,956	585,140	207,089
2001/2002	214,531	2.72	583,552	105,915	106,272	586,843	204,155
2002/2003	213,788	2.66	569,597	105,673	103,977	602,826	169,230
2003/2004	207,797	2.67	555,271	108,637	101,225	581,519	135,570
2004/2005	216,104	2.90	626,673	111,446	110,567	605,402	155,962
2005/2006	218,722	2.83	618,806	117,233	112,047	616,060	153,522
2006/2007	212,231	2.81	596,112	111,880	114,137	617,951	133,940
2007/2008	217,140	2.82	611,852	117,303	113,525	613,965	128,049
2008/2009	224,686	3.04	682,800	144,527	137,960	636,710	167,572
2009/2010	225,757	3.04	686,461	137,222	133,792	650,340	200,263
2010/2011	218,281	2.99	652,243	132,483	131,645	653,899	197,769
2011/2012 (추정)	221,984	3.14	696,433	157,653	148,477	689,259	195,767

□ 옥수수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131,189	3.12	408,734	80,308	74,263	411,826	102,541
1981/1982	133,040	3.32	441,753	68,083	72,177	421,225	127,163
1982/1983	125,245	3.51	439,869	59,535	66,623	424,356	149,764
1983/1984	119,699	2.91	348,272	60,955	58,542	406,641	88,982
1984/1985	128,969	3.55	458,366	67,008	66,256	428,446	118,150
1985/1986	130,999	3.66	479,020	55,302	53,470	417,666	177,672
1986/1987	131,859	3.61	475,444	55,077	52,484	445,661	204,862
1987/1988	126,860	3.56	450,997	59,128	57,323	456,354	197,675
1988/1989	126,108	3.18	400,413	68,461	66,465	450,832	145,260
1989/1990	127,310	3.63	461,690	72,176	73,603	475,526	132,851
1990/1991	129,102	3.73	481,963	58,389	58,547	473,577	141,395
1991/1992	132,498	3.72	492,950	62,053	63,107	494,366	141,033
1992/1993	133,080	4.02	535,605	63,263	60,289	509,088	162,714
1993/1994	130,703	3.64	475,773	58,861	56,973	507,161	129,438
1994/1995	135,169	4.14	559,332	66,126	68,911	538,397	153,158
1995/1996	134,966	3.83	516,371	70,422	65,702	531,847	132,962
1996/1997	141,525	4.19	592,999	65,572	64,846	559,407	165,828
1997/1998	136,249	4.22	574,435	63,347	63,206	573,674	166,448
1998/1999	138,940	4.36	605,973	66,938	66,501	581,013	190,971
1999/2000	138,904	4.38	608,109	75,767	70,960	600,483	193,790
2000/2001	137,186	4.31	591,365	76,856	75,047	608,254	175,092
2001/2002	137,483	4.37	601,044	74,666	71,578	621,695	151,353
2002/2003	137,311	4.39	603,179	76,814	75,918	626,593	127,043
2003/2004	141,985	4.42	627,387	77,289	76,941	648,802	105,280
2004/2005	145,424	4.92	715,810	77,712	75,982	687,787	131,573
2005/2006	145,728	4.80	699,739	81,073	80,291	705,778	124,752
2006/2007	149,429	4.78	714,488	94,068	90,269	724,847	110,594
2007/2008	160,450	4.95	794,597	98,645	98,256	772,691	132,111
2008/2009	159,058	5.03	800,036	84,486	82,470	782,065	148,066
2009/2010	158,570	5.18	822,028	96,858	89,675	817,633	145,278
2010/2011	163,862	5.07	831,358	91,455	92,374	850,495	127,060
2011/2012 (추정)	169,526	5.20	881,749	112,614	98,816	863,972	131,039

□ 대두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49,761	1.63	80,926	25,342	26,217	83,943	16,522
1981/1982	49,971	1.72	86,083	29,316	29,107	87,335	15,061
1982/1983	52,060	1.80	93,455	28,617	28,366	90,961	17,304
1983/1984	50,748	1.64	83,104	26,221	25,485	86,006	13,666
1984/1985	53,713	1.73	93,063	25,249	25,419	88,964	17,935
1985/1986	51,991	1.87	97,006	26,061	27,325	92,612	23,593
1986/1987	51,577	1.90	98,049	28,552	29,071	102,126	20,035
1987/1988	54,062	1.92	103,654	30,114	28,143	101,018	20,700
1988/1989	55,659	1.72	95,857	23,558	23,901	97,347	19,553
1989/1990	58,355	1.84	107,192	27,275	26,562	104,120	21,912
1990/1991	54,419	1.92	104,290	25,392	25,546	104,620	21,747
1991/1992	54,944	1.95	107,297	28,098	28,220	109,290	19,794
1992/1993	56,595	2.07	117,206	29,296	30,047	115,894	21,857
1993/1994	60,258	1.95	117,582	27,729	28,178	120,808	19,080
1994/1995	62,150	2.21	137,646	31,982	32,762	132,389	25,117
1995/1996	61,063	2.04	124,698	31,643	32,462	131,673	18,961
1996/1997	62,430	2.11	131,942	36,764	35,631	133,941	15,829
1997/1998	68,528	2.30	157,950	39,314	38,164	145,057	27,572
1998/1999	71,299	2.24	159,826	37,928	38,550	158,769	29,251
1999/2000	71,914	2.23	160,347	45,634	45,572	159,306	30,230
2000/2001	75,439	2.33	175,759	53,817	53,076	171,500	33,748
2001/2002	79,466	2.33	184,815	52,996	54,368	184,332	35,603
2002/2003	81,484	2.42	196,887	61,339	62,884	191,152	42,883
2003/2004	88,390	2.11	186,611	56,042	54,082	189,042	38,492
2004/2005	93,163	2.32	215,758	64,752	63,477	204,353	48,622
2005/2006	92,899	2.38	220,647	63,803	64,087	216,022	53,531
2006/2007	94,309	2.50	235,962	71,090	68,963	224,869	62,497
2007/2008	90,591	2.42	219,545	78,628	78,336	229,479	52,271
2008/2009	96,340	2.20	211,636	76,894	77,391	221,046	43,358
2009/2010	102,164	2.55	260,245	91,862	86,838	237,964	60,615
2010/2011	102,998	2.56	263,589	91,116	88,804	251,962	69,930
2011/2012 (추정)	102,918	2.33	239,625	90,425	93,055	256,182	56,003

자료: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Official USDA Estimates

국가별 대두 통계

□ 중국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7,226	1.10	7,940	143	540	8,337	0
1981/1982	8,024	1.16	9,325	110	530	9,745	0
1982/1983	8,419	1.07	9,030	320	30	8,740	0
1983/1984	7,567	1.29	9,760	800	0	8,960	0
1984/1985	7,286	1.33	9,695	1,080	0	8,615	0
1985/1986	7,718	1.36	10,509	1,260	280	9,529	0
1986/1987	8,295	1.40	11,614	1,750	190	10,054	0
1987/1988	8,445	1.44	12,184	1,482	208	10,910	0
1988/1989	8,120	1.43	11,645	1,209	33	10,469	0
1989/1990	8,034	1.27	10,227	1,107	1	9,121	0
1990/1991	7,560	1.46	11,000	1,288	1	9,713	0
1991/1992	7,041	1.38	9,710	1,090	136	8,756	0
1992/1993	7,221	1.43	10,300	300	150	10,150	0
1993/1994	9,454	1.62	15,310	1,100	125	14,335	0
1994/1995	9,222	1.73	16,000	394	155	15,761	0
1995/1996	8,127	1.66	13,500	222	795	14,073	0
1996/1997	7,470	1.77	13,220	195	2,274	14,309	990
1997/1998	8,346	1.76	14,728	168	2,940	15,472	3,018
1998/1999	8,500	1.78	15,152	187	3,850	19,929	1,904
1999/2000	8,000	1.79	14,290	230	10,100	22,894	3,170
2000/2001	9,300	1.66	15,400	208	13,245	26,697	4,910
2001/2002	9,480	1.63	15,410	300	10,385	28,310	2,095
2002/2003	8,720	1.89	16,510	265	21,417	35,290	4,467
2003/2004	9,313	1.65	15,394	319	16,933	34,375	2,100
2004/2005	9,590	1.81	17,400	390	25,802	40,212	4,700
2005/2006	9,591	1.70	16,350	354	28,317	44,440	4,573
2006/2007	9,304	1.62	15,074	446	28,726	46,120	1,807
2007/2008	8,750	1.53	13,400	453	37,816	49,818	2,752
2008/2009	9,130	1.70	15,540	400	41,098	51,435	7,555
2009/2010	9,190	1.63	14,980	184	50,338	59,430	13,259
2010/2011	8,520	1.77	15,100	190	52,339	65,950	14,558
2011/2012 (추정)	7,890	1.84	14,480	275	59,231	72,070	15,924

□ 인도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600	0.74	442	0	0	442	0
1981/1982	622	0.75	467	0	0	467	0
1982/1983	770	0.64	491	0	0	491	0
1983/1984	836	0.73	614	0	0	614	0
1984/1985	1,243	0.77	955	0	0	955	0
1985/1986	1,340	0.76	1,020	0	0	1,020	0
1986/1987	1,527	0.58	891	0	21	912	0
1987/1988	1,543	0.58	898	0	25	923	0
1988/1989	1,734	0.89	1,547	0	0	1,547	0
1989/1990	2,253	0.80	1,806	0	0	1,806	0
1990/1991	2,564	1.01	2,602	0	0	2,602	0
1991/1992	3,185	0.78	2,492	0	0	2,492	0
1992/1993	3,627	0.86	3,106	0	0	3,106	0
1993/1994	4,250	0.94	4,000	0	0	3,990	10
1994/1995	4,025	0.80	3,236	0	55	3,170	131
1995/1996	4,817	0.93	4,476	0	0	4,531	76
1996/1997	5,000	0.82	4,100	0	0	4,175	1
1997/1998	5,600	0.96	5,350	0	0	5,350	1
1998/1999	6,350	0.94	6,000	0	0	6,001	0
1999/2000	5,645	0.92	5,200	17	0	5,024	159
2000/2001	5,800	0.91	5,250	60	0	5,215	134
2001/2002	6,000	0.90	5,400	1	0	5,377	156
2002/2003	5,670	0.71	4,000	5	0	4,025	126
2003/2004	6,450	1.05	6,800	239	0	6,341	346
2004/2005	7,990	0.73	5,850	6	0	5,314	876
2005/2006	7,800	0.90	7,000	6	0	7,795	75
2006/2007	8,120	0.95	7,690	1	0	7,546	218
2007/2008	8,800	1.08	9,470	12	0	9,530	146
2008/2009	9,600	0.95	9,100	55	0	8,533	658
2009/2010	9,600	1.01	9,700	10	0	8,775	1,573
2010/2011	9,300	1.05	9,800	18	0	10,850	505
2011/2012 (추정)	10,270	1.07	11,000	20	0	11,150	335

□ 일본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142	1.23	174	0	4,213	4,407	495
1981/1982	149	1.42	212	0	4,486	4,514	679
1982/1983	147	1.54	226	0	4,871	4,936	840
1983/1984	143	1.52	217	0	4,728	4,922	863
1984/1985	134	1.78	238	0	4,611	4,918	794
1985/1986	134	1.70	228	0	4,796	5,057	761
1986/1987	138	1.78	245	0	4,866	4,994	878
1987/1988	163	1.76	287	0	4,847	5,034	978
1988/1989	162	1.71	277	0	4,286	4,724	817
1989/1990	152	1.79	272	0	4,667	4,968	788
1990/1991	146	1.51	220	0	4,375	4,624	759
1991/1992	141	1.40	197	0	4,672	4,834	794
1992/1993	110	1.71	188	0	4,866	5,075	773
1993/1994	87	1.16	101	0	4,855	5,008	721
1994/1995	61	1.62	99	0	4,837	5,035	622
1995/1996	69	1.72	119	0	4,776	4,965	552
1996/1997	82	1.80	148	0	5,043	5,108	635
1997/1998	83	1.75	145	0	4,873	5,020	633
1998/1999	109	1.45	158	0	4,807	4,980	618
1999/2000	108	1.73	187	0	4,907	5,050	662
2000/2001	123	1.91	235	0	4,767	5,075	589
2001/2002	144	1.88	271	0	5,023	5,213	670
2002/2003	150	1.80	270	0	5,087	5,717	310
2003/2004	152	1.53	232	0	4,688	4,931	299
2004/2005	137	1.19	163	0	4,295	4,499	258
2005/2006	134	1.69	226	0	3,962	4,274	172
2006/2007	142	1.61	229	7	4,094	4,303	185
2007/2008	138	1.64	227	5	4,014	4,159	262
2008/2009	147	1.78	262	0	3,396	3,657	263
2009/2010	145	1.59	230	0	3,401	3,655	239
2010/2011	138	1.62	223	0	2,917	3,209	170
2011/2012 (추정)	135	1.63	220	0	2,759	2,999	150

□ 브라질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8,501	1.79	15,200	1,798	1,070	14,718	5,579
1981/1982	8,202	1.56	12,835	858	1,235	13,727	5,064
1982/1983	8,136	1.81	14,750	1,307	80	14,744	3,843
1983/1984	9,421	1.65	15,541	1,591	3	13,659	4,137
1984/1985	10,153	1.80	18,278	3,476	376	14,255	5,060
1985/1986	9,450	1.49	14,100	1,187	285	13,507	4,751
1986/1987	9,270	1.87	17,300	3,294	289	15,690	3,356
1987/1988	10,550	1.71	18,020	2,710	471	14,308	4,829
1988/1989	12,150	1.94	23,600	4,839	63	15,912	7,741
1989/1990	11,550	1.76	20,340	3,933	63	17,104	7,107
1990/1991	9,750	1.62	15,750	2,478	126	15,406	5,099
1991/1992	9,700	1.99	19,300	3,872	279	16,201	4,605
1992/1993	10,625	2.12	22,500	4,056	375	16,977	6,447
1993/1994	11,440	2.16	24,700	5,434	190	20,046	5,857
1994/1995	11,680	2.22	25,900	3,566	1,200	21,838	7,553
1995/1996	10,950	2.21	24,150	3,458	1,050	23,239	6,056
1996/1997	11,800	2.31	27,300	8,424	940	21,617	4,255
1997/1998	13,000	2.50	32,500	8,760	1,591	21,692	7,894
1998/1999	12,900	2.43	31,300	8,932	730	22,906	8,086
1999/2000	13,600	2.55	34,700	11,101	674	22,941	9,418
2000/2001	13,934	2.83	39,500	15,469	733	24,734	9,448
2001/2002	16,350	2.66	43,500	14,504	1,112	26,963	12,593
2002/2003	18,448	2.82	52,000	19,629	1,321	29,649	16,636
2003/2004	21,520	2.37	51,000	20,417	328	31,690	15,857
2004/2005	22,917	2.31	53,000	20,137	475	32,187	17,008
2005/2006	22,229	2.56	57,000	25,911	63	31,185	16,975
2006/2007	20,700	2.85	59,000	23,485	53	33,959	18,584
2007/2008	21,300	2.86	61,000	25,364	150	34,917	19,453
2008/2009	21,700	2.66	57,800	29,987	44	34,668	12,642
2009/2010	23,500	2.94	69,000	28,578	174	36,600	16,638
2010/2011	24,200	3.11	75,300	29,951	37	39,330	22,694
2011/2012 (추정)	25,000	2.66	66,500	36,315	128	40,038	12,969

□ 아르헨티나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1,740	2.01	3,500	2,700	0	1,132	676
1981/1982	1,986	2.09	4,150	1,876	0	1,560	1,390
1982/1983	2,281	1.84	4,200	1,417	0	2,373	1,800
1983/1984	2,910	2.41	7,000	2,970	0	3,260	2,570
1984/1985	3,270	2.06	6,750	3,292	0	4,168	1,860
1985/1986	3,316	2.20	7,300	2,541	0	4,699	1,920
1986/1987	3,510	1.99	7,000	1,333	0	5,263	2,324
1987/1988	4,260	2.35	10,000	2,091	0	5,750	4,483
1988/1989	4,000	1.63	6,500	445	0	6,214	4,324
1989/1990	4,950	2.17	10,750	2,968	0	6,703	5,403
1990/1991	4,750	2.42	11,500	4,469	0	7,451	4,983
1991/1992	4,800	2.36	11,350	3,213	0	8,225	4,895
1992/1993	4,900	2.32	11,350	2,211	4	9,018	5,020
1993/1994	5,400	2.30	12,400	3,023	60	9,305	5,152
1994/1995	5,700	2.19	12,500	2,581	88	9,247	5,912
1995/1996	5,980	2.09	12,480	2,103	92	10,830	5,551
1996/1997	6,200	1.81	11,200	757	356	11,628	4,722
1997/1998	6,954	2.80	19,500	2,821	948	13,560	8,789
1998/1999	8,165	2.45	20,000	3,061	275	18,317	7,686
1999/2000	8,583	2.47	21,200	4,125	218	17,927	7,052
2000/2001	10,400	2.67	27,800	7,304	320	18,331	9,537
2001/2002	11,400	2.63	30,000	5,960	251	22,012	11,816
2002/2003	12,600	2.82	35,500	8,624	383	24,813	14,262
2003/2004	14,000	2.36	33,000	6,741	537	26,443	14,615
2004/2005	14,400	2.71	39,000	9,568	692	28,763	15,976
2005/2006	15,200	2.66	40,500	7,249	584	33,338	16,473
2006/2007	16,300	2.99	48,800	9,560	1,986	35,093	22,606
2007/2008	16,371	2.82	46,200	13,839	2,954	36,161	21,760
2008/2009	16,000	2.00	32,000	5,590	1,241	32,823	16,588
2009/2010	18,600	2.93	54,500	13,088	1	35,724	22,277
2010/2011	18,300	2.68	49,000	9,205	13	39,213	22,872
2011/2012 (추정)	17,600	2.33	41,000	7,368	0	37,504	19,000

□ 멕시코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150	1.87	280	0	1,370	1,530	370
1981/1982	370	1.84	680	0	566	1,530	86
1982/1983	350	1.57	550	0	1,070	1,480	226
1983/1984	350	1.71	600	0	1,805	2,353	278
1984/1985	350	1.57	550	0	1,472	2,082	218
1985/1986	370	1.92	710	0	877	1,642	163
1986/1987	340	1.94	660	0	1,092	1,744	171
1987/1988	390	1.92	750	0	956	1,746	131
1988/1989	139	2.16	300	0	1,220	1,550	101
1989/1990	468	2.10	984	0	945	1,830	200
1990/1991	276	2.05	567	0	1,376	1,993	150
1991/1992	340	2.11	718	0	2,100	2,793	175
1992/1993	305	1.88	572	0	2,136	2,770	113
1993/1994	238	2.09	497	0	2,200	2,710	100
1994/1995	288	1.82	523	0	1,867	2,400	90
1995/1996	133	1.43	190	0	2,401	2,506	175
1996/1997	52	1.17	61	0	2,720	2,761	195
1997/1998	128	1.48	189	0	3,502	3,658	228
1998/1999	90	1.59	143	0	3,766	3,982	155
1999/2000	79	1.56	123	0	4,039	4,135	182
2000/2001	70	1.47	103	0	4,381	4,485	181
2001/2002	45	1.47	66	0	4,510	4,655	102
2002/2003	56	1.59	89	1	4,230	4,375	45
2003/2004	68	1.84	125	3	3,797	3,924	40
2004/2005	88	1.50	132	1	3,640	3,764	47
2005/2006	94	1.99	187	0	3,667	3,860	41
2006/2007	54	1.48	80	0	3,844	3,926	39
2007/2008	63	1.40	88	0	3,614	3,685	56
2008/2009	76	2.01	153	0	3,327	3,500	36
2009/2010	65	1.86	121	0	3,523	3,635	45
2010/2011	154	1.09	168	0	3,498	3,660	51
2011/2012 (추정)	156	1.31	205	0	3,400	3,585	71

□ 미국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27,443	1.78	48,921	19,712	0	30,446	8,519
1981/1982	26,776	2.02	54,135	25,285	0	30,443	6,926
1982/1983	28,102	2.12	59,610	24,634	0	32,523	9,379
1983/1984	25,303	1.76	44,518	20,221	0	28,888	4,788
1984/1985	26,755	1.89	50,644	16,265	0	30,575	8,592
1985/1986	24,929	2.29	57,127	20,158	0	30,981	14,580
1986/1987	23,598	2.24	52,868	20,600	0	34,972	11,876
1987/1988	23,137	2.28	52,736	21,870	34	34,544	8,232
1988/1989	23,218	1.82	42,153	14,355	98	31,174	4,954
1989/1990	24,094	2.17	52,354	16,933	68	33,935	6,508
1990/1991	22,870	2.29	52,416	15,150	95	34,914	8,955
1991/1992	23,477	2.30	54,065	18,614	94	36,922	7,578
1992/1993	23,566	2.53	59,612	20,972	56	38,319	7,955
1993/1994	23,191	2.19	50,885	16,006	175	37,318	5,691
1994/1995	24,609	2.78	68,444	22,867	149	42,305	9,112
1995/1996	24,906	2.38	59,174	23,108	121	40,306	4,993
1996/1997	25,637	2.53	64,780	24,110	242	42,317	3,588
1997/1998	27,968	2.62	73,176	23,796	136	47,666	5,438
1998/1999	28,507	2.62	74,598	21,899	96	48,749	9,484
1999/2000	29,318	2.46	72,224	26,537	114	47,388	7,897
2000/2001	29,303	2.56	75,055	27,103	97	49,203	6,743
2001/2002	29,532	2.66	78,672	28,948	63	50,867	5,663
2002/2003	29,339	2.56	75,010	28,423	127	47,524	4,853
2003/2004	29,330	2.28	66,783	24,128	151	44,600	3,059
2004/2005	29,930	2.84	85,019	29,860	152	51,410	6,960
2005/2006	28,834	2.90	83,507	25,579	92	52,751	12,229
2006/2007	30,190	2.88	87,001	30,386	246	53,473	15,617
2007/2008	25,959	2.81	72,859	31,538	269	51,627	5,580
2008/2009	30,222	2.67	80,749	34,817	361	48,112	3,761
2009/2010	30,907	2.96	91,417	40,798	397	50,671	4,106
2010/2011	31,003	2.92	90,605	40,849	393	48,403	5,852
2011/2012 (추정)	29,856	2.82	84,192	37,063	439	48,809	4,611

□ 캐나다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277	2.49	690	142	401	965	136
1981/1982	279	2.18	607	83	424	996	88
1982/1983	364	2.33	848	117	419	1,081	157
1983/1984	364	2.02	735	61	280	979	132
1984/1985	405	2.26	917	124	229	964	190
1985/1986	405	2.50	1,012	173	175	954	250
1986/1987	385	2.49	960	147	217	1,166	114
1987/1988	461	2.75	1,270	186	151	1,210	139
1988/1989	533	2.16	1,153	273	159	1,007	171
1989/1990	540	2.26	1,219	192	287	1,294	191
1990/1991	484	2.61	1,262	213	151	1,181	210
1991/1992	598	2.44	1,460	252	72	1,270	220
1992/1993	623	2.34	1,455	211	226	1,535	155
1993/1994	720	2.57	1,851	489	57	1,424	150
1994/1995	820	2.75	2,251	542	67	1,743	183
1995/1996	824	2.78	2,293	599	70	1,827	120
1996/1997	860	2.52	2,165	478	231	1,961	77
1997/1998	1,060	2.58	2,738	769	149	2,063	132
1998/1999	980	2.79	2,737	876	254	2,064	183
1999/2000	1,002	2.77	2,776	949	455	2,213	252
2000/2001	1,061	2.55	2,703	747	431	2,219	420
2001/2002	1,069	1.53	1,635	502	982	2,197	338
2002/2003	1,024	2.28	2,336	726	651	2,296	303
2003/2004	1,049	2.17	2,273	914	613	2,080	195
2004/2005	1,174	2.59	3,044	1,124	386	2,048	453
2005/2006	1,165	2.71	3,156	1,326	349	1,996	636
2006/2007	1,201	2.89	3,466	1,683	234	1,998	655
2007/2008	1,167	2.30	2,686	1,753	309	1,723	174
2008/2009	1,195	2.79	3,336	2,017	387	1,636	244
2009/2010	1,412	2.54	3,581	2,247	375	1,648	305
2010/2011	1,505	2.95	4,445	2,943	250	1,755	302
2011/2012 (추정)	1,551	2.77	4,298	2,932	230	1,698	200

□ 러시아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7/1988	619	0.87	541	0	425	966	0
1988/1989	598	1.13	675	0	200	875	0
1989/1990	651	1.13	738	0	200	938	0
1990/1991	675	1.06	717	0	180	897	0
1991/1992	664	0.94	624	0	75	644	55
1992/1993	645	0.78	505	5	167	668	54
1993/1994	625	0.80	497	17	68	542	60
1994/1995	577	0.73	421	56	35	400	60
1995/1996	485	0.60	290	50	35	301	34
1996/1997	485	0.58	279	85	4	207	25
1997/1998	404	0.69	280	57	14	232	30
1998/1999	375	0.79	297	80	200	397	50
1999/2000	439	0.76	334	45	65	369	35
2000/2001	340	1.01	342	12	22	367	20
2001/2002	420	0.83	350	0	64	415	19
2002/2003	362	1.17	423	1	15	452	4
2003/2004	401	0.98	393	1	1	390	7
2004/2005	555	1.00	555	9	40	564	29
2005/2006	656	1.05	689	3	2	695	22
2006/2007	815	0.99	807	16	34	825	22
2007/2008	709	0.92	652	5	442	1,071	40
2008/2009	709	1.05	744	2	837	1,527	92
2009/2010	792	1.19	942	0	1,037	1,980	91
2010/2011	1,036	1.18	1,222	1	1,000	2,200	112
2011/2012 (추정)	1,180	1.48	1,749	90	741	2,445	67

□ 우크라이나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7/1988	74	1.15	85	0	200	285	0
1988/1989	76	1.33	101	0	200	301	0
1989/1990	105	1.18	124	0	200	324	0
1990/1991	88	1.13	99	0	180	279	0
1991/1992	102	1.32	135	0	180	315	0
1992/1993	97	0.78	76	0	60	136	0
1993/1994	70	0.86	60	0	30	90	0
1994/1995	43	0.70	30	0	20	50	0
1995/1996	23	0.96	22	0	20	42	0
1996/1997	16	0.94	15	0	20	35	0
1997/1998	14	1.29	18	0	20	38	0
1998/1999	31	1.16	36	7	6	35	0
1999/2000	42	1.07	45	7	0	37	1
2000/2001	61	1.05	64	12	10	62	1
2001/2002	73	1.01	74	1	13	86	1
2002/2003	98	1.28	125	7	1	118	2
2003/2004	190	1.22	232	61	0	172	1
2004/2005	256	1.42	363	36	0	315	13
2005/2006	422	1.45	613	224	2	376	28
2006/2007	715	1.24	890	420	0	478	20
2007/2008	583	1.24	723	190	1	524	30
2008/2009	538	1.51	813	277	0	538	28
2009/2010	623	1.68	1,044	263	1	664	146
2010/2011	1,037	1.62	1,680	989	2	726	113
2011/2012 (추정)	1,110	2.04	2,264	1,338	1	770	270

□ EU-27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9/2000	483	2.91	1,406	29	14,122	15,446	667
2000/2001	466	2.70	1,258	22	17,602	18,546	959
2001/2002	437	3.15	1,375	41	18,675	19,894	1,074
2002/2003	343	2.90	993	23	16,943	18,111	876
2003/2004	409	2.02	825	25	14,675	15,445	906
2004/2005	394	2.76	1,086	35	14,539	15,739	757
2005/2006	403	2.91	1,174	49	13,937	15,086	733
2006/2007	494	2.49	1,228	47	15,180	16,087	1,007
2007/2008	342	2.11	723	37	15,127	16,113	707
2008/2009	237	2.70	639	22	13,213	14,086	451
2009/2010	308	2.71	836	36	12,674	13,382	543
2010/2011	380	2.87	1,090	56	12,482	13,456	603
2011/2012 (추정)	451	2.86	1,288	39	11,812	13,100	564

자료: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Official USDA Estimates

발행일 2012. 12
발행인 이동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인쇄 (주)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